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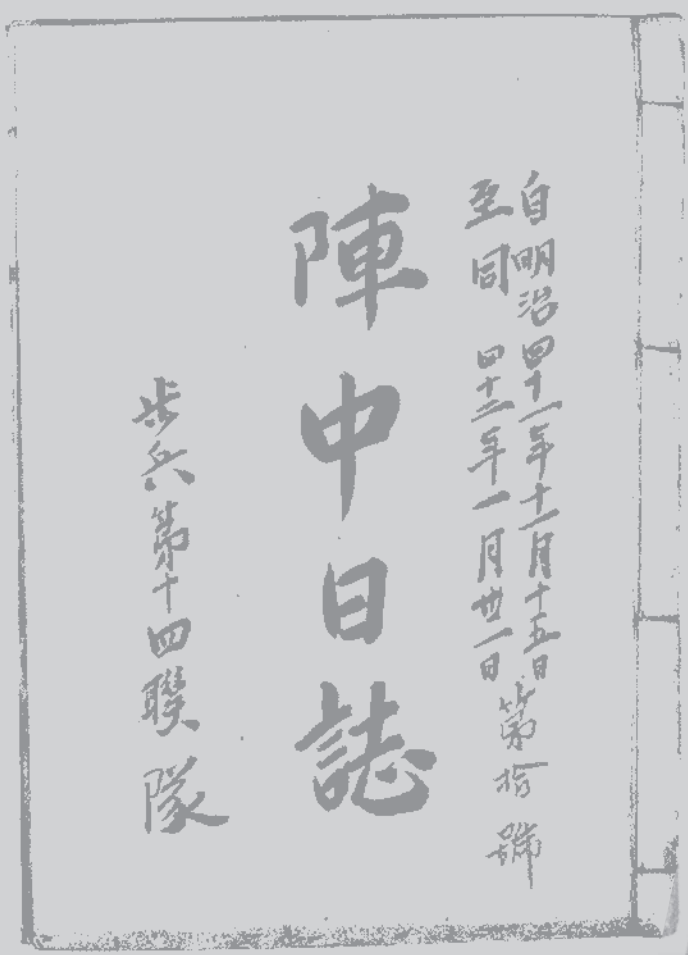
제2장
진중일지
(일본군 보병 제14연대 토벌일지)

해제논문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본
이강년의진의 활동

번역본

『진중일지』 이강년 및 문경관련 번역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본 이강년의진의 활동*

김상기(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

1. 머리말
2. 보병제14연대의 한국 파견과 배치
3. 보병제14연대의 의병 탄압과 이강년의병의 항전
 - 1) 이강년의병의 항전과 '토벌대'편성
 - 2) 갈평전투
 - 3) 적성전투
 - 4) 단양 일대에서의 항전
 - 5) 일본군 수비대의 재배치와 이강년 피체
4. 맺음말

1. 머리말

한말 의병 자료로는 의병 측의 기록과 의병을 탄압한 일본 측 자료가 있다. 의병 측의 자료로는 의병장의 문집과 진중일지가 있다. 진중일지로는 김하락의 『정토일록』을 비롯하여 『종의록』,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운강선생창의일록』, 『전해산진중일지』, 『벽산선생창의전말』, 『관동창의록』, 『소의신편』, 『적원일기』, 『왕산허위선생거의사실대략』 등 다수 있다. 그동안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병 항전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 2010년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지역문화연구』 제9집에 게재된 논문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수록하였음.

일본 측의 자료로는 통감부의 경무국에서 펴낸 『폭도사편집자료』와 『폭도에 관한 편책』이 있으며, 1913년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편집한 『조선폭도토벌지』가 있다. 『폭도사편집자료』와 『조선폭도토벌지』는 1972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하여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권에 실었다. 이외에도 일본의 외교사료관과 방위연구소 도서실 등에 있는 각종 보고서에도 의병 관련 자료가 많다. 이들 중에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의병 관련 자료는 2001년 독립기념관에서 일부를 번역하여 간행한 바 있다.¹⁾ 일본측 자료 중에 『폭도에 관한 편책』은 총 121책의 방대한 양으로 의병에 관한 보고서를 월별로 경무국에서 편찬한 일제 측의 의병 탄압 일지이다. 현재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본을 각기 소장하고 있으나 난해한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일본군 『보병제14연대 진중일지』이하 『진중일지』는 후기의병기인 1907년 이후 충청지역과 영, 호남지역에서 의병 탄압에 참여한 일본군 보병제14연대에서 작성한 진중일지이다. 총14권으로 되어 있으며 1907년 7월 23일 동원령을 받은 날 부터 1909년 6월 19일 부대 복귀까지 근 2년간의 기록이다. 이 『진중일지』에는 각종의 명령, 부대 위치, 전투 상황, 전투 중에 생긴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25매에 달하는 전투상황도는 칼라 판으로 되어 있어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자세하다.²⁾

이 글에서는 일본군의 의병탄압상과 『진중일지』에 나타난 이강년의진의 활동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강년의진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운강선생창의일록』과 『창의사실기』가 있으며, 이들 자료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는 이미 치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³⁾ 이 글에서는 『진중일지』를 중심으로 이강년의진의 일본군 수비대와의 구체적인 전투 과정을 검토함은 물론 일본군의 의병 탄압의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권, 1972.

김상기 편역, 『일본 외교사료관소장 한말의병자료』 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본 외교사료관소장 한말의병자료』 3-7,

2) 『보병제14연대 진중일지』, 토지주택박물관, 2010년 영인.

3) 구완희, 「이강년 관련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말 제천의병 연구』, 선인, 2005.

구완희 역, 『국역 창의사실기』, 다운샘, 2014.

2. 보병제14연대의 한국 파견과 배치

일본군 보병제14연대는 일본 九州지역의 小倉에 본부를 둔 보병 제12사단 소속 부대이다. 1907년 7월 23일 오후 9시 제12사단장 육군중장 淺田新興은 제14연대장에게 한국 파견에 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명령에 따라 연대장 菊池主殿 대좌는 24일부터 출발 준비를 개시하였다. 보병제14연대는 3개 대대로 편제되었는데 대대는 4개 중대, 중대는 3개 소대 체제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대대장: 赤司安一郎 소좌는 제1,2,3,4중대, 제2대대대대장: 不破太郎七 소좌는 제5,6,7,8중대, 제3대대대대장: 井澤岩平 소좌는 제9,10,11,12중대로 편제되었다. 인원은 장교 66명, 준사관 12명, 하사 및 사병 1,189명(하사 79명, 상등병 136명, 1,2등병 974명, 그리고 간호수 12명, 위생부 하사 3명, 馬丁 5명, 計手 3명, 銃工長 1명 등 총1,291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4연대 병력은 7월 25일 오후 2시 55분 小倉발 기차에 탑승, 오후 3시 20분 門司역에 도착하였으며, 오후 4시 10분 모지항에서 ‘樺太丸’에 승선하여 오후 6시 부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들은 다음 날인 7월 26일 아침 6시 40분 부산에 상륙하였다. 각 부대는 이미 하달된 수비 지역을 향해 출발하였다.

각 부대는 명령에 따라 목포수비대와 광주수비대, 군산수비대는 부산에서 배편으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철도편으로 현지에 급파되어 수비를 담당하였다. 연대장과 연대본부 등은 26일 0시 20분에 대전에 도착하였다. 27일 오후 11시 20분 개성수비대장 征矢野陸治 대위로부터 개성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보를 받음으로써 각 부대가 수비지에 전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보병제14연대의 한국 파견 목적은 출발 전에 병사들에게 훈시한 사단장과 연대장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연대장은 다음과 같은 사단장의 훈시를 전달하였다.

이번 한국 소요의 때에 칙명을 받아 한국에 파견함은 본 연대의 명예는 물론 나 또한 광영되는 바이니, 부산 상륙 후에 한국주차군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각기 평소 각오한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 일체의 행동거지도 소루함이 없도록 하여 의연한 九州 남야의 면모를 발휘하여 봉공의 실적을 거둘 것을 기대한다.

연대장 역시 “한국소요 때문에 파견하니 명예를 걸고”라고 하고 있어 보병제14연대의 한국 파견 목적은 군대해산과 같은 한국 소요의 사태를 막기 위함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3. 보병제14연대의 의병 탄압과 이강년의병의 항전

1) 이강년의병의 항전과 ‘토벌대’ 편성

1907년 8월 하순부터 의병의 활동이 격화되었는데 특히 경북의 산간지역에서 활발하였다. 9월 3일에는 의병 100여명이 문경을 습격하였는데 이때 일본인 가옥이 소각되고 일본인 5명이 행방불명되기도 하였다. 9월 6일 일본군의 전보 보고에 의하면, 의병들이 함창에서 문경까지의 전선을 파손하고 문경우편국의 기계를 파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의병이 화령성 부근에 170명, 문경 부근에 약 570명의 의병이 집결하고 있음도 탐지되었다. 이 의병의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강년의병이 이즈음 문경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강년은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의병을 재기하였다. 1907년 3월부터 의병 봉기를 준비한 이강년은 고종의 강제 퇴위에 항의하여 그해 8월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원주의 주천에서 도창의대장에 추대되었다. 8월 15일 양 충주성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9월 초에 김룡사에 머물다가 6일 김룡사문경시 산북면 소재를 출발하여 문경의 용연을 거쳐 당포에서 자고 다음 날인 9월 7일 오후, 7월 30일 문경의 주흘루에 주둔하고 있던 적을 공격하였는데 적은 전날 밤에 이미 도망한 뒤였다. 이강년의병은 9월 9일 새벽 3시경 성주 분파소를 습격하여 순사부장에게 총상을 입혔다. 이 전투에서 일본인 3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이와같이 경북 일대에서 의병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본군 여단장 겸 남부수비대장 依田소장은 9월 5일 제14연대와 제47연대로 경북지역의 의병을 탄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토벌대’대장: 菊池 대좌를 편성하였다.⁴⁾

4) 『진중일지』, 권2, 70쪽. 1907년 9월 7일자.

<우토벌대>

제1중대 중대장: 藤田 대위: 14연대 제10중대1소대 결

제2중대 중대장: 井澤 소좌: 14연대 제3대대9중대, 10, 12중대(1소대 결)

제3중대 중대장: 菊池 대좌: 14연대본부, 2대대본부, 5중대, 7중대, 기병2, 산포2
문, 공병하사 이하 8명, 전신기수1, 전신수 약간

<좌토벌대>

제4중대 중대장: 水町 대위: 47연대 9중대1소대 결, 기병2

제5중대 중대장: 生田目 중좌: 47연대본부, 1대대본부, 3,4중대1소대 결, 기병2

제6중대 중대장: 中茅田 중위: 47연대 4중대의 1소대

이 부대는 모두 6중대로 편성되었는데 ‘우토벌대’ 제1, 2, 3중대는 제14연대병력으로 하여 14연대장 菊池대좌가 지휘하고, ‘좌토벌대’ 제4, 5, 6중대는 제47연대 병력으로 편성하였다. ‘토벌대’의 총 지휘는 菊池대좌가 맡았다. 菊池主殿은 1895년 일본군이 대만을 점령할 때도 참전했던 전투 경험이 많은 장교였다.

우토벌대 대장 菊池대좌는 9월 7일 오후 4시 대구에서 예하 부대에게 명령을 내렸다. ‘토벌대’의 병력은 2개의 연대본부, 3개의 대대본부, 21개 소대와 기병 21명, 포병 1개소대2문, 그리고 전신기수와 전신수 약간 명으로 편성되었다. 1개 소대의 병력은 약 30여명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 약 700여명의 병력으로 추산된다.

2) 갈평전투

이강년의진의 일본군과의 갈평전투는 9월 10일 일어났다. 『진중일지』 9월 13일자 ‘보고제3호’에 의하면, 이강년의병이 예천분파소를 습격함에 9월 7일 宮副소위가 하사 이하 11명과 永谷 경시 이하 보조원 10명을 거느리고 문경 방면으로 출동하였다. 9월 10일 오후 1시에 葛坪 부근에서 약 300여명의 의병과 충돌, 교전하였는데, 지형이 불리하고 게다가 의병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포위되어 악전 후에 겨우 宮副 이하 6명만이 퇴각하였다 한다. 그리고 安藤 오장 이하 6명은 행방불명되었다 한다. 『진중일지』 9월 12일자에서도

이 갈평전투에 대하여, 宮副소위가 지휘하는 척후대 24명이 안동과 예천 방향으로 파견되었는데, 문경에서 동북으로 40리에 있는 대승사 부근에서 의병 5, 6백명을 만나 총격전을 벌였으나 의병의 공세가 강하여 간신히 귀대했다고 하였다. 『진중일지』를 통하여 이 강년의병이 9월 10일 갈평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도 9월 10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승전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마음 놓고 순사들을 휴식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군사들이 불의에 습격하여 들어가니 적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데, 죽어 넘어진 시체가 산과 들에 가득 찼다. 달아나는 적을 마을 사람들은 맨손으로 잡았다. (총략) 총검과 탄환 투구 양식 기구들을 수색하여 얻은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⁵⁾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의하면, 9월 11일 갈평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순검 1명을 갈평시장에서 체포하여 총살하고, 도주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槐城에서 일본군 ‘장수’ 戈田三太郎을 베었다고 한다.⁶⁾ 또한 창지사실기에서도 9월 11일 갈평에서 순검 한사람을 죽이고, 괴성에서 戈田三太郎을 베었으며, 후군장 申泰元이 大土村 앞에서 일본군 보병 孔가의 목을 베고 총과 칼을 노획하였다고 하였다.⁷⁾

이강년의진은 9월 13일 대승사에 주둔하였다가 다음 날 예천의 명봉사에 들어갔다. 9월 15일 단양을 지나 9월 18일 李明相의진과 합진하여 永春에 들어갔다.⁸⁾

14연대에서는 정찰병을 파견하여 문경 일대에 이강년이 이끄는 의병이 1,500여명에 달하고 대승사와 김룡사, 적성사가 근거지임을 알아냈다. 이에 따라 菊池대좌는 부대를 끌고 문경으로 들어갔다.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좌도벌대의 제4중대도 菊池 대좌에 예속

5)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8월 3일(임술)(양력, 9월 10일)(『독립운동사자료집』1, 232쪽).

6) 『진중일지』 1907년 9월 19일자(권2, 115쪽)에 의하면, 갈평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 측은 “宮副소위가 하사 이하 11명과 永谷 경시이하 보조원 10명”(총 22명임, 필자)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 중에 돌아간 이는 “겨우 宮副 이하 6명만이 퇴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安藤 오장 이하 6명은 행방불명되었다 한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있는 ‘戈田三太郎’에 대한 기록을 『진중일지』에서는 찾을 수 없다.

7) 구완희 역, 국역 창지사실기, 다운샘, 2014, 52쪽.

8)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8월 11일(경오)(양력, 9월 18일)(『독립운동사자료집』1, 235쪽).

되었다. 아울러 좌도별대도 제2중대와 연락할 것이라고 하여 여단 병력 전원이 문경에 집결하게 되었다. 菊池는 9월 13일 의병 탄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菊池 대좌는 9월 13일 오전 6시 30분에 제2대대장 不破소좌에게 ‘前衛’를 맡아 진남관을 거쳐 문경으로 향하도록 했다. 제5중대장 松野대위는 같은 시간에 적성 방향으로 향하게 했다. 본대는 6시 40분에 전위를 따라가도록 했다. 일본군은 오후 4시에 진남관을 지나 문경에 도착하였다. 진남관에서 문경에 이르는 전선은 모두 잘려 있었고, 전주도 넘어져 있었다. 또한 일본인 집과 일본인과 관련 있는 한인의 가옥은 모두 파괴되고 소각되어 있었다. 지방민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일전인 9월 2일 40여명의 의병이 문경의 일본인 집을 소각하고, 7일전인 9월 5일 500여명의 의병이 사방에서 군집하여 3일간 숙영한 후 동북방으로 갔다고 하였다. 일본군은 의병이 한 부대는 문경의 사불산에 있는 대승사에, 한 부대는 김룡사 부근으로 퇴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菊池대좌는 본대로 대승사를, 不破소좌에게는 김룡사를 공격하도록 하고 연대장 이름으로 협력을 강요하는 고시문을 게시하였다.

菊池의 명령을 받은 不破소좌는 대승사에 갔으나 이강년이 이끄는 의병은 이미 12일 그곳에서 1박하고 적성 방향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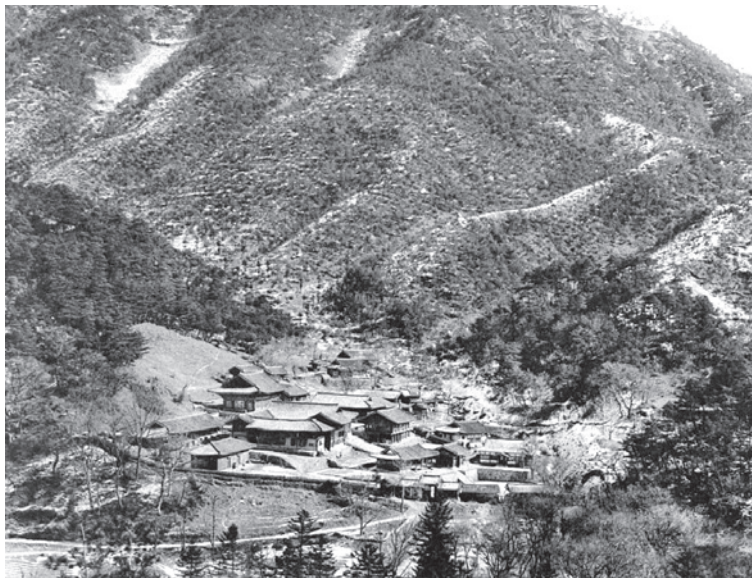


그림1. 문경 김룡사 전경 (『朝鮮寺刹三十一本山寫眞帖』, 1929년)

3) 적성전투

이강년의병대 100여명은 9월 14일 대승사 부근을 정찰하던 일본군 제5중대장 松野 대위 부대와 적성일대에서 전투를 벌였다. 일본군은 14일 오후 1시경 대승사 동방 1,000미터 되는 1030고지에서 의병대가 적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추격하여 오후 5시경 적성시장 부근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약 500명의 의병대를 공격하였다. 일본군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의병 25명과 주민 3명을 피살되었으며, 화승총 30정과 군도1정, 振旗 1, 탄약 약간을 빼앗겼다. 또한 사체 중에 ‘적의 수괴’ 이강년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적성 마을의 민가 전체를 전투 후에 소각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군의 피해는 실탄 382발을 소비한 것 뿐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강년의병은 적성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적성전투에 대하여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8월 8일 정묘일양력, 9월 15일조에 의하면, “정묘일에 후군장 申泰元이 적성에서 싸우다 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적성전투를 기록하고 있다. 이강년은 이만원에게 지시하여 적성으로 가서 36명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지내게 하였다. 전투가 끝난 후 김성달 등 의병을 지원한 이들이 체포되어 피살되었다. 『진중일지』 9월 17일자 松野중대의 전투보고에 의하면, 의병 2명을 체포하여 심문 도중에 도주를 기도함에 사살했다 한다. 이들 의병은 문경군 신동면에 거주하는 27세의 金聖達과 化安郡 달미면 광동리에 거주하는 26세의 金用出로 이들은 의병에 가담하여 일본군의 상황을 의병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9월 18일에도 9월 6일 체포한 李康裕이강년의 숙부와 趙炳淳이 탈출을 기도했다고 사살하고 있다. 이강유는 이강년에게 일본군의 행동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의병에게 양식을 보내주었다 한다. 조병순 역시 의병과 연락을 취하며 대승사에 양식을 보내주었다 한다.⁹⁾

4) 단양 일대에서의 항전

9월 18일 李明相의진과 합진하여 단양의 永春에 들어간 이강년의진은 군량을 준비하

9) 『진중일지』 권2, 111쪽, 1907년 9월 18일자.

김성달, 김용출, 이강유, 조병순 등은 이 『진중일지』를 근거로 2014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며 진영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강년은 9월 19일 500여명을 인솔하고 永春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추격한 西岡대위가 인솔하는 제11중대의 1소대하사 이하 25명은 9월 25일 永春에서 이강년부대와 일전을 겨루었다. 서강 중대는 순흥에서 순흥수비대와 합류하여 19일 오후 6시경에 永春에서 의병 300여명과 충돌하였으며, 1시간여 교전하여 의병대를 궤란에 빠뜨렸다고 한다. 이 의병에는 이강년이 지휘하는 부대로 안동진위대 부장였던 白南圭가 지휘하는 韓兵도 가담하였다. 이 전투에서 의병 17명이 전사하고 부상자가 38명을 냈으며 전리품으로 연탄 약 5천발과 화승총 15정, 쌀 약5석, 잡품 몇 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군 수비대는 이강년의병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단행했다. 榮川수비대 제4중대의 熊澤소대는 1907년 11월 3일 오전 3시 죽령 北麓에 있는 이강년부대를 야습하였는데, 의병은 해산군인 140여명을 포함하여 약 4백여 명이었는데, 의병 8명을 죽이고 4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의병대를 단양 쪽으로 격퇴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⁰⁾ 이강년의병의 중군장 鄭濱이 대구경무서에서 파견한 李 警視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빈은 10월 31일 청풍군 교동에서 체포되었는데, 1907년 8월초 제천의 흑석동에서 이강년과 만나 의병을 일으키고 중군장을 맡았다 한다. 또한 그는 120여명의 의병을 지휘하였는데, 그중에 원주진위대 해산병이 20명 있었다 한다.¹¹⁾ 안동수비대에서도 11월 3일부터 이강년의병대를 탄압하기 위하여 군인을 한인 복을 입혀 정보를 탐지하고 11월 7일 단양의 괴평리 일대 산악지대에서 교전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강년의병은 흑색 옷을 입은 자 해산군인, 필자 약 100명을 포함하여 300명은 더 되어 보이는데 전투결과 의병 4,50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였으며 일본군의 피해는 없다고 한다.¹²⁾

『진중일지』에 이 전투에서 체포된 의병 金在熙의 심문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김재희는 제천에서 이강년의병의 척후대지휘자의 성이 金에 포섭되어 1907년 11월 3일음, 9월 28일 의병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2일후인 11월 5일 단양 괴평에 있는 이강년의병의 본진에 합류하여 활동하다가 일본군의 급습을 받아 패주하다가 체포되었다 한다. 그는 의병

10) 『진중일지』 권3, 148쪽. 1907년 11월 10일자.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11월 2일자(음요일)에 의하면, 의병은 죽령전투에서 일본군 20명을 죽였다고 적혀있다(『독립운동사자료집』 1, 244쪽).

11) 『진중일지』 권3, 145-146쪽. 1907년 11월 9일자. '운강장임록'에는 정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 추후 조사가 요구된다.

12) 『진중일지』 권3, 169-173쪽. 1907년. 1907년 11월 14일자.

장이 이강년으로 자를 운강이라고 함을 밝히고 도선봉의 성이 하씨이고 좌선봉이 백씨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일본군의 선두에 일진회원이 있다고 하여 일진회원이 일본군의 앞잡이로 의병 탄압에 가담한 것을 알게 한다.

이강년부대는 申砬石 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1907년 11월 11일 오전 7시에 이강년부대 약200명과 신돌석의병 약 300명이 永春 方面에서 순흥으로 와서 순흥분과소와 군아의 건물, 민가 약 180호를 소각하고, 순사의 검 2벌과 외투 2장을 탈취하여 永春으로 돌아갔다.

菊池 대좌는 榮川수비대에 지시하여 熊澤소위에게 23명을 인솔하여 12일 오후 1시에 榮川을 출발하여 이강년과 신돌석의병대를 永春 방향으로 추격하게 하였다.¹³⁾ 웅택소대는 11월 13일 오후 10시에 순흥 북방 30리의 덕산을 떠나 이강년의병을 추격하여 고치령에서 접전하여 11시 30분경 고치령을 점령하였다. 의병대는 이 전투 후에 영월군 谷口 부근으로, 일부는 爲風義風; 필자 부근에 집결하였다 한다. 그리고 西壁里에는 4,5백 명의 의병이 있음에 서벽리 쪽으로 정찰대를 보냈다.

11월 26일 이강년의병 5백여 명이 榮川의 水發洞에서 永春 쪽으로 들어오는 제3중대鳥飼대위를 만나 접전하였다. 일본군 菊池 연대장은 11월 14일부터 제1대대장 赤司安一郎소좌를 지휘자로 한 이강년의병대 탄압부대를 편성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내리고 이강년의병을 추격하였다.

赤司소좌는 제3중대1소대 결와 제12중대의 1소대, 기병 반개소대 및 기관총 2문을 거느리고 15일 대구를 출발하여 당분간 풍기에 주둔하고 근방의 폭도를 토벌할 것.

赤司소좌는 풍기 부근에 도착하면 征矢野중대 및 보병제47연대 후비중대를 모두 지휘할 것.¹⁴⁾

赤司소좌는 1907년 11월 24일 이강년이 永春 남방 약 10리에 있는 城谷洞에 약 5백여 명의 의병을 지휘하고 있는 것을 탐지하였다. 11월 26일 이강년 의병은 鳥飼 대위가 지휘

13) 『진중일지』 권3, 188쪽. 1907년 11월 16일자.

14) 『진중일지』 권3, 163쪽. 1907년 11월 14일자.

하는 제3중대와 아침 8시부터 무려 5시간에 걸쳐 교전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의병은 60명이나 희생되었다.

이永春전투에서 이강년은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11월 26일자(기묘일)에 의하면, 이강년이 “손수 1백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다가 저항하지 못하여 진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날의 전투상황을 상세히 적고 있다.

해뜰 무렵에 1백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楡峙에서 싸웠는데, 바라다보니 機峙에 연기와 불길의 하늘에 닿았고, 또 수하리에는 적진이 비어 있으므로 적이 우리 편에서 복병한 것을 알고 어두운 밤에 달아난 것으로 생각하였다. 얼마 후에 희 옷 입은 적 셋이 기치로 향해 오고, 적 둘은 시냇가에 었디었고, 또 10여명의 적이 대치하여 왔다. 공이 시험 삼아 공격하게 하였으나 적이 응전하지 않더니, 이윽고 적 수백이 道昌谷 상봉으로부터 총을 쏘는데 우리 진은 험한 곳을 상실하여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만 진이 무너졌다. 공의 맏아들 承宰가 공을 보호하여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로 물러나서 馬垆로 퇴각하여 머물렀는데, 따라온 군사가 겨우 수십 명이였다. 이튿날 檜谷에 당도하니 주인 李潤淳이 군사들을 대접하였다.¹⁵⁾

이강년부대는 일본군 제14연대의 제3중대장 鳥飼대위가 인솔한 부대와 전투에서 참패하고 만 것이다. 鳥飼대위는 일본군 10여명을 보내 이강년의병의 복병 사실을 알아낸 다음에 본진을 산위로 보내 위에서 아래를 향해 기총 사격을 감행하여 의진을 꺾어버린 것이다.

일본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든 작전상의 실패 결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경에는永春에서 서남쪽으로 30리 떨어진 寶鉢 부근에서 의병 약 150명과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도 의병은 약 30여명이 희생되었다. 제3중대는 27일에도永春에서 영월 간의 무명천, 대곡지에서도 격전을 벌였는데 여기에서도 의병 30명이 희생되었다. 일본군은 실탄

15)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11월 26일자(기묘일)(『독립운동사자료집』 1, 250쪽)

1,500발을 소비하였을 뿐이라고 한다.¹⁶⁾

赤司소좌는 이강년의병에 대한 추격을 계속하여 12월 2일의 보고에 의하면, 이강년의 병이 11월 29일 이후 영월 동방에서 영월 永春의 서남인 청풍 동방 지역에서 소백산 북쪽에 걸쳐 이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양 서북방 약 40리의 梅團洞 부근에 있는 것을 탐지하였다. 이에 따라 赤司소좌는 12월 2일 제3중대 병력을 정선 강의 북방에서 매단동 부근의 의병을 엄습하게 하고, 제4중대는 의병의 후방인 榮川에서 소백산 북쪽에 걸쳐 배치하고 그 일부로 죽령을 막도록 하였다. 이후 12월 5일자 赤司소좌의 보고에 의하면, 이강년은 삼척방향을 향해 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도 “계미일1907년 11월 30일: 필자에 적이 크게 쳐 들어오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중이 무너졌다”라고 일본군의 공세에 속수무책 패한 사실을 적고 있다.¹⁷⁾

5) 일본군 수비대의 재배치와 이강년 피체

赤司소좌는 12월 27일 이강년을 비롯하여 이인영, 조동교, 변학기 등이 정선, 평창이 북의 골짜기에서 일부는 영월 서방 및 황성 부근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들은 민가 외에 숨을 곳이 없으므로 체포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았다. 또한 赤司소좌는 제천수비대로부터 이강년부대가 永春 부근에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단양수비대와 함께 공격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赤司대대장은 12월 30일 명령을 내려 이강년의병대 탄압에 2개 중대 병력을 투입하였다.

赤司소좌는 다음과 같이 1908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8일간의 부대별 작전계획표를 작성하여 이강년을 체포하려 하였다.¹⁸⁾

16) 『진중일지』 권4, 36-39쪽. 1907년 11월 29일자.

17)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11월 30일자(계미일)(『독립운동사자료집』1, 251쪽.

18) 『진중일지』 권4, 175-177쪽. 1908년 1월 4일자, '명령'.

의병탄압계획 (약도 참조)

	제3중대	제4중대(1소대결)	제4중대의 1소대
제1일	순흥을 거쳐 김천시장	단양 부근	단양 부근
제2일	영춘 부근	울동 부근	청풍 부근(송악산맥중 폭도초토)
제3일	영월 부근	영월서방 부근	新水亭 부근
제4일	영월북방 약40리 정선강의 좌안 골짜기의 폭도토벌	麻瑳洞 부근	雲梧洞 부근
제5일	정선 부근	대화역 부근	대화역 부근
제6일	상원사 부근	巨文里 부근	거문리서북방 약70리 문치산맥중
제7일	횡계역의 동남방 골짜기	榆木亭 부근	鎭東里 부근
제8일	齊民院 부근	內面 부근	楸洞里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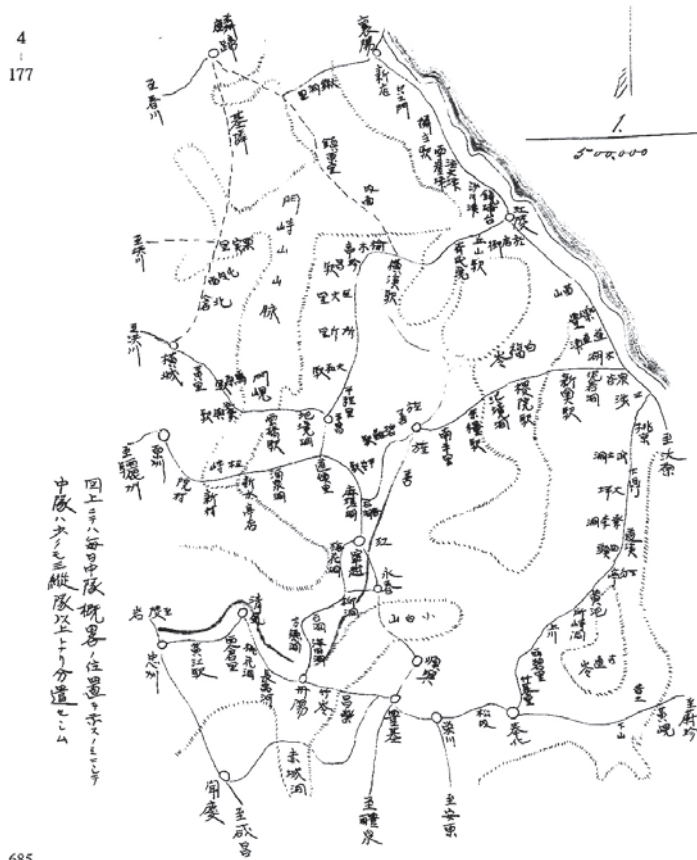


그림2. 의병탄압계획 약도(『진중일지』권4, 177쪽)

그러나 계획대로 이강년을 체포할 수는 없었다. 『진중일지』 1월초의 기록에서 이강년 부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음이 이를 말해 준다. 이강년에 대한 기록은 1월 11일자에 처음 나온다. 제3소대 河村소대의 보고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밀정의 말에 의하면, 이강년, 정해창 및 서모 등의 적괴가 서로 모인 300여명의 적도는 1주일 전 수청동울동남방 약40리과 板六울동 서남방 약 30리에서 식사를 하고 沙其內로 들어갔다. 그 후의 적정을 탐지할 수 없다. 또 원주방향으로 보낸 밀정의 말에 의하면, 이 방면에는 현재 적도가 없고 7일전 覺林 부근에서 일병과 충돌하고 적도는 上安興을 거쳐 祭谷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한다. 下安興 방향에 나간 밀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의 적도는 아무래도 강릉방향으로 이동한 것 같다.¹⁹⁾

위 밀정의 보고에 의하면, 이강년 부대는 일본군의 추격에 강릉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한다. 그러나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의하면, 이강년은 1908년 1월 3일음, 1907년 12월 30일에는 홍천의 여창, 掛石里 부근에 있었다. 1월 4일에는 인제강을 건너 화천의 看尺里로 이진하였으며, 1월 6일에는 일본군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이강년과 박장호가 오른쪽 불기에 탄환을 맞는 부상을 입었다.²⁰⁾

일본군 제14연대장 菊池는 1908년 5월 28일 대구의 연대본부에서 연대병력에게 훈시를 내려 수비대의 구역이 동남부 거의 전역에 걸쳐있고, 또 증원군 과병을 요구하였으니 분발하여 하루라도 빨리 공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²¹⁾ 또한 菊池는 의병 검거의 기간을 무기한 연기한다면서 별도로 17개항에 달하는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그중 8항에서

수괴 검거에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赤司토벌대의 경북, 강원 양도에서의 대토벌은 그 효력이 컸지만, 수괴의 토멸을 실패함에 따라서 근래 李康季 邊學基가 재거를 하기에 이르렀다.²²⁾

19) 『진중일지』 권5, 8쪽. 1908년 1월 11일자.

20) 『운강선생창의일록』(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 260-262쪽).

21) 『진중일지』 권8, 23쪽. 1908년 5월 28일자.

22) 『진중일지』 권8, 31-32쪽. 1908년 5월 28일자.

라고 의병 탄압에 큰 효과가 있었지만, 의병장 체포에 실패하여 ‘이강년과 변학기’가 지휘하는 의병이 재거하였다면서 의병장 체포를 특히 강조하여 지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의병장 이강년은 1908년 7월 2일 체포되고 말았다. 『진중일지』에서는 이강년의 병의 체포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후6시 착. 보병제47연대 통보7월 4일 태전에서
보병제23연대의 통보에 의하면, 적괴 이강년은 7월 2일 제천수비대에 의
해 생금되었다 한다.²³⁾

이에 의하면, 이강년의병장이 7월 2일 체포되었으며, 일본군 제23연대의 제천수비대가 체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본군 제14연대장 菊池는 특별 훈시와 주의사항을 내리면서 이강년 체포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체포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진중일지』에는 이강년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폭도에 관한 편책』에 의하면, 이강년의 체포 소식을 제천경찰분서장, 충주경찰분서장 등이 경무국장 松井茂에게 지급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제천 경찰분서장 戶田慶 경부가 올린 7월 3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矢野 순사가 吉田 헌병, 判上 상등병 외 1명의 병졸과 함께 의병 20여명과 전투를 했으며, 전사한 의병 중에 한명이 서류와 ‘印判箱’을 휴대한 채 죽어있는 것을 보고 의병장의 ‘從者’라고 생각되었다 한다. 또 산속으로 도주한 부상자의 혈흔이 남아 있어 계속 추적하자 전투 현장에서 약 12丁 떨어진 錦繡山의 서쪽 산중에 한명의 의병이 숨어 있어 곧바로 공격하였다 한다. 의병은 족부에 부상을 입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그 거동을 살피니 얼굴 왼쪽에 칼자국이 있고, 가슴에 쌍안경을 가지고 있어 ‘巨魁 李康季’이 아닌가 생각되어 바로 포박하여 호송하였다 한다.²⁴⁾

이강년의 체포의 일에 관하여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는

23) 『진중일지』 권8, 95쪽. 1908년 7월 6일자.

24) 『폭도에 관한 편책』 1907년 7월 3일. 「이강년 체포에 대한 제천경찰분서장의 보고」.

6월 4일 양력 7월 2일, 필자 청풍 작성에 이르러 적과 싸웠는데 공이 탄환을 맞아 적에게 붙잡혔다. 이때 적이 공의 뒤를 따라 영월에서 청풍으로 와서 나룻배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永春의 산길을 경유하여 능강동으로 향하려 하다가 소금 장사의 배를 만나 겨우 건너서 작성에 주둔하였다. 마침 장마비가 내리는데 적이 갑자기 들이닥치니 공이 힘써 만나질 동안 싸우다가 적의 탄환이 왼쪽 복사뼈에 맞아서 적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²⁵⁾

라고 이강년이 작성전투에서 왼쪽 복사뼈 부상으로 체포되었다고 알려준다.

한편 『폭도에 관한 편책』에 의하면, 충주경찰분서장의 보고도 있다. 이 보고서는 1908년 7월 4일 충주경찰분서 高津嘉志馬 경부가 체천수비대장이 이강년을 취조할 때 배석한 결과를 경무국장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이에 의하면, 이강년은 오른쪽 발 뒤꿈치(右足踵部)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강년은 수비대장의 취조 과정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國家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38살부터 의병으로서 國家를 위하여 행동을 하여 지금 51살이니 13년간 거의 시종 일관 國家를 위해 身力을 다했다. 지금 불행하게 나포된 몸이 되어 이에 뒷일의 희망이 끊어졌다. 어떤 심문이 있을 것이다. 어찌 숨길 것이 있겠나.²⁶⁾

이강년은 38살 었던 1895년부터 51살이 된 지금까지 13년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강년의 위의 말에 수비대장은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大勢를 모르는 잘못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강년은 ‘閔妃’의 죽음’에서부터 ‘皇帝讓位’등의 일을 자세히 말하고 이 때문에 의거를 일으켰음을 분명히 하였다.

25) 『운강선생창의일록』(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1, 281쪽).

26) 『폭도에 관한 편책』1907년 7월 4일. 「이강년 체포에 대한 충주경찰분서장의 보고」.

4. 맺음말

일제는 1904년 3월 서울에 한국주차군수비대를 설치하여 조선의 국권을 유린하였다. 러일전쟁이 종료된 후인 1905년 10월에는 보병제13사단과 제15사단의 병력을 조선에 파견하고 을사조약을 강제하였다. 일제는 1907년 3월에 제15사단을 철수시키고 그 대신에 그해 7월에 보병제12사단의 제14연대와 제47연대로 1개 여단을 편성하여 한국에 파견하였다. 『진중일지』는 바로 보병제12사단에 소속된 제14연대의 진중일지로 1907년 7월 동원령을 받은 날부터 1909년 6월 부대 복귀까지의 기록이다. 『진중일지』는 충청, 영, 호남지역 의병을 탄압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보병제14연대의 연대장 菊池主殿 대좌는 1908년 8월부터 경북지역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좌우토벌대’를 6개종대로 편성하여 직접 제3종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였다. 경북 북부지역에는 이강년의병이 강력한 의병항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강년은 주천에서 의병을 봉기하고 제천, 청풍, 문경일대의 산악지대에서 활동하였다.

이강년의병은 문경일대의 전선을 절단하고 전신주를 뽑음으로써 일제의 통신을 두절시켰다. 또한 申稔石·邊學基 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순흥 군아와 분과소를 공격하였으며, 갈평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으며, 榮川의 수발동 전투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제14연대의 赤司소좌가 이끄는 제1대대와의 적성전투에서 패하고, 집중적인 추격과 공격을 받아 이강년의병은 근거지를 잃게 되었다. 赤司소좌는 1908년 1월초에는 수비대를 3개조로 재편성하여 순흥과 단양, 청풍을 거쳐 강원도 산간지역인 영월, 정선, 횡성 일대까지 집중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는 등 이강년부대 탄압에 전력을 기우렸다.

이강년은 일본군의 집중적인 추격과 공격에도 1908년 7월까지 항전하였다. 그러나 1908년 7월 2일 일본군 제23연대의 제천수비대와의 교전 중에 부상을 입고 작성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수비대장의 심문에 을미년1895년부터 13년간 시종일관 국가를 위해 신력을 다했으나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체포되었음을 크게 아쉬워했다. 또한 명성황후의 시해와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에 항거하였음을 밝혔다.

『진중일지』 이강년 및 문경관련 번역

1907년 8월 11~1908년 7월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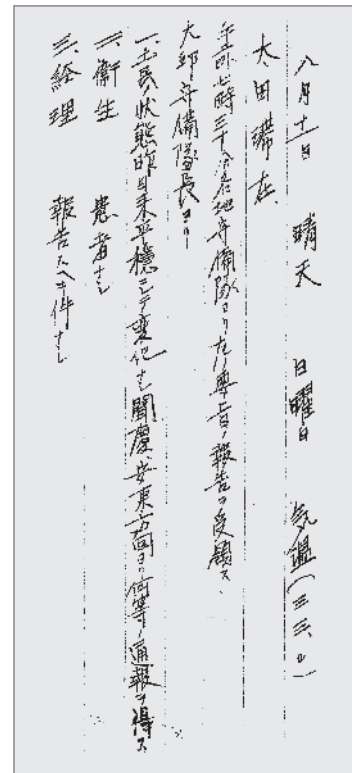
8월 11일 맑음 일요일 기온(33.0도)

대전 체재

오전 7시 30분 각지 수비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고를 받음.

대구 수비대장으로부터의 보고

1. 지역 주민의 상태; 어제 이후 평온하며 변화가 없음. 문경, 안동 방면으로부터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함.
2. 위생; 환자 없음
3. 경리; 보고 사항 없음



진중일지 번역 : 고이화(번리사, 일어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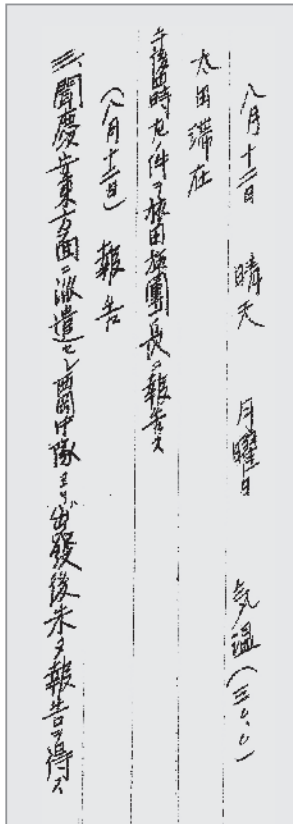
8월 12일 맑음 월요일 기온(30.0도)

대전 체재

오후 4시 아래 사항을 依田 여단장에게 보고함.

(8월 12일) 보고

三. 문경 안동 방면에 과견한 西岡중대로부터 출발 후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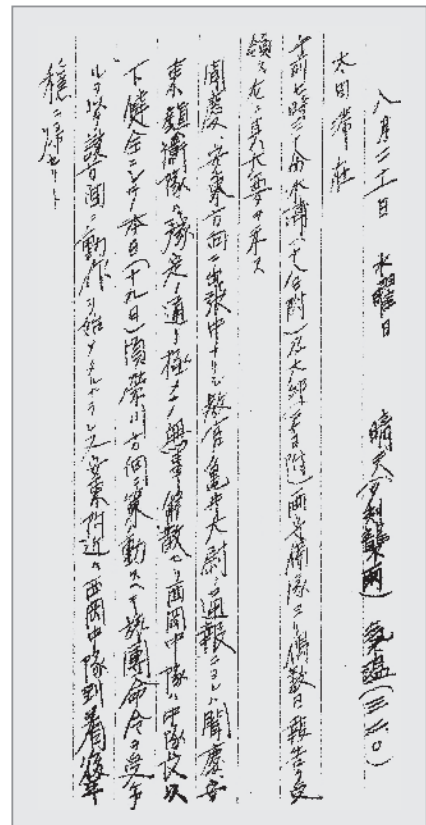
8월 21일 수요일 맑음 (저녁 무렵 소나기) 기온(32.0도) 대전 체재

오후 4시 아래 사항을 依田 여단장에게 보고함.

오전 7시30분 목포18일자 및 대구20일자 방면 수비대로부터 偶數日씩수 날자 보고를 받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요지를 기록함.

문경 안동 방면에 출장 중인 龜井대위의 통보에 의하면 문경 안동 진위대는 예정대로 매우 평온한 가운데 해산하였다. 西岡 중대는 중대장 이하 이상 없이 오늘19일 쯤 榮川 방면으로 이동하라는 여단 명령을 받아 그 방면으로 이동을 개시할 것임.

또한 안동 부근은 西岡 중대 도착 후 평온을 되찾았다고 함.



9월 3일 화요일 흐림 기온(24.0도)

대전 체제

오전 8시 50분 문경에 1개 부대 파견이 가능한 지를 조회한 데에 대하여 충주 足立 중위로 부터 아래와 같은 답신이 옴.

당 지대는 현재 각 소에 분할 파견 중이어서 활동 가능한 병력은 1개 소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귀관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함.

오후 4시 상주 西原 중위로부터 아래와 같은 전보가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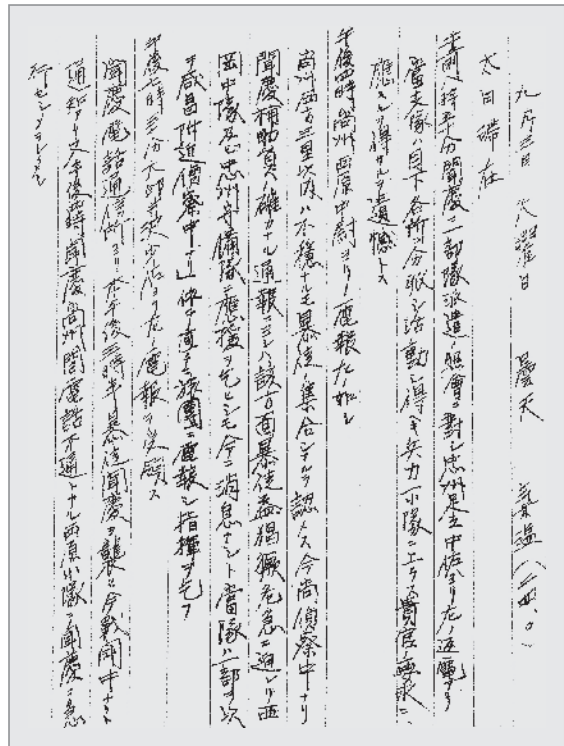
상주 서편 3리 이내는 불온한 상태이기는 하나 폭도들이 집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여전히 정찰을 계속 중임.

문경 보조원의 통보에 따르면 그 방면의 폭도가 점점 창궐하여 상황이 위급하여 지고 있어 西岡 중대 및 충주 수비대에 응원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소식이 없음. 당 부대는 일부 병력을 보내어 함창 부근을 정찰 중임. 따라서 즉시 여단에 電報하여 지휘를 요청하고자 함.

오후 7시 30분 대구 井澤 소좌로부터

아래의 전보를 수령함

문경전화통신소로부터 오늘 오후 3시 반 폭도가 문경을 습격하여 현재 전투 중이라는 통지가 있었음. 또한 오후 4시경 문경 - 상주 간 전화가 불통이 됨. 西原 소대를 문경에 급히 보내 주기 바람.



9월 4일 수요일 비 기온(20.0도)

대전 체제

오전 1시 30분 용산 依田소장으로부터 松野 중대 상주 파견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전이 있었음.

문경에는 귀대로부터 출병하고 있는 바, 폭도가 누구와 전투 중인지 답신 바람. 松野 중대를 문경에 파견할 수 없음. 요컨대, 충주로부터 파병할 것임.

오전 9시 제9 중대의 전투 상보를 수령함^{陣付 제33호참조}

어제 오후 7시 松野 중대 상주 파견의 청구에 대하여 오늘 오후 1시 35분 여단장으로부터 “문경에 파병하는 건은 뒤이어 군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이 있을 예정”이라는 답신이 있었음.

당지 이사관의 통보에 따르면 문경은 어젯밤 폭도들에게 점령 당하여 그 곳 일본인 13명은 상주로 피난하였다고 함

오후 7시 35분 江景 進 소위로 부터 다음 취지의 전보를 수령함

어제 수색 중에 馬九坪 동남에서 수상한 자 3명을 포획하여 조사한 결과 大賊임이 밝혀 졌고, 同村의 전부가 賊임을 자백하였다. 또한 은진 - 인천 간에 200명의 폭도가 있다는 풍설이 있으나 믿기 어려움. 척후는 내일 귀환할 것임.

오후 9시 33분 상주 西原 중위로부터 아래 전보를 수령함

문경을 습격하였던 적은 함창 동북 12km 부근에 있는 약 300명의 폭도와 함께 함창을 공격할 듯함. 화령성 방면의 적은 전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대는 일부를 상주에 남기고 나머지는 1,2일간 함창에 이르러 정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함.

오늘 제 1대대 본부는 용산으로 이전하였다.

九月四日 水曜日

雨天

氣温(16.0)

大田 滞在

午前時、平谷錫山隊因、將、松野出隊、嶺、秋遣、請求、對、水、邊、
下、

返、開、慶、之、實、情、ヲ、出、示、シ、テ、暴、徒、ハ、何、ト、戰、闘、シ、テ、返、得、松、野、

中、隊、ヲ、圍、慶、ニ、シ、ル、及、又、要、ス、ル、思、出、ヲ、收、入、ス、ル、也、

午前九時、第九、中、隊、ノ、戰、闘、詳、報、ヲ、受、領、ス、陣、附、兵、三、聯、隊、也、

昨、午後、七、時、松、野、中、隊、ヲ、高、津、ヲ、以、遣、講、求、對、シ、查、午、後、時、平、谷、錫、山、隊、長、ノ、陣、

慶、孤、兵、ト、シ、テ、追、テ、厚、司、令、官、ヲ、厚、司、令、官、ト、答、テ、音、返、應、下、リ、

四、當、地、理、事、官、通、報、ヲ、以、テ、國、慶、ハ、昨、ノ、暴、徒、ノ、入、侵、ヲ、以、テ、他、日、本、人、

十三、時、名、ハ、高、津、避、難、セ、リ、ト

午後七時、平、谷、錫、山、暴、徒、對、射、ヲ、次、ノ、要、音、ノ、電、報、ヲ、受、領、ス、

昨日、搜索、中、萬、九、坪、東、南、内、洞、ヲ、疑、シ、シ、テ、三、名、ヲ、捕、獲、シ、取、調、結、果、大、

賊、ヲ、同、村、屋、部、賊、ト、シ、テ、自、白、セ、リ、尚、思、得、仁、川、間、ニ、暴、徒、二、百、名、ノ、風、説、

ヲ、モ、信、シ、難、シ、乍、候、ハ、明日、日、澤、還、ル、

午後六時、平、谷、錫、山、西、原、中、隊、ヲ、以、テ、九、ノ、電、報、ヲ、受、領、ス、

國、慶、ノ、變、シ、テ、敵、威、昌、現、シ、里、ノ、約、三、百、名、暴、徒、ト、シ、テ、威、昌、ヲ、求、メ、

ル、云、知、シ、化、寧、城、官、面、敵、ハ、前、述、ス、故、當、隊、二、部、ヲ、高、津、ヲ、以、テ、他、二、日、

間、廢、易、ニ、至、リ、原、察、セ、ト、ス、

本、日、第、一、下、隊、本、部、ハ、龍、山、ヲ、移、轉、セ、リ、

9월 6일 금요일 맑음 기온(22.0도)

오전 7시 각 수비대용산을 제외에 아래 사항을 전보로 통보함.

당 수비대는 오늘 1소대를 남기고 전부 대구로 이전한다.

九月六日 金曜日 晴大 氣溫(二二.〇)
午前七時各守備隊(驛山)隊二九件ヲ電報ヲ通報ス
當守備隊(金日)隊ヲ殘シ全部大邱ヲ移轉ス

9월 7일 토요일 흐림 기온(24.0도)

대구 체재

(경상북도 북부의 폭도 토벌 준비)

(경상북도 북부의 폭도 토벌을 위한 여단 명령)

오후 3시 30분 용산 依田소장으로부터 다음 명령을 수령함

명 령 9월 5일 오후 10시 용산 사령부

1. 경상북도 북부의 적세는 점점 창궐하고 있는 듯함.

足立 지대는 淸安에서 충주 단양을 거쳐 풍기에 이르는 선에 있음. 제 13사단으로부터 騎兵 반 개 소대, 산포山砲 1개 소대^{2門} 및 공병 장교 이하 16명, 서부 수비대로부터 보병 재47연대 제1대대 본부 및 2중대를 남부 수비대에 증파함.

2. 남부 수비대는 경상북도 대토벌을 수행토록 함.

3. 토벌대는 부표 제1호의 편성에 따라 습 제2호의 예정 행동 약도에 기하여 신속 과감하게 토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4. 대구에서 함창을 거쳐 충주에 이르기까지의 전신 선로상의 수 개소에 전신 통신소를 개설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위 수비대에 통신 기수를 부속 시킴.

5. 토벌대는 식량과 사료 20일 분 및 각자의 탄약으로 250 발그 외 100발은 예비 탄약을 휴대할 것. 단, 좌토벌대의 예비 탄약, 식량, 사료의 일부는 대전 수비대에 남겨 둘 수 있음. 본 향의 운반을 위하여 특히 호위병을 둘 필요가 있음.

6. 식량 및 사료는 우토벌대 분은 대구 창고에서 좌토벌대 분은 용산 창고에서 수령할 것. 보충할 탄약은 직접 용산 병기창에서 수령할 것. 식량, 사료 및 탄약의 운반 재료는 각 대에서 적의 징집할 것. 단, 우토벌대의 탄약은 특별히 당지에서 대구로 송달한다.

남부 수비대 사령관 依田소장

부표 제1호 (2-71)토벌대 편성

대호	중대호	중대장	중대의 병력	토벌대장
우 토벌대	제1중대	藤田대위	보14의 10중대(1개소대 결)	菊池대좌 (보14의 장)
	제2중대	井澤소좌	보14의 제38대대(제9, 제10, 제12중대의 1개소대결), 기병6, 공병8명	
	제3중대	菊池대좌	제14연대본부, 제26대대본부, 제7, 제5중대 기병2, 산포3문, 공병 하사졸이하 8명, 전신기수1, 전신수 약간	
좌 토벌대	제4중대	水町대위	보병47의 제9중대(1개소대 결), 기병2	生田目중좌 (보47의 장)
	제5중대	生田目중좌	보병47의 연대본부, 제1대대본부, 제3, 제4중대(1개소대결), 기병2	
	제6중대	中牟田중위	제47의 제4중대의 1소대	

비교 병력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1. 보병 연대 본부, 공병 16명
2. 대대 본부
3. 소대 21, 기병 12, 포병 1소대 2문, 그 외 전신 기수 및 전신수 약간

부표 제 2호 토벌대 예정 행동 약도 별지와 같다.

이 보다 먼저 어젯밤 대구에 도착하자 마자, 다수의 전보를 용산 依田소장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위의 명령이 도착하지 않아, 그 요지를 알 수 없었음. 이제서야 비로소 그 전보를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다음과 같이 그 전보의 내용을 발췌함.

1. 6일 오후에 수령한 전보

토벌에 관한 명령을 먼저 우편으로 보냈으나, 그 후 상황의 변화가 있으므로, 토벌대 제 3중대로부터 1개중대를 대구 수비를 위하여 남겨둘 것, 단 필요하다면 제2중대로부터 1개소대를 제3중대로 이동할 수 있음. 탄약은 연습용을 그대로 사용할 것. 井澤소좌에게도 전달할 것. 이상 조치 후 각 부대별로 보고하라.

2. 6일 오후 8시 44분 도착한 전보

귀관에게 배속하는 전신 기수는 대구 전신국에 있음 依田소장
이에 아래의 명령을 내린다.

1. 경상북도 북부의 적세는 점점 창궐하고 있는 듯함.

足立 지대는 淸安에서 충주 단양을 거쳐 풍기에 이르는 선에 있음. 제 13사단으로부터 騎兵 반 개 소대, 산포^{山砲} 1개 소대^{2門} 및 공병 장교 이하 16명, 서부 수비대로부터 보병 제47연대 제1대대 본부 및 2중대를 남부 수비대에 증파함.

남부 수비대는 경상북도 대토벌을 수행토록 함.

生田目 중좌는 별도의 그림에 따라 좌토벌대가 되어 당 제3중대의 좌편에서 행동한다.

2. 우토벌대는 내일 8일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별도 그림 및 토벌대 편성에 따라 3중대가 되어 북진하여 토벌한다. 단, 제2, 제3 중대에 기관총 각 2문을 더하도록 한다. 각 중대 간의 연락은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여 매일 1회 반드시 그 상황을 통보할 것.
3. 함창 부근에 있는 西原 소대는 9월 11일 낙동에 와서 나의 지휘하에 들어 올 것. 본 항은 동일 밤 전보로 西原 중위에게 명령할 것임.
4. 제2 중대장은 안동 부근부터 西岡 중대를 합쳐서 지휘하는 것으로 한다.
5. 토벌대는 양식과 사료 20일 분 및 각자 탄약 250 발을 휴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항의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호위병을 부칠 것을 요함.
6. 본관은 제3 중대와 함께 행진함.

우토벌대장 대좌 菊池主殿

주 의

1. 식량 및 탄약은 대구 창고에서 수령한다.
2. 보고는 반드시 연대장에게 제출할 것. 직접 여단장에게 제출하지 말 것.
3. 군용 기타의 짐은 최소한으로 줄일 것.
4. 식량 및 탄약의 운반은 각 중대별로 계획을 세울 것.
5. 대구에서 함창을 경유하여 충주에 이르는 전신 선로 상의 각지에 전신 통신소를 개설한다.
6. 기관총대는 내일부터 편성하여 둔다. 단, 장교로서 그 대장을 임명함. 제3 중대 기관총대장은 中野 중위로 한다.
7. 제1 중대에 군의 1명, 약제 운반 1명을 둔다.
8. 급여령 세칙 제16조의 양식의 증급, 가급은 당지 출발일부터 각 중대장이 지급할 수 있다.

부표 제1호(2-75) 토벌대 편성

대호	중대호	중대장	중대의 병력	토벌대장
우 토벌대	제1중대	藤田대위	보14의 10중대(1개소대 결)	菊池대좌 (보14의 장)
	제2중대	井澤소좌	보14의 제38대대(제9, 제10, 제12중대의 1개소대 결), 기병6, 공병8명	
	제3중대	菊池대좌	제14연대본부, 제26대대본부, 제7, 제5중대(2개소대 결) 기병2, 산포3문, 공병 하사졸이하 8명, 전신기수1, 전신수 약간	
좌 토벌대	제4중대	水町대위	보병47의 제9중대(1개소대 결), 기병2	生田目중좌 (보47의 장)
	제5중대	生田目중좌	보병47의 연대본부, 제1대대본부, 제3, 제4중대(1개소대 결), 기병2	

비고 병력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1. 보병 연대 본부, 공병 16명
2. 대대 본부 3
3. 소대 19, 기병 12, 포병 1소대²문, 공병 16 그 외 전신 기수 및 전신수 약간

별도의 지도는 여단 명령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동시에 수령한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상주 파견 西原 중위의 보고 요지⁹월 4일자
 - (1) 김천 상주 간에 최근 화적이 출몰하여 통행자가 적고, 麻田김천 북방 약2리 반 부근의 촌락은 곳곳이 소실 되어 있음. 또한 며칠 전 이 부근의 한인 3명이 살해 되었다고 함.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부근의 화적은 주간에는 산중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 나와서 악행을 하는 것으로 보임.
 - (2) 상주에는 경찰관 및 일본인 조직과 관계가 있는 자위단원 30명 정도로 무기 보유에 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지난 2일 “화령 장 부근에 약 170명의 폭도가 모여 상주를 습격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상주의 각 문을 감시하고 일부는 그 지역의 남방으로 나가서 행동하고 있음.
 - (3) 문경 보조원의 통보에 의하면 풍기에 접근하고 있는 폭도는 지난 2일 다음과 같이 집합함.

대승사 약 170대장은 李康季이라고 하는데 작년 안동 방면에서 의병을 일으킨 자임

김룡사 약 200대장은 起東九 라고 함

적성사 약 200

(4) 함창 부근에 나가 있는 아군 하사관 척후의 보고 요지

문경으로부터 함창에 도착한 경관의 말에 의하면 3일 오후 3시 30분 폭도 100여 명이 문경을 습격하여 가옥을 불태웠으며, 거류민은 잠시 동안 저항한 후 함창으로 철수 중임. 일본인의 행방불명 5명 있음.

함창 동북 약 2리 부근에도 300 명의 폭도가 집합하여 문경 방면의 폭도와 함께 함창을 습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음.

(5) 屯德상주 서쪽 약3리 화령장으로 통하는 도로 방면으로 나간 척후는 화령장이 불온한 것을 알고 동 지역을 더 정찰함. 3일전 100여 명의 폭도가 동 지역에 와서 금전을 강탈하였으나, 우리 부대가 도착하였음을 알고 동 지역의 북방으로 철수함.

살피건대, 문경방면에서 남진한 폭도는 西岡 중대와 대치하여 풍기 榮川으로 밀려 간 듯하고 화령장의 폭도는 보은 부근의 폭도가 흘러 든 것으로 보인다.

오후 5시 30분 토벌대에 부속할 통감부 통신기수 國十金次郎이 왔음.

오후 7시 당 토벌대에 부속할 기병, 포병, 공병은 전부 도착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依田 소장에게 보고함.

대구에는 제 9중대를 남기고 부속되는 특과대는 무사히 도착함.

오후 10시 30분 상주 西岡 중위로부터 수령한 전보는 아래와 같다.

어제 함창 북방에서 의병 10여명을 쫓아 내고 간첩 3명을 사살하며 진남관에 이르러 정찰을 한 바, 소수의 폭도는 수시간 전에 부근으로 나갔으나, 주력은 加北面 및 문경 동북방의 근거지로 철수하여 있는 듯함.

또한 문경까지의 전선 정찰을 한 바, 전선에는 파손이 없으나, 문경 우편국 기계는 파괴되어 있음. 당대는 방금 상주에 돌아 옴.

같은 시각에 당지 이사청으로부터 若木 부근의 적도에 관한 정보를 받음.

이에 아래와 같이 依田소장에게 전보로 보고함

정보 화령장 부근 170 문경 부근 약 570명의 폭도가 집합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음. 상주 김천 간에 화적이 출몰하고 있음. 상주 함창은 西原 소대가 현재 점령하고 있음. 동 소대는 47 연대장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음. 若木의 적은 竹院 선산 상주 간 부

근에 집합하여 있는 듯함. 그 수는 600명이라고 함.

훈시

이 번의 대토벌은 당 여단 교대 귀환에 앞선 선물과도 같은 의미의 작전으로서 제12사단의 명예는 물론 과견대의 명예를 좌우하는 것으로 사단, 아니 그에 더 나아가서 북부 큐슈의 대표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크게 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따라서 본관은 依田 여단장 각하의 뜻에 따라 노파심에서 다음의 여러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하는 바이다.

1. 일단 방아쇠에 손가락을 댄 이상은 맹렬 과감함으로 제국 군대의 진가를 나타냄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
2. 폭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있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므로 폭도들에 동참한 촌락을 불태워 버리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무고한 백성에게 가급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 단 증명이 가능한 대적자의 소유품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기지 않도록 할 것 (2-81)
3. 보고, 통신, 연락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의 수단을 강구하여 정황을 교환하도록 노력할 것. 이는 우리 군이 행동함에 있어 상호 편익이 될 것이다.
4. 탄약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절약을 잊지 말 것. 평소 연병장에서 학습한 사격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
5. 군수품은 청주 부근에서의 예와 같이 호위병에 대하여는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6. 금고 및 병기의 호위는 이동중은 물론 야침 저녁으로 빈틈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
7.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병사 1인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은 엄금함. 어떤 경우에도 2인 이상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것.
8. 위생상 평소 학습한 여러 사항을 준수하고 우물물의 사용은 뒷면까지 주의 조사한 후에야 하도록 할 것. 또한 軍醫는 항상 각 부락에 있어서의 위생 상황을 조사하여 그 餘毒이 군대에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9. 마지막으로 위 사항들에 대해서 귀관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병졸들에게까지 철저히 주지시키기를 바람.

명치40년1907 9월 7일

우토벌대장 菊池 육군 대좌

九月七日 土曜日 曇天 気温(二四.〇)

大印滞上在 慶尚道北部義兵討伐準備

慶尚道北部義兵討伐準備 檢査令

午後三時五分 檢査令 檢査令 檢査令

檢査令 檢査令 檢査令

一 慶尚道北部 賊勢 漸次 猖獗 凶惡 如左

二 慶尚道北部 賊勢 漸次 猖獗 凶惡 如左

三 慶尚道北部 賊勢 漸次 猖獗 凶惡 如左

四 慶尚道北部 賊勢 漸次 猖獗 凶惡 如左

五 慶尚道北部 賊勢 漸次 猖獗 凶惡 如左

六 慶尚道北部 賊勢 漸次 猖獗 凶惡 如左

七 慶尚道北部 賊勢 漸次 猖獗 凶惡 如左

八 慶尚道北部 賊勢 漸次 猖獗 凶惡 如左

九 慶尚道北部 賊勢 漸次 猖獗 凶惡 如左

十 慶尚道北部 賊勢 漸次 猖獗 凶惡 如左

南部兵備隊司令部 依田少將

附表第一号

討伐隊編組

第一 第一隊 大印 要田 第一隊 小隊

第二 第二隊 大印 要田 第二隊 小隊

第三 第三隊 大印 要田 第三隊 小隊

第四 第四隊 大印 要田 第四隊 小隊

第五 第五隊 大印 要田 第五隊 小隊

第六 第六隊 大印 要田 第六隊 小隊

第七 第七隊 大印 要田 第七隊 小隊

第八 第八隊 大印 要田 第八隊 小隊

第九 第九隊 大印 要田 第九隊 小隊

第十 第十隊 大印 要田 第十隊 小隊

討伐隊長

第一 第一隊 大印 要田 第一隊 小隊

第二 第二隊 大印 要田 第二隊 小隊

第三 第三隊 大印 要田 第三隊 小隊

第四 第四隊 大印 要田 第四隊 小隊

第五 第五隊 大印 要田 第五隊 小隊

第六 第六隊 大印 要田 第六隊 小隊

第七 第七隊 大印 要田 第七隊 小隊

第八 第八隊 大印 要田 第八隊 小隊

第九 第九隊 大印 要田 第九隊 小隊

第十 第十隊 大印 要田 第十隊 小隊

討伐隊長

第一 第一隊 大印 要田 第一隊 小隊

第二 第二隊 大印 要田 第二隊 小隊

第三 第三隊 大印 要田 第三隊 小隊

第四 第四隊 大印 要田 第四隊 小隊

第五 第五隊 大印 要田 第五隊 小隊

第六 第六隊 大印 要田 第六隊 小隊

第七 第七隊 大印 要田 第七隊 小隊

第八 第八隊 大印 要田 第八隊 小隊

第九 第九隊 大印 要田 第九隊 小隊

第十 第十隊 大印 要田 第十隊 小隊

討伐隊長

9월 8일 일요일 흐림 기온(24도)

대구 체재

오전 9시 다음의 명령을 내리다.

제 3 중대 명령

9월 8일 오전 9시 대구에서

1. 적 상황 기타는 우토벌대 명령과 같다
2. 당 제 3중대는 내일 오전 9시 당지를 출발하여 다부동을 향하여 전진하고자 한다.
3. 不破 소좌는 제 7중대의 제 1소대 및 공병을 이끌고 전위가 될 것. 그 후로는 매일 소대를 7 중대 중에서 교대하여 복무하도록 할 것
4. 본대는 기병,보병의 잔여 포병,운반병,후위의 순으로 전위로부터 400 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전진한다.
5. 후위는 제7중대로 부터 하사 1, 병졸 10을 뽑아 편성하고 운반병은 그에 따를 것.
6. 본관은 중대의 선두에 위치할 것임.

제 3 중대장 菊池 대좌

운반병 행진 순서

의무 자재, 전신재료, 공병재료, 탄약, 공용 물자, 양식, 부관

오전 9시30 분 제 3대대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고를 받음

어제 새벽 3시 성주에 폭도 약 100명야간인 관계로 그 숫자는 확실치 않음이 봉기하여 아군 분파소를 습격하였음. 분파소원 2명과 한국 재류 일본인 3명이 이에 응전하였으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성주를 포기하고 왜관으로 왔음. 순사부장은 총검과 재류 일본인 3명이 행방 불명임.

이에 다음과 같이 용산 依田소장에게 조회함.

성주 폭도 진압을 위해 제9중대로부터 1개 소대를 파견함이 어떤지?

답신 오후 0시20분 不破 부대 행동8월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을 淺田 사단장에게 보고하여 잔류 부대에 통보할 것임.

오후 0시 30분 제1중대인 藤田 대위의 중대가 대구를 출발하여 河陽으로 향하였음.

九月八日 日曜日 曇天 氣溫(三四.〇)

大邱滞在

午前九時九、軍令受り

第三聯隊司令部 大邱

一、敵亦其他部隊隊司令部

二、廣島軍總隊、昨午前大邱附近地歩隊多處を前前進せし

三、不破少佐、第七中隊、其日隊又兵士、前下り前衛しし

四、廣島軍小隊の第七中隊中、於て交換服給せし

五、本隊、騎兵、歩兵、砲兵、各隊、大邱、及び前衛、四百米、

距離を以て前進

六、後衛、軍中隊、十七、歩、及び前衛、行進、距離、

六、予、本隊、先頭

第三聯隊長 菊池大佐

行進進捗順序

醫務、宿營材料、土木材料、糧食、公用行李、糧食、副官

午前九時半、分隊、兵隊、九、報告、接

昨夜、前衛、騎兵、是日、是注の百名、夜間、其數、確知、得、炸起、

分隊、所、難、令、敵、所、見、在、本、邦、人、三、名、之、應、戦、し、遂、に、春、往、

、是、日、又、下、海、軍、來、り、進、査、訂、長、航、制、本、邦、人、三、名、行、動、不、明、

、米、九、斗、ヲ、發、出、來、用、兵、隊、照、會、

、聖、州、暴、徒、鎮、壓、シ、急、急、軍、令、隊、ヨリ、激、進、シ、如何、注、

、午後、八、時、不、破、少、佐、行、動、自、前、日、師、團、長、二、般、吉、曹、長、隊、

通報

午後、八、時、手、分、隊、總、隊、ヲ、藤、岡、大、尉、中、隊、大、邱、出、發、所、陽、向、

9월 9일 월요일 맑음 기온(29.0도)

1. 오전 8시 20분 정거장에 정렬
 2. 운반병의 운반 재료가 갖추어 지지 않아 다시 각자가 1일분의 통상 양식을 휴대하고 가도록 함.
 3. 오전 9시 30분 대구 출발함.지금까지 껏었던 며칠간의 날씨가 완전히 회복되어 더위가 심해짐. 금호강 도강을 위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됨. 오후6시 30분 多富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숙영함 더위가 매우 심하여 두세 명의 일사병 환자가 생겼으나 뒤따라 숙영지에 도착하였음
 4. 경계를 위하여 취한 대비 상황
다부역 남북 양쪽에 양 중대로부터 각 1개의 하사관 초소를 배치하고 그 외는 북부 및 서부 多富에 각각 경계병을 배치함
 5. 급식은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함
- 오후 7시 15분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림
- 제 3종대 명령

9월 9일 오후 7시 15분 다부동에서

1. 적의 상황에 대하여는 새로운 상황 없음
2. 종대는 내일 아침 7시 출발하여 多是리로 향하여 전진한다.
3. 그 외 모든 것은 어제의 명령과 같다.

제3종대장 菊池 대좌

오후 7시30분경 통신소를 개설함 이에 따라 대구에 주재하는 小柳 대위로 하여금 다음의 전보 보고를 依田 여단장에게 제출토록 함

電文 제3종대는 오후7시 당지에 도착함. 제1, 제2종대도 예정 지점에 도착한 것으로 보임

多富에서 菊池 대좌

이어서 상주 西原 중위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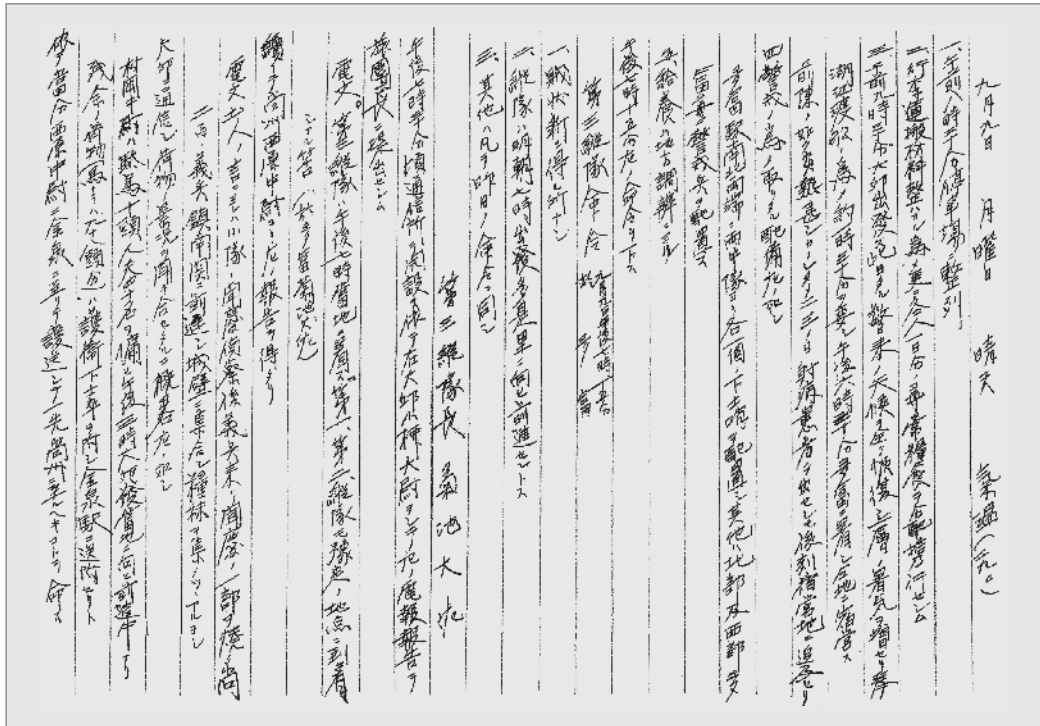
電文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동 소대의 문경 정찰 후 의병이 와서 문경의 일부를 불태우고 이에 더하여 200명의 의병이 진남관에 전진하여 성벽에 집합하여 양식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함

대구로 통신하여 화물의 이동상황을 문의한 바 그 概況은 다음과 같음

村岡 중위는 짐 싣는 말 10필 인부 40명을 이용하여 오후 3시 대구를 출발하여 당지로 전
진중임.

잔여 화물말 98 마리분은 호위 하사관을 붙여서 김천역으로 송부하기로 함.

따라서 우선 西原 중위에게 명령하여 김천에 가서 이를 호송하여 한 걸음 먼저 상주에 도
착하도록 조치함.



9월 10일 화요일 맑음 기온(29.0도)

오전 4시경 村岡 중위는 약 2일분의 양식을 호송하여 뒤쫓아 종대에 도착함

오전 7시 多富를 출발하여 新基洞에서 장시간 휴식겸 식사 취한 후 오후 3시 30분 海平에 도착

해평 및 해평 시장, 大昌에 숙영함. 숙영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는 각 부대별로 실시 하였다.

급식은 휴대한 精米를 사용하고 副食은 현지 조달 하였음

당일도 어제에 못지 않게 더위가 맹위를 떨쳤으나, 새로운 환자가 생기지는 않음

오후 5시 30분 익일에 관한 명령 및 행군에 관한 주의를 줌

제3종대 명령

9월 10일 오후 5시 30분 海平에서

1. 적의 상황에 대하여는 새로운 상황 없음
2. 종대는 내일 아침 6시 그 선두가 大昌 북단을 출발하여 낙동을 향하여 전진한다.
3. 그 외 모든 것은 어제의 명령과 같다

행군에 관한 주의

1. 오전에는 50분 마다 10분씩 휴식한다.
2. 장시간 휴식은 내일 일정의 3분의 2를 경과한 곳임호 입구 숲 부근에서 실시하고 그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이에 여단장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대구 예비대 경유, 이하 같음을 제출하였다.

제3종대는 오후 3시 반 多是里 북방 약 1000 미터 떨어진 海平에 도착. 제1, 제2종대도 예정 지점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봄.

尙州 水町대위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전보하였음.

동일은 특히 개인적인 徵發을 엄금하는 취지의 훈시를 함.

九月十日 火曜日 晴大 氣温(一九.〇)

午前四時頃村國中駐^ル約二層糧食ヲ護送シ^テ縱隊ヲ追及ス

至^ル新^ニ發^ス新^ニ洞^ニ於^テ十二時頃大休息(倉庫ヲ充^テ後七時半分海

平着^ル海平及陸軍市場大等^ノ宿營^ニ宿營地^ニ隣^ニ離^ルセ^ル營^ヲ各部隊

毎行^ハリ

給養^ニ携^ル帶^ス精米^ヲ用^ヒ副食^物地方調^辦ス^ル

當日^ニ昨日^ノ土着^者ハ^モ大^ニ安^定シ^テ遠^レシ^カ新^ニ患^者ハ^モ出^スニ^シテ

午後^三時^頃至^ル宿營^地之^周圍^ニ及^テ行^軍之^周圍^ニ注^意ス^ル其^ノ

第三縱隊命令^ハ 八月廿九日午後五時^頃於^テ海^平

一 賊^ノ狀^ヲ新^ニ得^ル所^ヲ

二 縱^隊ハ^モ明^ク六^時其^ノ先^頭ヲ^以テ^テ大^昌北^端ヲ^發シ^テ浩^東南^向ニ^進ム^ル

三 其^ノ他^ノ凡^ソテ^モ日^ノ命^令ニ^依テ

行^軍之^周圍^ニ注^意

一 午前^三時^頃至^ル宿營^地ニ^テ休^憩ス^ル

二 大^休兵^明日^行程^三日^ノ毎^日過^ルニ^シテ^テ林^林附近^ニ大^休止^時間^ハ

三 時間^ハ

此^ノ兵^ヲ旅^團長^ハ元^來應^務甚^ク矣^ニ知^ル所^ノ備^隊隊^員皆^ニ疲^勞シ^テ難^ク

第^一縱^隊午後^三時^頃至^ル宿營^地ニ^テ大^休止^時間^ハ至^ル宿營^地ニ^テ大^休止^時間^ハ

隊^ノ隊^員地^點ニ^テ到^着ス^ル迄

尙^水打^射大^射之^者皆^疲勞^シテ

此^ノ日^一個人^ハ敵^ヲ殺^シテ^テ其^ノ首^ヲ割^リ不^ス

9월 11일 수요일 맑음 기온(32.0도)

오전 6시 大昌 출발, 日林 부근에 적당한 휴게지가 없으므로 그 북방 약 2000미터에 있는 무명의 부락에 이르러 장시간 휴식을 취한 후, 오후 4시 洛東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숙영함.

경계에 관하여는 남북 양 입구에 1개의 하사관 초소를 배치하고 또한 風氣 위병을 배치함. 식량은 휴대한 식량을 사용함

현지 주민은 우편국장의 훈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피난하지 않고 각자의 주거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줌.

오후 5시 아래의 보고를 여단장에게 제출.

電文 제3중대는 오후 4시 낙동에 도착함. 폭도의 상황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더 파악한 바가 없고, 이 방면은 매우 평온한 상태임.

동일 밤 광주 木野 대위로부터 대구 경유 아래의 전문을 수령하였음.

제1電文 어젯밤 경무 고문부로부터 순창 부근에 약 30 명의 폭도가 봉기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고 경찰을 위하여 오늘 오전 4시 장교에 병졸 7명을 붙여서 담양 부근에 파견하였음.

제2電文 오늘 아침 경무 고문부로부터 장성 부근에 다수의 폭도가 봉기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고 경찰을 위하여 장교에 하사관 이하 9명을 붙여서 해당 지역에 파견하였음.

오후 10시 尙州 水町 대위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보전화를 받음

1. 제 정보를 종합하면 문경 갈평 부근에 있는 賊狀은 다음과 같음.

문경에 의병 약 500, 신원진남관의 북방에 약 500의 폭도가 있음. 그들은 전선을 형성하여 2차적인 방어선을 만들고 있음. 또한 갈평문경 동북 약 3리에 약 500, 문경 서남방 약 5리의 加北面에 약 400 명이 있음.

2. 제4 중대는 오늘 오후 5시 상주에 도착함. 도중에 아무런 특이 상황이 없었음.

제3중대에 속한 電信材料인부 17, 말 3필로 운반 가능을 호송하여 내일 함창에서 귀대에 교부할 예정임. 이 곳은 불온한 기미가 없음.

오후 11시 40분 依田 여단장으로부터 다음의 통보를 받음

電文 외국인에 관해서는 간혹 외교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9월 12일 목요일 맑음 기온(31.0도)

오전 5시 숙영지를 출발하여 新村, 洛院을 거쳐 下德谷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고 오후 4시 30분 대봉에 도착함. 이 보다 먼저 西原 중위의 소대는 오늘 아침 상주를 출발하여 당대의 荷物을 호위하여 오후 2시 대봉에 도착하였음. 수 십 배의 폭도에 의하여 겹겹이 둘러 싸인 가운데 제12 중대 宮副 소위가 지휘하는 척후 중 2명은 비상한 곤란을 겪고 당지에 도착하여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정보는 여단장에게 보내는 보고문 중에 있음. 이에 다음의 보고를 여단장에게 제출함

電文 제3중대는 오늘 오후 5시 대봉에 도착함. 榮川으로부터 안동, 예천 방면에 파견한 宮副소위의 지휘를 받는 척후는 경무 보조원과 함께 24명이 대승사 부근문경으로부터 동북 약 4리에서 약오륙백 명의 적과 만나 격전 후, 병2명, 보조관 2명은 적의 배후에서 비상한 곤란을 겪고 오늘 대봉에 돌아 왔음. 그 외의 사람들은 소식 불명임.

水町 중대와는 어제부터 연락함.

이로서 중대는 오늘 西原 소대를 합하여 대봉 및 덕동 척동에 숙영함.

경계는 각 부락 입구마다 하사관 초소를 배치함

급양은 휴대 식량을 이용함

오후 11시 20분 아래의 전보 명령을 依田소장으로부터 수령함상주 전신국 경유.

제1電文 12일 오후 8시 3분 발

어제 11일 적 상황 정찰을 위하여 문경에 도착한 豐曉소위의 보고에 따르면 폭도 약 1500韓兵을 포함하여 총을 가진 자는 800명은 지난 9일 문경에 들어 와 약탈과 난동을 일삼고 10일에는 갈평문경의 동북 2리, 5만분의 1지도을 불태우고 광원, 당포, 마포원 부근에 숙영하였고, 그 보초는 標高 691과 1301의 중간 및 지곡, 광원에 걸쳐 배치 되어있음.

九月十日 不謹言 弄天 先温 (三、八、〇)

午前五時借地出發新村院了經十德谷於此止三午後時三右台封着
之三一先原中尉隊分朝密洲之突之當隊毒物之難衛之午後時台封着
數倍暴徑圍中中中隊官副以封指揮之候中三名兵卒亦常
此因難了經了當地歸着了了其情報也知了得名情報隊團長也出報書奉
了)此於九日報告了隊團長了

電文 警備隊 本自午後五時台封着榮川中東體隊方面之危遣了
副官尉指揮了候警務務桐野了共二名於大東寺附近廣慶東
約里了約五六百敵會激戰後失補助了賊首了非常困
難了歷了本台封着歸着了其他了了消息不明了

水町中隊 昨日来連絡

此於了經隊本自西原中隊了台封及原利尺洞一宿宿了
警備隊隊了各部落會其人口下土哨了配布了
給養了携帶糧秣了用了

午後五時 平在電報命令了休田了將了受領了(商州電信局發申)

警電文 (王自午後時了發)

昨十日賊伏偵察了多聞慶了是皇曉了敵告了
。韓兵了親了氣了有了七人色了老九日聞慶了入了掠奪了亂暴了極了十日
魯平了聞慶了東北里了是了因了了燒了廣院了唐浦了馬浦院附近了
其其其哨了標高了約了1301了中間及池谷廣院了了了

9월 13일 금요일 맑음 기온(27.0도)

오전 3시 아래와 같은 명령을 依田소장으로부터 수령함

電文12일 오후 11시 40분 발

2. 문경 부근에는 폭도 1500명 있다고 함
3. 귀관은 내일13일 주력을 이끌고 문경 방면으로 그리고 일부는 적성장 방면으로 전진하여 그 지역 부근의 폭도를 소탕할 것
步47의 水町 중대를 귀관의 지휘하에 속하도록 한다.
4. 生田目 중좌에게는 제2중대와 연락을 취할 것을 명령함.

같은 시각 상주 전신소장으로부터 통보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여단장으로부터 生田目 중좌에게 내린 전보 명령9월 12일 발령

1. 문경 부근에는 폭도 약 1500명이 있다고 하는 바,내일13일 菊池 중대로 하여금 이를 소탕하도록 할 것임.
2. 水町 중대를 菊池 대좌의 예하에 속하게 하고 그 취지를 水町 중대에 전하라.
3. 귀관은 내일 13일 특별히 제2중대와의연락에 힘쓸 것.

이에 아래의 명령을 내린다.

제3중대 명령

9월 13일 오전 3시 40분 태봉에서

1. 적의 주력은 문경 북방 주흘산으로부터 지곡,광원에 걸쳐 前哨를 배치한 듯함.
제4중대 水町 중대는 오늘부터 본관의 예하에 속하도록 한다.
生田目 중좌는 이 방면에 머물면서 제2중대와의 연락을 유지할 것임
2. 우리 중대는 오늘 문경 방면으로 전진하여 폭도들을 소탕하고자 한다.
3. 不破 소좌는 野中 소대 및 공병대를 인솔하여 전위가 되어 13일 오전 6시 30분 당지 북단을 출발하여 진남관을 거쳐 문경으로 전진할 것
傳습 1명을 붙인다.
4. 松野 대위는 그 부하 전부1소대를 이끌고 13일 오전 6시 30분 당지 북단을 출발하여 대토,석계동을 경유하여 금무동 방면으로 전진,적성 방면의 적을 소탕할 것
5. 본대는 제7중대의 잔부,水町 중대1소대 缺, 기관총대,포병 소대의 순서로 오전 6시

40분 출발하여 전위의 진로를 따라 전진한다. 단 水町 중대는 당교 부근에서 본대의 서열로 들어 가도록 할 것

6. 큰 물자는 오전 8시 당지를 출발하여 본대의 진로를 따라 전진할 것
단 물자의 호위로서 제7중대로부터 하사1, 병졸 10명을 붙일 것

7. 본관은 본대에 있을 것임

제3중대장 菊池 대좌

비고 1. 生田目 중좌에게도 참고를 위해 송부한다.

2. 水町 중대에게는 전령을 통하여 송부한다.

오전 4시 여단장에게 아래의 전보 보고를 제출함.

적성 부근의 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오늘 전진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중, 새로운 명령을 받아 水町 중대와 함께 문경 방면으로 전진하기로 결정하였음.

오전 6시30분 숙영지를 출발함.

오전 8시 당교에서 大宗 특무 조장에게 중대의 健脚者 5명 및 전령, 통역 각 1명을 이끌고 척후가 되어 本道를 문경을 향하여 전진할 것을 명함. 주의: 먼저 진남관의 상황을 정찰하여 이상 유무를 전령을 통하여 보고할 것.

오전 8시 10분 당교에서 水町 중대가 도착하여 합류함.

오후 1시 30분 진남관에 도착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음.

이에 아래의 전보 보고를 여단장에게 제출함.

진남관, 문경 부근의 폭도는 그저께부터 대승사 부근으로 퇴각하였음.

중대는 오늘밤 문경에서 숙영하고 내일 갈평을 거쳐 대승사로 향하고자 함.

오후 4시 문경에 도착함.

진남관으로부터 문경에 이르는 지경의 상황을 보건대, 진남관의 동남 약 1500미터 지점의 굴모퉁에서 문경에 이르는 구간의 전선은 절단되었고, 전주의 대부분이 쓸어뜨려져 있음. 연도의 주민은 산 속 등으로 피난하였고, 인가는 불에 탄 상태임. 특히 신원동 및 문경의 일본인 가옥 및 일본인과 관계가 있는 한인의 가옥은 무참하게 파괴 및 불태워졌음.

현지 주민의 말에 따르면, 10일 전에 40명의 폭도가 문경에 와서 가옥을 태우고 그 곳을 떠났고, 7일 전에 500여명의 폭도가 사방에서 몰려 들어 3일간 숙박한 후, 동북방으로

행진하여 갔는데, 그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함.
 밤에 종대는 문경 복단에서 전위는 지곡에서 숙영함.
 경계는 水町중대에서 하사 초소를 당촌 북부 약 200미터의 안부 및 당촌 남방묘의 부근
 에 두고, 전위로 하여금 대승사 방향에 대하여 경계토록함.
 給養은 휴대식량을 사용함.
 오후 9시 아래의 명령을 내림.
 제3중대 명령

9월13일 오후 9시 문경에서

1. 문경 부근에서 출몰한 적의 일부는 김룡사 방향으로 다른 일부는 대승사 방향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임.
2. 당 종대는 내일 우선 김룡사의 적을 소탕코자 함.
3. 不破 소좌는 아래의 諸隊를 이끌고 내일 이른 아침에 숙영지를 출발하여 김룡사의 적을 공격할 것
 水町 중대, 제7중대 1소대, 기관총대, 공병
4. 양식은 2일분을 휴대 하도록 할 것.
5. 본관은 문경에 위치한다.

제3 중대장 菊池 대좌

- 주의 1. 김룡사의 적도의 소탕이 종료되면 당포에서 숙영하고 상황을 보고할 것
 2. 김룡사에 적도가 있어서 저항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할 것, 그렇지 않으면 소각하지 말 것.

오후 10시 제9중대 조장으로부터 生田目 중좌의 아래와 같은 통보를 수령함.

1. 종대는 어제 12일 청계사 부근의 적을 토벌하고 오늘 13일 정오에 도착하였음.
2. 본관은 귀 연대의 건재와 성공을 비는 바임

九月十日 金曜日 晴天 気温(二七.〇)

午前三時九分 電報局長より 備後方面より 電報

廣文(五百名)後七時頃(〇發)

一 備後方面より 粟佐約一五〇〇名(〇發)

二 備後方面より 吉方より 備後方面より 一部は未だ成功方面に前進し 敵地附近に暴徒を掃蕩スル

安田七 水町中隊より 貴官指揮下屬

三 備後方面より 特選部隊より 連絡(〇發)

今時尙外備隊は 連報(電文)无也

海軍長官より 生田目作中隊より 電報局長(分)吉方(復電)

一 備後方面より 粟佐約五百名より 明言 備後方面より 五時頃 掃蕩(〇發)

二 水町中隊より 菊池佐十郎より 吉方水町中隊(傳言)

三 貴官(明言)特選部隊 連絡(〇發)

水町中隊(傳言)今七時

備後方面 電報局長(分)吉方(復電)

一 敵方 備後方面より 山口地倉 備後方面より 前哨 敵方(〇發)

二 備後方面より 水町中隊(傳言)

三 備後方面より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四 備後方面より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五 備後方面より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六 備後方面より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七 備後方面より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八 備後方面より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九 備後方面より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十 備後方面より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備後方面 備後方面より 前進(〇發)

鎮南圍中圍慶王園家分視之鎮南間東南約五百米處是尾尾園慶
其間屋線斷之廢柱始上全部倒之殆道人民亦多其他避難人
象米上珠新屋塌及圍慶利人家屋並却人園係已難人家屋無傷
難壞各處野...

工人言...前四十後尾園慶末之空屋之燒打之其地...日前東京
其位...日辭集...音間有洞...後其地方行進...其所不明...

今夜級隊圍慶北郊前備川池各宿儀
警隊圍慶水町中隊下士前是鄉村野約三百米矣警部及南方稱所
近出前衛之大家寺音向對之難意也

給美食...帶糧材...南

午後九時八分會令下

第三級隊在合
一圍慶付...出...一隊...金龍寺...大摩寺方同進時...
二圍慶隊明日先金龍寺賊...掃蕩...
三不似先...九緒隊...明掃蕩會地...金龍寺...敵攻擊...
水町中隊...隊...機関銃隊...士兵
四糧食...音...行...
五、予、園慶...
第三級隊長 菊池大光
注意 一、金龍寺賊...掃蕩終了...產南台...狀...報告...
二、尾野寺賊...根...燒...
午後九時...事...中...通報...
一、隊隊...清溪寺...敵...討...本...正午...
二、予、貴難隊...成...
...

一圍慶付...出...一隊...金龍寺...大摩寺方同進時...
二圍慶隊明日先金龍寺賊...掃蕩...
三不似先...九緒隊...明掃蕩會地...金龍寺...敵攻擊...
水町中隊...隊...機関銃隊...士兵

四糧食...音...行...
五、予、園慶...
第三級隊長 菊池大光

注意 一、金龍寺賊...掃蕩終了...產南台...狀...報告...
二、尾野寺賊...根...燒...
午後九時...事...中...通報...
一、隊隊...清溪寺...敵...討...本...正午...
二、予、貴難隊...成...

午後九時...事...中...通報...
一、隊隊...清溪寺...敵...討...本...正午...
二、予、貴難隊...成...

一、隊隊...清溪寺...敵...討...本...正午...
二、予、貴難隊...成...

二、予、貴難隊...成...

...

...

...

...

...

...

...

...

...

9월 14일 토요일 맑음 기온(27.0도)

연대 본부, 제7중대(2소대 缺), 포병 소대 문경 체재

오전 8시 아래와 같은 전보 보고를 용산 여단장에게 제출함.

당 연대는 어제 오후4시에 문경에 도착하였음.

적은 서남방 및 동북방으로 퇴각한 것 같음. 중대는 우선 오늘 김룡사문경 동북방 약4리의 적을 소탕하고자 함. 電線의 파괴는 예상보다 심하여 곧 바로 가설을 개시하였으나 장래에 있어서의 그 엄호에 대하여 고심함문경에서 菊池 대좌

같은 시각 아래의 건을 한글과 함께 병기하여 電線 연도의 각처에 게시하여 電線의 보호를 확실히 함

이곳 촌민들이 폭도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이 마을 전체를 불살라 버려야 마땅하나, 비록 그렇다 해도 잠시 놔둘 것이니 금일 이후 일본군이 가설한 전신선을 절단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 근처 촌락까지 모조리 불사르겠다. 각 마을들이 협동하여 이러한 염려를 끼치게 하지 말길 바란다.

위와 같이 고시 함

명치40년1907 9월 13일

대일본군 연대장 菊池主殿

오전 11시 30분 군산 浮須 소위로부터 아래와 같은 전보를 수령함

9월 3일 “竹島 馬梁”부근에 내 보낸 척후 3명, 순사 1명, 선원 3명이 鹿島에서 적과 충돌하여 전부 전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동 17명, 경관 31명을 이끌고 기선으로 同地를 향함. 군산 浮須, 9월 13일 오후 11시발 전보

오후 1시 보병 제 51 연대 內藤 소위가 지휘하는 2소대와 기관총 2문은 충주로부터 연락을 위하여 주력은 본 街道를 통하여, 그리고 和田 소위의 소대는 충주로부터 갈평을 거쳐 당지에 도착하였는 바, 이로써 비로소 충주와 연락이 가능하게 되었음.

위 和田 소위의 말에 따르면 宮副 소위의 척후 중에 속한 林田 상등병은 만남을 무릅쓰고 和田 소위의 소대에 합류하였다고 함. 동 상등병은 그 후 당 중대에 도착함으로써 제

7중대에 가편입을 명 받았음.

오후 5시 아래의 건을 문경 부근의 각 촌락에 게시함.

의병에게 보내는 글

7월 1일 京城禁衛隊 해산 이래 大韓國義勇之士가 京城 江華 忠州 方面과 기타 각지에서 봉기하여 일본인을 원수로 하는 바가 수십 일이 지났다. 만민이 도탄에 고통 받고 日韓 양국민이 모두 산업을 폐기한 것이 셀 수 없으니 실로 양국민의 불행이다.

깊이 생각하니 義軍의 논리 또한 동정할 바가 없는 것이 아니나 비록 그러하더라도 大勢는 이미 정해졌으니 인력으로 쉽게 옮길 수 없다. 단지 그대들은 인명을 해치고 재물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어찌 義軍 중에 한 사람도 이 理致를 아는 이가 없는가. 오늘날의 大勢는 도저히 만회하여 의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義軍은 오늘 날 모름지기 뜻을 바꿔 義軍을 해산하고 각자 産業에 복귀한 즉 오히려 大韓國의 백년대계를 위함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군대가 경계에 임하여 장차 부월斧鉞을 가할 것이다. 우리 군대는 향하는 곳마다 적수가 없음은 義軍도 이미 알 것이다. 진실로 의로운 軍隊라 여긴다면 이즈음에서 조속히 깨닫고 살펴 마음을 바꾸어 우리 軍門에 항복을 요청하거나 혹은 때에 따라 너희 무리를 해산하라. 내 비록 큰 덕을 닦지 못했지만, 義軍에 용맹하고 지략이 있어 몸소 책무를 맡은 자도 정상을 헤아려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겠다. 오호라 義軍들아. 길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겠는가? 또 길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겠는가? 오호라, 또 길이 화적이나 폭도가 되어 千歲에 오명을 남기겠는가? 또 길이 의로운 군대가 되어 만년토록 흔쾌한 이름을 남기겠는가? 결정하는 것은 실로 이때의 일이다. 義軍 가운데 고명한 안목과 통달한 식견을 가진 선비들은 가만히 고려하여 속히 결단하라.

명치40년1907 9월 15일

聞慶에서

日本軍指揮官 陸軍 菊池主殿

오후 6시 경 전신선은 불완전하나마 문경에 이르기까지 가설할 수가 있었음.

오늘부터 緊急 집합장을 연대 본부 앞문 안쪽으로 함. 포병은 포창

오후 11시 30분 김룡사에 파견한 不破隊에 연락을 위하여 파견한 하사 척후가 귀대함
동 척후는 龍淵까지 나아갔으나 不破隊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아래의 견을 전보로 여단
장에게 제출함.

적의 근거지는 대승사단양의 남쪽 적성동 서북방와 김룡사문경의 동쪽 4리, 금부동의 서쪽 1리반의 山間에
있는 듯함. 김룡사에 이르는 길은 매우 험준하므로 우선 오늘 不破소좌에게 보병 3개소
대와 기관총 2문을 주어 이를 소탕하게 함. 소탕 후에는 당포에 돌아 와 목을 것을 명하
였으나, 아직 돌아 오지 않고 있는 바, 아마도 추격을 피한 것인 듯함. 중대는 내일 不破
소좌의 소식을 확인한 후에 행동을 결정하고자 함. 오늘 足立 지대와 연락함. 菊池 대좌

九月十四日 土曜日 晴久 先報(三二)

聯隊本部 堂宇(宇治)砲台中隊 關慶 環在
至前入時 砲報報告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關慶 砲台 砲團 砲 提出

其他等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日韓兩國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熱惟義軍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可動唯進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大船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義軍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百年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今校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除軍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義軍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為民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為名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軍中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本後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本日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午後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午後 砲報 砲台 砲團 砲 提出

9월 15일 일요일 맑음 기온(27.0도)

연대 본부 제7중대(1개소대 缺) 포병 소대 문경 체재

오전 4시 30분 不破 소좌로부터 보고를 수령함. 이에 따라 즉각 이를 용산 여단장에게 전보로 보고함

電文오전 4시 반 不破 소좌로부터 보고를 받았음

12일 100여명의 폭도가 문경에서 대승사 방향으로 갔으나, 김룡사에는 들르지 않았고, 同寺에는 아무도 없었음. 따라서 野中 소대를 대승사에 파견하여 정찰한 바, 이강년 李康季이 이끄는 폭도 약 130명은 12일 그 곳에 1박하고 어제 아침 적성 방향으로 갔음. 태봉에서 나누어 전진하는 松野 대위의 소대는 14일 대승사를 거쳐 적성 방향으로 행진한 것으로 보임. 이 방면의 폭도는 약 120 또는 130명으로 전부 무기를 휴대하였으나, 아군의 北進을 알고 적성에서 榮川 방향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임. 그 외의 곳의 주민은 대체로 해산 한 것으로 보임. 중대는 좀 더 문경에 머물며 각 방면의 상황을 정찰하고자 함. 폭도 해산 시에 일부는 水廻場 兪주 남쪽에서 전주 7개를 쓰러뜨리고 서쪽으로 간 상황임. 문경에서 菊池 대좌

오전 6시 中條 소위에게 하사 이하 15명을 데리고 加北面 진남관의 서방 약 2리 반부근 정찰을 명함.

정오에 다음의 건을 문경 시가의 각 입구에 게시하였음

오후 3시 다음의 명령을 내렸음

日 日 명 령 9월 15일 문경에서

1. 당 중대는 당분간 이 곳에 체재한다.
2. 아래와 같이 경계 및 風氣 위병을 세울 것
당촌 서방의 鞍部 하사 초소 1개
당촌 남단 사당 부근 하사 초소 1개 水町 중대
당촌 동단 하사 초소 1개 홀수일 手島 중대, 짝수일 水町 중대
풍기 위병 사령 1
군기 보초 6
하물 위병 3

牛馬 위병 3 手島 중대

3. 솜營 日直의 건 생략
4. 부대 일직의 건 생략
5. 오늘부터 솜營 司令官은 不破 소좌로 한다.

제 3 중대장 菊池 대좌

오후 4시 보병 제47연대 제5중대 日下 특무 조장이 연락을 위해 당지에 옴.

오후 5시 40분 김룡사 방면으로 향했던 不破隊가 귀대함. 그 상황은 오늘 아침 4시 30분 여단장에 보고한 대로임.

오후 6시 40분 足立 支隊로부터 騎兵 伍長 이하 2명이 연락을 위해 당지에 옴.

오후 8시 적성을 향하여 적을 추격한 松野 대위가 귀환함. 그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보 고

1. 당 중대2소대 缺는 태봉 출발 후 예정된 진로를 따라 13일 금무동 서남방 561高地에서 숙영하고 김룡사를 정찰한 바 폭도는 약 15일 전에 同寺를 떠났기 때문에 달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음.
2. 어제 14일 대승사금무동 동북 약 4000미터 승려의 말에 따르면 이강년李康季이 이끄는 의병 약 100명은 그저께 同寺에 나타나, 어제 오후 적성 방면으로 퇴각하였다고 함.
3. 오후 1시 대승사 동방 1000 미터 지점의 1030 高地에 의병으로 보이는 一群은 적성으로 침입할 것으로 보여 즉시 적성 서방으로 나가, 그 시장 부근에 집합하여 식사 중인 약100 명의 의병을 공격하였음. 촌락 안의 적은 흩어 졌으므로 동쪽 산 중턱 및 산 아래에 있는 적에 대하여 총검 돌격을 감행하여 그 곳을 점령함. 적은 谷地를 경유하여 681고지로부터 道? 방향으로, 일부는 석곡 방면으로 패주하였고 우리 병사들은 이를 석곡까지 추격함.

동 전투에서 적의 사망자 15명 발견하였으며, 부상자는 불명. 노획품은 화승총 4정, 군도1 벌, 깃발 1 개, 기타 탄약 약간임.

아군의 손해는 없음. 사용된 물자는 탄약 382발

적의 수괴는 이강년李康季이나, 사망자 중에서 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적성은 전체가 의병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의병이 사용하는 화약 탄환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로 전투 후, 해당 손락을 소각하였음.

4. 중대는 14일 밤 금무동 서방 고지에서 露營하고 오늘 신기 갈평을 경유하여 연대로 합류할 예정임.

오후 10시 당지와 충주 간의 전화 개통함.

오후 10시 50분 북면에 정찰을 위해 파견한 中條 소위가 귀환함. 그 보고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도태 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난 3일 연풍군으로부터 약 80명의 폭도가 당지에서 1박하고 익일인 4일 下槐山 方面으로 출발하였는데, 다수는 총을 소지하고 있가고 함.
2. 문경 거주민의 가옥을 소각하도록 지휘한 자인 정홍대는 도태 사람임을 알고 수색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숨었던 집을 소각함.

오후 10시 30분 아래의 전문을 依田 여단장에게 보고

적성 쪽으로 추격한 松野 대위는 14일 오후 5시 이강년 李康季이 이끄는 약 100명의 적이 적성에서 석식을 하고 있음을 탐지하고 즉각 이를 공격하여 총검 돌격까지 감행하였음. 적은 사망 15명, 부상자 수 불명으로 적은 석곡에서 都苗로 도주함. 우리 병사들은 석곡까지 추격하여 화승총 4, 군도 1, 깃발 1후군 중군이라고 되어 있음을 노획하였음. 우리가 소비한 탄약은 382임.

적성동에서 병에 걸린 대위는 동일 밤,금무동 서방 고지에서 露營하고 15일 오후 8시에 문경에 돌아 왔음.오늘 中條 소위로 하여금 加北面문경 서남쪽 5리반 도대 부근 정찰을 하게 한 바,약 80명의 폭도는 14일 전에 그 부근에 온 적이 있으나,그 후에는 오지 않았다고 함.

九月十五日 日曜日 晴天 気温(二七.〇)

聯隊司令部 警備隊(二小隊) 砲兵小隊 關慶嶽隊

此所傳言人等能與敵軍相苦之官領之件真之之語は深遠長く傳報甚難大
電文 此時早本隊交信有り報告す

其百餘年身是後關慶嶽大隊寺河寺(此處金龍寺)に居りて
關慶嶽大隊司令部(此處)に居りて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所より進出松野大尉(此處)に居りて大隊司令部(此處)に居りて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日々 命人(此處) 九月十五日

一 前線隊(當此池) 砲兵
二 死通(警備隊) 砲兵(此處) 砲兵(此處)

當村(此處) 砲兵(此處) 砲兵(此處)

風紀(此處) 砲兵(此處) 砲兵(此處)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此處に約百餘年(此處)の地味朝野敵軍向す

9월 16일 월요일 맑음 기온(25.0도)

제3중대 문경 체재

오후7시 대구 출발 시의 당 중대의 상황을 여단장에게 보고함

같은 시각 小柳대위로부터 아래의 보고전화를 수령함.

1. 浮須 소위로부터의 전문9월 15일 오후 8시발

토벌대는 지금 돌아옴. 8일 척후3, 순사1, 상인2, 한인4 鹿島에서 홍주 해산병 록도
도민 200명 때문에 전부 참살되고, 그 시체를 수용함. 적은 보령 안면도 방면으로
도주한 듯함. 현재 同島에는 여자 2명이 있을 뿐임.

2. 광주 木野 대위로부터의 전문9월 15일 오전 9시발

오늘 아침 同福광주 동남 약5리에 폭도가 습격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특무 조장에게
병졸 8명을 붙여서 정찰 하도록 함.

오전 7시 20분 어제 저녁 足立 지대로부터 연락을 위해 온 기병 伍長에게 松野 대위의 전
사를 통보함.

오전 11시 안동으로 가려는 永谷 警視에게 “당 문경 부근의 상황, 松野 중대2소대 缺의 전
황, 宮副 소위의 척후 중 당대에 돌아온 자의 人名”등을 통보함.

오후 9시 아래의 건을 여단장에게 전보로 보고함.

적성에서 풍기, 榮川 간의 정찰 및 연락을 위해 내일 3박의 예정으로 手島 대위에게 1개
소대를 붙여서 파견할 것임.

오늘 花枝문경 동방 약 1리 반, 5만분의 1에서 순사 1명의 시체를 발견함.

9월 17일 화요일 맑음 기온(28.0도)

제 3중대 문경 체재

花田 총공장이 왼 손 중지의 탄저병으로 오늘 부산 병원에 입원함.

적성부터 풍기, 榮川 간의 정찰 및 제2중대와의 연락을 위해 3박의 예정으로 手島 대위에
계 1개 소대를 이끌고 오전 5시 榮川으로 출발 하도록 함(宮副 소위의 칙후 중에 속한 林田 상
등병 이하 3명을 위 중대의 병으로서 榮川에 파견

대승사에 적이 저장해 둔 쌀이 있음을 탐지하여 이를 압수하기 위해 1개 소대와 짐을 실
을 소와 말을 오늘 오전 5시 문경에서 대승사로 보냄. 단, 手島 대위에게 榮川으로 가
는 도중에 대승사에 들러서 제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였음.

그리고 手島 대위로 하여금 아래의 문서를 대승사 승려에게 교부하도록 함.

대승사

이 절은 융희초년의 난 당시 적도의 소굴이 되어 마땅히 소각되어야 하나 나는 이 절이
한국의 명찰이라고 여긴다. 하루아침이 지나면 흔적도 없어질 것이니 진실로 애처롭
다. 그대로 장졸들에게 경계하여 특별히 남겨두도록 하겠다.

명치40년1907 9월

안동·문경 방면

대일본군 지휘관 육군보병 대좌 菊池主殿

오전 8시 40분 松野 중대2 소대 缺 전투 상보를 수령함(陣附 제 35호 참조

문경군 신동면 노목문경 남방 약 1리 반

27 세 김성달

위 자는 아군의 상황을 탐지하여 폭도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폭도의 수족이 되어 거류민에
게 손해를 입힌 자로서 체포하여 심문하던 중, 도망을 피하였으므로 오전 11시 사살함.

25세 김용출

위 자는 양민을 가장하면서 폭도에 가담하여 아군의 상황을 탐지하여 앞장 서서 日韓 양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자로서 체포 심문 중 도주를 피하였으므로, 오후 4시에 사살함.

오후 7시 대구 小柳 대위 통보전화는 다음과 같다.

1. 청주로부터 不破 소좌 앞으로의 전보

하사 척후 10명은 15일 미원에서 무기를 가진 폭도 300여 명을 소탕 중 부상
오늘 京城으로 보낼 예정임.

2. 木野 대위로부터

1. 同福 방향으로 파견한 척후의 보고에 의하면 同地를 습격한 의병은 약 70 명으
로 그 대부분은 水洞 方面으로 철수하였고 척후는 이를 추격 중에 동북에서 수상
한 현지인 1명을 죽임(木野 대위). 中平 대위의 통보에 의하면 同地 부근의 폭도는 장
성, 담양, 순창, 옥과 동북 부근의 자들로서 약간의 해산병을 포함하여 그 長은 창
평군 康瑞伯 이라는 자이다. 이들은 점점 그 不穩한 정도가 다하여 가는 듯 함.

2. 동북 부근의 電線 貫통함.

9월 18일 수요일 흐림 기온(24.0도)

제 3중대 문경 체재

오전 6시 30분 적성 부근 제5중대 전투 상보를 여단장에게 제출함
동시에 토벌에 관한 여단 명령, 위 토벌대 명령, 위 토벌대 제3중대 행동 경과
토벌대 예정 행동 약도, 적성 부근 제5중대 전투 상보를 武田 사단장에게 제출하고 今屋
당번부대장에게 통보함.

오후 4시 30분 대승사에 파견한 소대가 돌아 온 바, 아래와 같이 군량미를 운반하여 옴.

1. 精米 31石 103 가마
 2. 찹쌀 4말 5되 3 가마
 3. 소금 2말 1가마
 4. 깨 1말 1가마
- 2, 3, 4 는 추가 지급품으로 익일 전량 지급함

단, 해당 절의 승려 식용으로 정미 1석 정도를 殘置하였음.

대승사 파견대장 大宗 특무 조장이 해당 절의 승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16일 밤 안동
방면에서 일본 장교 하사 이하 6명이 와서 1박한 후 17일 아침 떠나갔다고 함.

이에 위의 건을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대승사에 적이 저장해 둔 군량미가 있음을 탐지하여 오늘 이를 압수하여 문경으로
搬送함, 백미 약 40석, 콩 약 3말. 김룡사에도 다소의 축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내
일 압수할 예정임. 문경에서 菊池 대좌

오늘 西原 중위로부터 상주 파견 중 금월 5일 이후에 있어서의 행동 보고를 받아 아래에
그 요지를 발췌함.

1. 西原 소대 전투 상보

소대는 9월 6일 진남관 부근을 정찰하기 위하여 오전 6시 함창을 출발함. 문경상주
에 피난 와 있었음 함창의 경관 5명 거류민 6명과 함께 유곡 동남방 長丞리에 도착하여
그 북방 320 고지에서 10여명의 의병인 듯한 자들을 발견그 중 3명은 말을 타고 총을 휴
대하고 있었음. 이에 하사 이하 6명을 해당 고지 동남쪽 700미터의 고지에 보내어 이
들을 사격하도록 하였던 바, 의병이 북방 교장리 방향으로 도주하므로 320 고지까

지 추격함. 우리군의 소모탄은 8발 별지 약도와 같음.

2. 9월 6일 소대는 문경에서 이강유 및 조병순 2명을 포획함. 경관 및 현지인의 말에 따르면 이강유는 의병의 수괴인 이강년李康年의 숙부로서 계속하여 이강년李康年과 서면을 주고 받으며 일본군의 움직임을 통지할 뿐 아니라, 군량미를 의병에게 보내 왔음. 또한 조병순은 수년 전부터 排日派의 주요 인물로서 현재 의병과의 연락을 통하여 문경 이남으로 밀정을 파견하고 수일 전에는 대승사에 다량의 군량미를 보내어 의군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양민을 꺾어 의군에 투신하도록 하는 등의 악행을 함. 위 2명을 유곡 남방 산간에서 신문하던 중, 도주를 꺾하였으므로 사살하였음.

오후 9시 加藤 대위로부터 아래의 보고를 받음.

電文 18일 오후 1시 1소대는 보령으로 오후 4시 2소대는 안면도로 향하여 군산을 출발 오후 6시 55분 군산 발 8시 30분 대구 착

같은 시각 光州로부터 아래의 보고를 받음

電文 폭도에 가입한 혐의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담양 및 창평에 각각 장교 이하 10명을 오늘 아침 5시에 파견 木野 여단에 보고를 마쳤음

九月八日 水曜日 蒼天 雲盛(三四)

第三師團 團慶 濟州府
前哨隊 濟州府 第三師團 詳報 奉天 團慶
前哨隊 濟州府 第三師團 詳報 奉天 團慶
前哨隊 濟州府 第三師團 詳報 奉天 團慶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奉天 團慶 濟州府 第三師團 詳報 奉天 團慶
前哨隊 濟州府 第三師團 詳報 奉天 團慶
前哨隊 濟州府 第三師團 詳報 奉天 團慶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一 稻米 奉天 奉天

9월 19일 목요일 흐림 기온(23.0도)

제3중대 문경 체재

김룡사에도 적이 저장하여 둔 精米가 있음을 탐지하여 오늘 아침 西原 중위에게 1소대와 짐 싣는 牛馬를 붙여서 김룡사에 보내어 그 곳에 축적되어 있는 정미를 압수하고 아래의 서면을 그 절의 승려에게 교부하도록 함.

아래 대승사에 교부한 것과 같은 서면이므로 생략함.

오후 4시 대구 小柳 대위로부터 아래의 통보전화를 받음.

봉화군 소천면 석계리 부근에 전 원주 진위대 閱 특무조장이 지휘하는 약 200명의 의병이 출몰함.

9월 10일 오전 4시 박처사가 이끄는 의병 40명이 예안 分派所를 습격하였으나, 보조원에게 격퇴 되었음.

2. 榮川 방면

榮川 방면의 의병은 죽령의 산간에 숨어서 수시로 부근의 여러 부락에 출몰하며 약탈을 자행하고 있음.

풍기는 9월 8일 저녁 이래 보병 제 51연대 1소대 伊藤 중위 이하 30명으로 수비하고 榮川에 있는 西岡 중대는 확실히 이와 연락을 취하고 있음.

3. 단양 예천 방면

예천 동북방 鳳鳴寺*, 동 4리에 있는 大成寺*에는 300 명 이상의 폭도가 모여 예천 방면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상태이며, 그 대장은 위의 청풍 이강년 李康季임.

단양 소재의 보병 제 51연대의 2개 소대는 9월 9일 오전 9시 대흥사 長林驛의 서남방 2리 반의 폭도를 격퇴함. 적은 예천 풍기 방면으로 퇴각함.

三. 전 제3항의 賊徒가 예천 분과소를 습격하려는 상황에서 9월 7일 榮川에 파견한 宮副 소위는 하사 이하 11명을 지휘하여 永谷 警視 이하 보조원 10명과 함께 예천에 도착, 다시 문경 방면으로 전진하여 9월 10일 오후 1시 갈평문경 동북 약 3리 부근에서 약 300 명의 폭도와 충돌하였음. 저녁 무렵까지 교전 하였으나, 지형의 불리함과 함께 적은

* 鳴鳳寺, 大乘寺의 오기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하여 아군을 포위하여 옴으로 동 소위 이하는 惡戰 끝에 퇴각하고자 하였으나, 적의 추격이 맹렬하여 퇴각이 용이하지 아니함. 간신히 宮副 소위 이하 6명은 오늘 오전 0시 30분 안동에 돌아 왔으나, 잔여 安藤 伍長이하 6명의 행방이 불명한 상태임.

四. 당 중대는 오늘 이로써 체력의 휴양을 취하고 내일 예정된 행동을 하려고 함. 따라서 즉시 다음과 같이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지금 막 제2중대로부터 13일 발의 보고가 있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예정대로 안동에 도착함. 연도는 평온하고 정면의 적 상황은 봉화 방면에는 전 원주 진위대 민 특무조장이 이끄는 200 명의 의병이 있음. 榮川 방면의 의병은 죽령 산간에 숨어서 수시로 부근 여러 부락에 출몰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있음.

二. 안동 分遣으로부터의 보고는 다음과 같음.

火賊 상황 보고 9월 16일자

1. 당소로부터 파견한 밀정의 보고에 의하면 문경 방면의 화적은 예천군 읍내에 그 일부를 보내 우편 취급소, 경무 고문 분파소 및 일본 상인의 가옥을 파괴함. 이전에 永谷 보좌관 일행의 길 안내를 한 군청의 小使에게서 안동 일진회장 송 모의 사촌형제 1명을 살해한 후 지난 14일 안동으로부터 1중대가 예천을 향해 출발하였다고 들어, 문경 적성 양방면으로 우회하여 행군한 바, 그 村民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피난하였다고 함. 금월 6일까지 봉화군 읍내에 주둔한 전 원주대의 하사 閱 모는 의병 42명 韓兵을 이끌고 춘양으로부터 지난 12일 동면 雲谷리에 이르러 동면 현동의 善 모 및 權 모 두명을 強迫하여 금전을 강탈하고 13일 동면동봉화에서 3리 반으로 왔다고 함.
2. 금월 9일 예안 분파소를 습격하였다가 격퇴된 화적의 잔당 약 사, 오십명은 봉화군 방산면 청량사봉화로부터 3리 반라는 산사에 잠복하고 있다고 함.
3. 봉화군 각화사에 우리 군에 패배한 민 특무 조장은 부하 120명을 이끌고 지난 7일 울진 분파소를 습격한 후 신돌석의 부하 200명과 합쳐 강릉으로 갔다고 함.
4. 당소로부터 영양 방면에 증파한 보조원 有瀨幸行의 보고에 따르면 勝田 중대가 파견한 30 명의 병사 眞寶분파소 萩原 보조원을 이에 부속시킴은 영양군 임곡영양에서 1리 반에서 화적의 일단을 사격한 듯 하며, 그 적병으로 보이는 20여명은 영양읍 동방의 산중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정찰중이라고 함.

9월 20일 금요일 흐림 기온(21.0도)

제3종대 문경 체재

오전 1시 15분 대구 小柳대위로부터 아래의 통보전화를 받음

여단장으로부터 小柳대위에게용산 오후 9시발 대국 局 11시 수령, 수비대 오전 1시 수령

電文 菊池 대좌의 보고제2종대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지급으로 전보 보고하라.또한 연락을 위하여 1개 부대를 분리하고, 보고를 위해 1개 부대를 귀환 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菊池 대좌에게 전달하라. 요는 군의 이후의 행동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양 종대의 행동을 알고자 함. 依田소장

오늘 아침 水町 중대의 河野소위가 지휘하는 1개 소대를 足立 支隊와 연락을 위해 괴산에 파견함.

오전 7시 30분 제1, 제2종대에 당 방면의 상황 및 연락에 관하여 통보함.

注意 위 통보 중 하나는 韓人 통역 2명을 통하여, 다른 하나는 20일 오전 7시 발의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같은 시각에 김룡사로 갔던 西原 소대가 귀환함. 운반해 온 군량은 다음과 같음.

김룡사에서 몰수한 물건표

- | | |
|-----------------|--|
| 1. 정미 | 134 가마니 34石 9斗 |
| 2. 보리 | 4가마니 약 1석 2두 |
| 3. 밀가루 | 1가마니, 2상자 약 2석 |
| 4. 콩 | 2가마니 약 3두 5升 |
| 5. 소금 | 17가마니 약4석 |
| 6. 팔 | 1가마니 약 5승 |
| 7. 다시마,김 기타 부식품 | 1가마니 |
| 8. 짚신 | 130 켈레 그 중 86켈레는 행군 중 인부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잔여 44 켈레 |
| 9. 기념품 | 창 7자루 기타 약간 |

오전 8시 15분 아래의 건을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적이 김룡사에 보관해 둔 백미 약 30석, 잡곡, 소금 약간을 압수하여 지금 막 문경으로 운반하여 왔음. 오늘 연락을 위해 괴산으로 河野 소위의 지휘하에 1개 소대를 파

견함. 제1중대는 영양 방면의 토벌에 종사하고 제2중대는 죽령 방면의 토벌에 종사하고 있음. 내일 아침까지는 手島 소대가 榮川으로부터 돌아올 예정인 바, 그 귀환 후, 詳報가 가능할 것임. 또한 오늘 아침 兩 중대에 밀정을 파견하였음. 菊池 대좌 이에 아래와 같이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오후 5시 45분 받

연락을 위하여 榮川에 파견하였던 手島 대위가 방금 귀환 하여 보고한 상황은 다음과 같음.

제1중대는 지난 15일 오전 3시 30분 영양을 출발하여 주곡영양 동북방 2리의 적을 습격하여 12명의 적을 죽이고 약 30명을 부상시킴. 노획품은 화승총 22, 기타 물품 약간이며 아군의 소모탄은 452임. 이 적은 신돌석이 이끄는 무리로서 약 170명의 패잔병은 영덕 가도 방향으로 敗走하였음. 이 후 동 중대는 봉화로 전진하여 이 방면의 상황을 정찰 중인 바, 동해안 울진 방면에는 아직 약간의 적이 있는 듯함.

제2중대는 현재 주력을 榮川에 두고 일부를 풍기에 보내 竹嶺谷 단양 및 동 방면으로부터 적성동 간의 정찰 및 掃討에 종사하고 있으나, 아직 적의 대집단과는 마주치지 아니하였음. 단, 아직 이 사이에는 50 내지 200명의 적이 산재하고 있는 듯함.

手島 대위는 1개 소대를 이끌고 17일 문경을 출발하여 적성을 경유, 풍기에서 3박하고 왕복하였으나 전혀 적과 마주치지 아니하였음. 이전에 행방불명이었던 병사들은 모두 무사히 榮川에 돌아 왔음.

제1, 제2중대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무릅쓰고 예정대로 행동하였음. 이에 그 개요를 기록하여 두고자 함. 전투상보 및 제 보고는 직접 수송하겠음. 菊池 대좌

9월 21일 토요일 비 기온(18.0도)

제3종대 문경 체재

오전 7시 30분 여단장으로부터 아래의 명령전보을 수령함

여 단 명령

9월 21일 오전 0시 45분 용산 발 오전 2시 30분 상주 수령, 동7시 30분 문경 수령

- 一. 봉화 및 죽령 방면에는 약간의 賊徒가 있는 것 같음.
- 二. 남부 수비대는 일부를 보내어 봉화 죽령 부근 및 경상북도 해안 도로 방면의 적도를 계속하여 토벌하고자 함.
- 三. 위 토벌대 지휘관은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
 1. 제1종대로 하여금 봉화 및 경상북도 해안 부근의 폭도를 掃討하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아래 지점을 수비하도록 할 것

이에 다음 명령을 하달한다.

위 토벌대 명령 9월 21일 오전 9시 문경에서

- 一. 봉화 및 죽령 부근에는 아직 약간의 적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남부 수비대는 일부를 보내어 봉화 죽령 부근 및 경상북도 해안 도로 방면의 적도를 계속하여 토벌하고자 함.
이 토벌에는 足立 지대의 일부를 참여 시킬 예정임.
- 二. 위 토벌대는 제1, 제2종대로 하여금 봉화 죽령 부근 및 경상북도 해안 도로 방면의 적도를 토벌하고자 함.
- 三. 井澤 소좌는 제1, 제2종대를 함께 지휘하여 신속히 봉화 및 경상북도 해안 도로 부근과 죽령 부근의 적도를 토벌할 것.

그 목적을 달성하면 아래의 지점을 수비할 것

右 토벌대장 菊池主殿

注意

- 一. 신부서 및 수비지로 출발할 일시 및 경로, 도착 예정 일시는 신속히 보고할 것

토벌대 신 수비지에 도착하기까지의 행동 예정표

隊號	신수비지	현수비지 출발 예정 일시	경로	신수비지 도착 예정 일시
10(1소대 缺)	울산			
10 1/3	영일			
III본부	부산			
11(1소대 결)	영천			
11 1/3	청송			
12(1소대 결)	밀양			
12 1/3	삼랑진			
14연대 본부	대구	9월 23일 문경발	함창, 상주, 김천, 대구	9월 26일
기병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포병 소대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공병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2소대 결)	영동	9월 21일 문경발	榮川, 문경, 함창, 상주, 김천, 영동	9월 27일
II 본부	광주	9월 23일 문경발	함창, 상주, 김천, 부산, 목포	9월30일
7 (1소대 결)	상동	상동	상동	상동
7 1/3	남원	상동	상동	10월 1일
47 연대본부	대전			
7	상동			
9 (1소대 결)	조치원	9월 22일	함창, 상주, 김천	9월 25일
I 본부	함창			
3	상동			
4 (1소대 결)	청주			
4 1/3	보은			

오전 9시 45분 아래와 같이 여단장에게 조회함

압수한 백미 60여석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문경 菊池 대좌

정오 松野 중대2소대 결로 하여금 榮川으로 출발하게 하여 위 명령을 전달 하도록 함.

오후 1시 30분 아래와 같이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제1, 제2중대에는 제5중대2소대 결로 하여금 명령함. 동 중대는 오늘 당지를 출발 하여 23일 榮川에 도착하고, 문경, 함창, 상주, 김천을 거쳐 27일에 영동에 도착할 예

정임. 연대 본부 및 포병 소대, 공병은 23일당지를 출발, 함창, 상주, 김천을 거쳐 26일 대구에 도착할 예정임. 제2대대 본부 및 제7중대는 연대 본부와 동행하여 26일에 부산. 30일에 광주에 도착할 예정임. 보병 47의 제9중대1소대 결은 22일당지를 출발하여 상주, 김천을 경유하여 25일 조치원에 도착할 예정임. 군대가 당지에서 철수하던 전신 기수 일행, 우편 취급소 등은 모두 철수할 예정이라고 함. 위 보고함. 문경에서 菊池 대좌

二. 문경의 적 일부는 지난 14일 음성 방면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임.

현재 미원 부근은 평온하며 현지 주민은 아군을 환영하고 있음.

3. 연풍 군수의 말에 따르면 음력 7월 17일 약 200명, 동 18일 약 50 명의 폭도가 괴산 남 방으로부터 동지에 와서 문경 방면으로 갔다고 함.

오후 3시 아래와 같이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어제 연락을 위하여 괴산으로 보낸 河野 소대는 오늘 돌아 오는 중, 연풍의 서쪽 1리 반 평송동에서 칠, 팔십 명의 적에게 가로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임. 연풍에서 2개 분대를 이끌고 豊燒 소위로 하여금 그 곳으로 출발하게 함. 문경에서 菊池 대좌

오후 3시 20분 여단장으로부터 압수 백미의 처분 및 문경에 수비대를 설치하는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답이 있었음.

電文 답, 문경에는 보 47에서 1개 소대를 주둔 시키도록 명령하였음. 백미는 동 수비대에 보관을 위탁 할 것

당 제3중대는 위 토벌대 명령 개정 수비지 행동 예정표에 있는 바와 같이 모레 23일 당지를 출발할 예정이나, 그 후의 수비대 도착 예정 시일이 불분명하여 출발 준비에 불편할 뿐 아니라, 군량을 보내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없어서, 生田目 중좌에게 수비 소대의 도착 시일을 조회하였음. 오후 8시 45분 연락을 위하여 어제 괴산으로 떠났던 河野 소대가 무사히 귀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河野 소대가 지금 귀환함. 적을 추격하였으나 결국 미치지 못하였으며, 피아간에 사상자는 없음.

在함창 보병 제 47연대로부터 아래의 군사령관 고시를 수령 하였으므로 오늘 野中 소위에게 당촌에 입간판을 세우도록 하였음. 또 한 제2중대에도 송부하도록 의뢰하였음.

고시

한국주차군사령관 육군대장 남작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는 대한국 각도 백성들에게 충분히 고하노라. 방금 대한국 정부가 온 세계의 자연스러운 추세를 살펴서 국정을 혁신 할 필요가 시급하여 대항제 폐하의 성지를 받들어 제반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천하의 정세에 어둡고 순리와 역리의 대의를 깨우치지 못한 자가 유언비어로 번번이 인심을 선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뢰배들로 하여금 부화뇌동으로 봉기하게 하여, 혹은 안팎의 양민들을 해치고, 혹은 재물을 겁탈노략질 하며, 혹은 관아나 민간 가옥을 불사르고, 혹은 교통기관을 파괴하여 그 흉포함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니, 그 죄가 천지의 사이에 용납지 못할 것이다. 이 같은 불온한 무리들이 외람되게 충군애국을 사칭하여 이른바 의병이라 이르지만, 낡은 것을 혁신하려 하시는 임금의 뜻을 거슬러 나라를 좀먹고 백성에 해독을 끼치는 샷된 무리에 지나지 않으니, 조속히 쳐 내지 않으면 그 재앙이 실로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에 대한국 황제폐하의 성지를 받들어 이러한 샷된 무리들을 박멸하여 백성들을 도탄 가운데서 구출하고자 하니 너희 양민들은 편안히 거처하며 생업을 지키고 감히 위협해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방향을 잘못하여 샷된 무리에 관여한 자라도 진정된 마음으로 뉘우쳐 속히 귀순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할 것이고, 샷된 무리들을 붙잡아 보내거나 그들의 소재처를 밀고하는 자는 반드시 무거운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혹 완고하게 깨닫지 못하고 샷된 무리와 부화뇌동하여 혹은 숨고 달아나거나 혹은 흉기를 숨기는 자에 이르러서는 엄벌하여 조금도 가차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범죄자가 사는 고을에도 지워 그 부락 전체를 엄중히 처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본인의 성의를 이해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말도록 하라.

명치40년1907 9월 일

융희원년1907 9월 일 [印]

9월 22일 일요일 맑음 기온(23.0도)

제3중대 문경 체재

오전 7시 30분 상주 통신소로부터 어젯밤 生田目 중좌에게 조회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를 받음.

문경은 당 중대의 제3중대의 1개소대가 수비를 맡을 것임.

당해 소대는 오는 24일 대전을 출발하여 보은, 화령장을 경유하여 귀지상주에 이를 것임.

제1, 제2중대의 도착 후에 수비지에 도착할 것임.

그 시일은 미정이나, 사고가 없으면 27 또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당 중대는 예정대로 내일 당지를 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이십 칠, 팔 일경 문경 수비대로서의 임무를 받은 보병 제47연대 제3중대의 1개 소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당대의 제7중대의 1개 소대를 남겨 둘 예정임. 문경에서 菊池 대좌

오전 8시 군산 浮須 소위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전보를 받음.

古群山군산의 서쪽 약 6리에 해적 20명이 있다고 하여 지금 토벌을 위하여 나감.

오전 10시 아래 명령을 내림.

제3중대 명령 9월 23일 오전 10시 문경에서

1. 당 중대는 위 토벌대 명령에 기하여 새로운 수비지로 가기 위하여 내일 함창으로 행진한다.
2. 不破 소좌는 제7중대의 1개 소대 10명 缺 및 공병을 이끌고 전위가 되어 내일 아침 6시 연대 본부 앞을 출발하여 유곡을 경유 함창에 이르도록 한다. 傳騎 2명을 부속시킨다. 단 路上 척후는 내 보낼 필요가 없다.
3. 본대는 오전 6시까지 연대 본부 앞에 집합하여, 제7중대 2개 소대 缺, 기관총대, 포병의 순으로 전위로부터 300미터 떨어져 행진한다.
4. 제7중대의 1개 소대를 남겨 두어 당지의 수비를 담당한다. 이 소대는 이십 칠, 팔 일 경 당지에 도착 예정인 보병 제 47연대의 1개 소대와 교대한 후, 대구, 부산을 경유하여 광주에 도착하여 중대에 복귀할 것.
5. 운반병은 포병대를 따라 행군할 것.

제7중대에서 하사 이하 10명을 뽑아 후위로 하고, 운반병, 牛馬 및 인부의 감시를 맡게할 것.

6. 본관은 본대와 함께 행진함.

제3중대장 菊池 대좌

동시에 문경 도착 후의 고시문을 당번 부대에 통보하여 사단장에 제출하도록 함.

동시에 제2중대 제4_{宮副} 소위의 보고, 제7, 제8, 제9, 제10호 보고, 제11중대 전투 詳報를 여단장에게 제출함.

오후 6시 용산 加藤 대위 및 수원 能村 대위로부터 보고를 받아, 아래와 같이 그 요지를 발췌함.

加藤 대위의 보고 9월 8일자

伍長 근무 상등병 竝松義는 9월 7일 제1반 풍기 위병사령으로 복무 중, 익일 오전 3시 순찰 시에 장전한 탄환을 막사에 돌아 온 후에 제거하는 것을 망각한 채, 동일 오후 3시 30분 총의 공이치기의 안전 장치를 풀고자 하여 오발사고 발생, 1등병 近木督雄에게 부상을 입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이에 현재 검찰에서 처분 중임.

能村 대위의 보고

오늘 岡本 공병 소위로 하여금 진남관의 관문을 폭발시킴.

9월 23일 월요일 맑음 기온(24.0도)

제3종대는 野中 소대로 하여금 문경을 수비하도록 하고 나머지의 제 부대는 오전 6시 출발함. 순차적으로 유곡에서 장시간 휴식2시간을 취하고 오후 3시 30분 함창에 도착하여 전일 먼저 온 中野 중위가 준비한 숙영 구분에 따라 즉시 숙영에 들어 갔음.

이 보다 앞서 오전 8시 종대가 문경의 남방 약 1리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密偵이 제2종대로부터의 보고를 전달하러 왔으므로, 아래에 그 요지를 발췌함.

1. 소백산에서 그 서쪽 산맥을 따라 죽령에 이르는 山中에 파견한 간첩의 말에 따르면 해당 방향에는 의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
2. 간첩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강년李康季이 지휘하는 약 500명의 폭도는 永春으로 들어 갔다고 함. 이강년(李康季)은 이전에는 문경 방면에 있었으나, 제3종대의 그 방면 진출과 함께 永春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생각됨
3. 藤田 대위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종대는 淸水 봉화 보조원으로부터 “閔 某특무 조장으로 추측되는 전 원주 진위대 하사 김 모가 이끄는 약 40명의 의병과 합하여 약 270명의 병력을 이끌고 지난 16일 운곡봉화 동방 약 3리에서 춘양면 서벽리봉화 동방 약 6리쪽으로 향하였다”는 말을 듣고, 정황을 확인한 후 이를 공격하고자 하는 중이라고 함. 이에 위의 건을 전화로 足立 지대에 통보함.

9월 24일 화요일 이슬비 기온(25.0도)

오전 3시10분 함창 수비대 山田 소좌로부터 아래의 依田소장의 전보 명령을 수령함.

電文 오늘 그 곳에 도착할 菊池 대좌에게 아래의 사항을 전달할 것.

진위대의 총 50 탄약 약간을 상주 경찰서에 맡겨 두었으므로 장교가 지휘하는 1개 부대를 상주에 파견하여 井上 警部에게서 이를 수령하여 이곳으로 발송할 것. 龜井 대위가 받아 가지고 있는 수령 위원 발행의 수령증은 추후 보낼 것임.

오전 6시 숙영지를 출발하여 대봉을 경유 오전 11시50분 상주에 도착하여 장시간 휴식을 취함. 상주 우편국으로부터 문경 野中 소위의 보고를 수령함.

1. 23일 밤 상주에 전달된 보고

오늘 이곳으로부터 닭 징발을 위하여 현지 주민을 진남관의 서방 약2리에 있는 신평동에 보내었던 바, 저녁 무렵 폭도 150명이 그 곳에 침입하였다고 그 주민이 보고함.현재 밀정을 파견하여 정찰 중임.

2. 24일 오전 7시 상주에 전달된 보고

적은 그 곳으로부터 서방을 향하여 간 것으로 생각되는 바, 화령장, 보은 방면으로 간 듯함.

오후 0시 30분 오늘 아침의 여단장 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

中條 소위로 하여금 井上 경부로부터 진위대의 병기를 수령하도록 하였음. 그 수는 다음과 같음

총 및 총검	30 정
탄약	2200 발
탄띠	25
찬합	23

오후 1시 20분 상주를 출발 오후 4시 수직점에 도착하여 이 곳 및 수상에서 숙영함.

오후 행군 중 다음의 전보를 수령하였음.

1. 상주 경찰서장에게 보낸 依田 여단장의 전문 24일 오후 1시 5분 대구발

오늘 그 곳에 도착할 菊池 대좌에게 다음 사항을 확실히 전달해 주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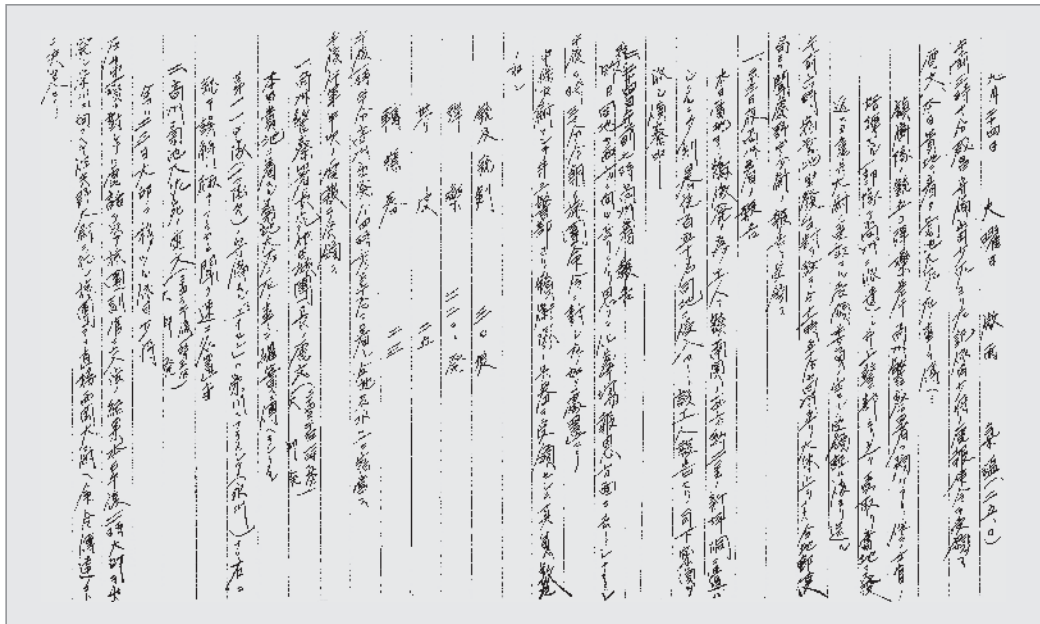
제11중대1개소대 결가 수비하는 “衛線”은 榮川이 아닌 永川임.이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하므로 신속히 조치할 것

2. 상주 菊池 대좌에게 보낸 전문 24일 오후 1시5분 대구발

본관은 23일 대구로 이동함. 依田소장

위 제1항에 대하여는 여단 부관과 전화로 교섭한 결과 오늘 오후 2시 대구를 출발하여 榮川으로 가는 征矢野 대위를 통하여 여단으로부터 직접 西岡 대위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됨.



9월 25일 수요일 맑음 기온(25.0도)

오전 6시 숙영지를 출발, 오동우야를 거쳐 정오 추풍령에 도착함. 이 곳의 정거장 부근에 숙영함.

오후8시 다음의 명령을 내림.

제3중대 명령 9월 25일 오후 8시 추풍령에서

1. 내일 대구에 도착하는 동시에 당 중대의 편성을 해제한다.
2. 諸隊는 내일 오전 9시 20분 당지 발 열차로 각각 수비지를 향하여 출발할 것.
3. 내일 軍旗 호위를 위하여 제7중대로부터 장교 지휘하의 1개소대를 오전 9시 연대 본부로 보낼 것.
4. 말 및 하물 탑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을 지정함. 해당 위원은 발차 30분 전 까지 탑재를 마치도록 계획을 실시할 것.
대구행 말, 하물 탑재 위원 平田 포병 중위
부산행 말, 하물 탑재 위원 村岡 보병 중위
인원의 승차는 연대 부관이 지시한다.
5. 본관은 동 열차로 대구에 도착할 예정임.

오후 9시 대구의 赤司 소좌로부터 아래의 보고를 받음

松野 대위로부터 菊池 연대장에게

소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榮川에 도착하여 제2중대와 연락을 취하여 토벌에 관한 명령을 전달하였음. 제1중대에는 제2중대로부터 이를 전달함. 井澤 소좌는 즉시 봉화 영국 방면 토벌에 관한 조치를 취함. 자세한 사항은 동 소좌로부터 대구에 필기로 보고할 것임. 현재 죽령 방면에는 이상이 없음. 당대는 24일 문경에 도착하였음. 문경 부근은 아직 불온한 상태임. 내일 문경을 출발하여 상주 경유, 27일 김천에 도착할 예정임. 赤司 소좌

九月二十日 水曜日 晴久 氣象(三共)

午前以時感當地出發 掘桶中也有能正秋風頗着此地停車
備附三、四點鐘、

午後八時在會合處、

此處在肥後原合 於此處有...

一、明日不評着、合時、...

二、部隊、明日、...

三、明日、...

本部、...

四、馬匹及荷物搭載、...

十、...

大和行馬匹着荷物搭載、...

崖山行馬匹着荷物搭載、...

人員、...

五、...

午後、...

小隊、...

三、...

奉化、...

報告、...

近、...

9월 26일 목요일 맑음 기온(26.0도)

오전 7시부터 제3종대 대구행 및 초량행 말 및 하물을 화차에 싣기 시작하여 오전 8시 30분까지 전부 종료함. 계속하여 인원의 승차를 개시, 오전 9시 20분 추풍령역 발차, 정오 대구역 도착함과 동시에 제3종대의 편성을 해제함. 연대 본부,포병대 및 공병 기타는 미리 제1대대가 준비한 각각의 숙영지에 이르러 숙영함.

오전 8시 10분 군산 浮須 소위로부터 다음의 보고가 있었음.

電文 강경에 보내었던 척후의 보고에 의하면 백암동강경의 동북 8리에 폭도 200명이 발생함. 따라서 즉시 이를 여단장에게 보고함.

오늘 9월 23일부터 9월 26일간의 제3종대의 귀환 행군의 상황을 보고함.

오후 6시 松野 대위로부터 다음의 보고를 받음.

1. 소대는 오늘 오후 2시 상주에 도착함. 자 없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추풍령을 거쳐 영동에 도착할 예정
2. 제2종대와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하여는 24일 밤 문경으로부터 대구 제1대대 본부를 거쳐 연대에 보고한 바와 같음.

주의

1. 각 수비대는 신 수비지에 도착하면 수비대장의 성명 및 수비대 인원표각 등급으로 구분할 것을 신속히 제출할 것.
2. 당 종대를 위하여 문경에 전화통신소를 설치함대구-문경간.
보고를 위하여 이를 필요로 한다면 1개 부대를 파견하여 보고 하도록 할 것.

10월 1일 화요일 맑음 기온(26.0도)

대구 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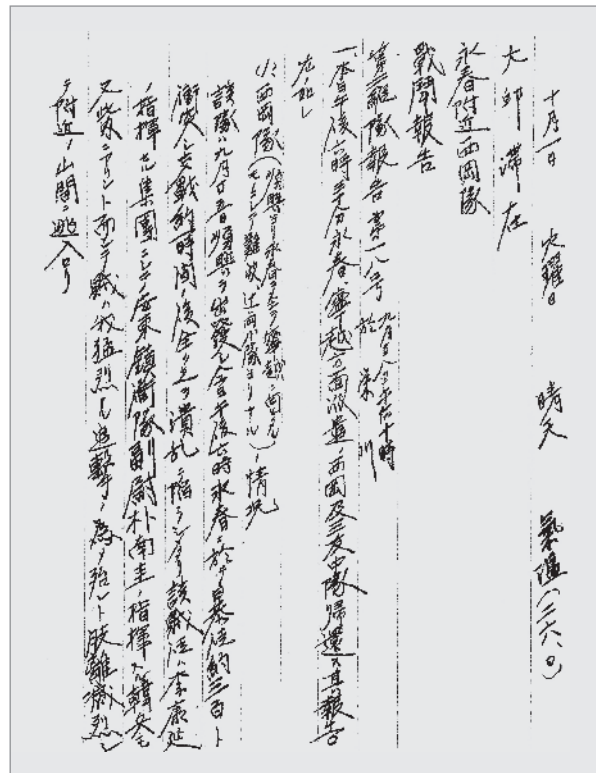
永春부근 西岡隊의 전투 보고

제2중대 보고 제18호 9월 8일 오후10시 榮川에서

1. 오늘 오후 6시 30분 永春, 영월 방면에 파견한 西岡 및 三友 중대 귀환함. 그 보고는 다음과 같음.

(1). 西岡隊 순흥에서 永春을 거쳐 영월로 온 부대로서 難波, 츠지 양 소대로 구성됨의 정황

이 부대는 9월 15일 순흥을 출발하여 동일 오후 6시 永春에서 폭도 약300명과 충돌하여 교전 약 1시간 후에는 이를 완전히 궤멸 상태에 빠뜨렸음. 이 적도들은 이강년李康季이 지휘하는 집단으로서 안동 진위대 부위 박남규*가 지휘하는 韓兵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적은 우리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 거의 지리멸렬한 상태로 부근의 산간으로 도망하였음.



* 백남규의 오기

10월 22일 화요일 흐림 기온(21.0도)

대구 체재

명령

1. 경상북도 선유사 김중환 경호를 위해 오는 25일 대구수비대로부터 장교가 지휘하는 20명을 대구 서문내에 있는 김 선유사의 여관으로 파견하고 이 후 별지 선유 예정표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 원조하도록 할 것.
2. 경호 수행 중의 양식은 휴대하도록 할 것.
단, 경과하는 각 곳의 수비대 소재지에서 순차로 이를 보충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것.
남부수비관구 사령관 依田廣太郎 대리 菊池主殿

선유 예정표 (3-80 에서 3-81)

10월 5일 考領店 숙소	11월 1일 봉화 선유	11월 6일 문경 선유
10월 26일 군위 선유	11월 1일 순흥 선유	11월 7일 함창 선유
10월 27일 의성 선유	11월 2일 榮川 선유	11월 8일 상주 선유
10월 28일	11월 3일 풍기 선유	11월 9일 추풍령 선유
10월 29일 안동 선유	11월 4일 예천 선유	11월 10일 대구
10월 28일		
10월 29일 안동 선유		
10월 31일 예안 선유	11월 5일 용궁 선유	

(熊澤 소대 전투 보고)

榮川 수비 熊澤 소위의 보고

10월 18일 오후 5시 풍기에서

- 一. 韓兵 약 칠,팔십명을 포함한 폭도가 죽령단양-풍기 가도 상,2십만 분의 1 도면 참조에 나타나, 우리 수비대는 어제 17일 이를 新街店 방향으로 격퇴하였음.
- 二. 소대는 현재 중대가 봉화 부근에서 행동중이므로 이를 통보하여 셋길로부터 폭도의 퇴로로 진출하여 서로 挾擊하여 일대 타격을 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임.
- 三. 폭도의 손해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포로의 말에 따르면 부상자가 많은 바. 이들 폭도

는 閱의 지휘하에 있는 자들로서 현재 永春 부근에 있는 이강년李康季에게 응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함.

四. 우리 군에는 부상자 없음.

十月二十二日 火曜日 曇天 氣溫(二二.〇)

大邱 在

會令

一 慶尚道道廳及全軍總督署, 爲十月二十五日大邱牛浦隊, 將校 韓 某 等 二十名, 大邱西門外, 在會空論使, 該 韓 某 等 而後別紙空論將是來, 奉其任務遂行, 後訪云云

二 警備 行 動 間, 糧食 之 携 行 云云

但 經 通 路 各 寺 滿 隊 駐 地, 於 十 逐 次 之 補 充 云 如 計 區 云 云

南 部 各 滿 隊 區 司 會 官 原 由 曹 大 部 代 理 菊 池 主 殿

空論 膠 隊 是 報

十月五日	考 嶺 后 嶺 所	十月十日	奉 化	空 論	十月十六日	輝 慶	空 論
十月六日	軍 殿 空 論	十月十一日	順 興	空 論	十月十七日	咸 昌	空 論
十月七日	義 城 空 論	十月十二日	榮 川	空 論	十月十八日	高 州	空 論
十月八日	安 東	十月十三日	豐 基	空 論	十月十九日	麓 嶺	空 論
十月九日	空 論	十月十四日	禮 泉	空 論	十月二十日	大 邱	

總 隊 戰 報

深 川 牛 浦 隊 派 隊 討 殺 告 十月二十日 奉 命 赴 任

一 韓 某 約 七 八 十 難 入 爲 使 竹 炭 丹 陽 豐 基 經 道 上 至 今 一 番 奉 照 二 現 狀 牛 浦 隊 昨 十七 日 之 新 開 店 向 擊 退 云

二 牛 浦 隊 中 隊, 自 下 卷 他 附 屬 行 動 中 之 通 報 之 間 道 之 暴 徒, 退 路 出 于 桐 峽 擊 手 之 大 打 擊 之 如 計 區 中 云

三 暴 徒 損 害 詳 詳 之 是 抽 屬 之 言 之 故 八 員 傷 者 云 計 區 法 關 配 下 之 十 月 下 永 春 附 屬 之 李 康 忠 應 援 之 事 云 云

四 我 之 損 傷 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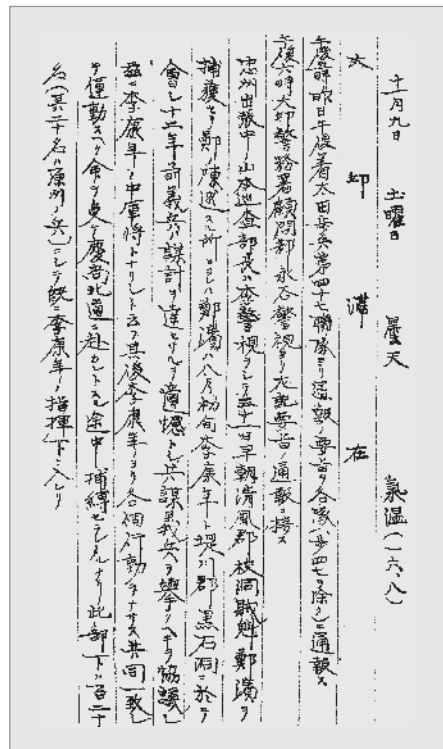
11월 9일 토요일 흐림 기온(16.8도)

대구 체재

오후 5시 어제 오후 도착한 대전의 보병 제 47연대로부터의 통보 요지를 각 대보병 47 계의
에 통보함.

오후 6시 대구 경무서 고문부 永谷 警視로부터 아래 요지의 통보를 받음.

충주 출장중인 山本 순사부장은 李 警視로 하여금 31일이른 아침 청풍군 교동 賊魁 鄭 濱
을 포획하도록 하였음. 鄭의 진술에 의하면 정 빈은 8월 초순 이강년李康季과 제천군
흑석동에서 만나, 12년 전 의병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공모
하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협의하고 이강년李康季의 中軍將이 되었다고 함. 이강년李康季
으로부터 이 후에는 각자 행동을 하지 말고 공동 일치하여 움직일 것을 명 받고 경상
북도로 향하는 도중에 捕縛되었다고 함. 그 부하는 120명 그 중 20명은 원주의 兵으로서 이
미 이강년李康季의 지휘하에 들어 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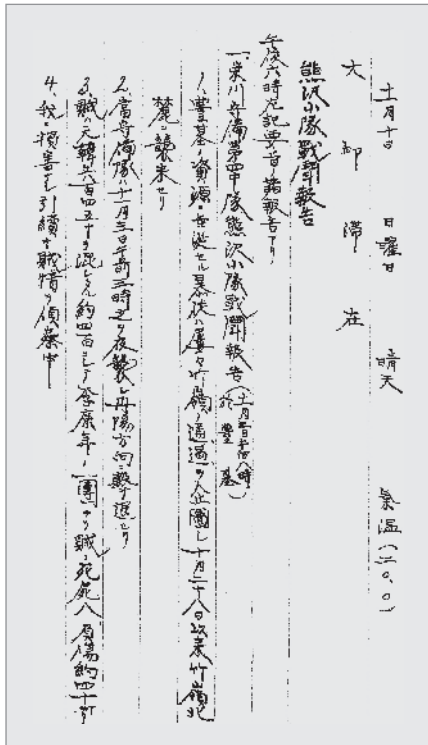
11월 10일 일요일 맑음 기온(20.0도) 대구 체재

(熊澤 소대 전투 보고)

오후 6시 아래 요지의 제 보고가 있었음.

一. 榮川 수비 제4중대 熊澤 소대 전투 보고 11월 3일 오후 8시, 풍기에서

1. 풍기의 자원을 탐내는 폭도는 계속하여 죽령 통과를 기도하여 10월 28일 이래 죽령 북쪽 기슭을 습격하여 음.
2. 당 수비대는 11월 3일 오전 3시 이를 夜襲하여 단양 방면으로 격퇴하였음.
3. 적은 전 韓兵 백 사, 오십 명을 포함하여 약 400명으로 이루어진 이강년李康季의 一團임.
적의 사망자 8명, 부상 약 40명임.
4. 우리 군은 손해가 없으며 계속하여 敵情을 정찰 중임.



11월 13일 수요일 맑음 기온(17.0도)

대구 체재

위 두 건의 보고는 이를 남부 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함.

오후 10시 대구 경무서로부터 아래의 통보를 받음.

榮川 分派所 보고

- 一. 10일 오전 8시 申角石*이 이끄는 폭도 300 여명이 봉화군을 습격하여 그 곳에 있는 巡査 4명, 兵 5명은 서방 고지로 올라가 일시 응전하였으나, 숫자가 적어 퇴각하였음. 폭도는 군의 衙門 및 부속 건물, 경무 분소, 순검, 주사, 서기, 기타 민가에 불을 질러 村內 전부를 태워 버리고민가 약 29채소실, 4채 남음. 순사의 휴대용 검2, 외투3기타 소지품을 가져 갔음. 이 急報를 접하고 小官은 순사, 순검을 이끌고 수비대와 함께 급히 약 5리를 추격하여 적에게 多大한 손해를 가하였으나 적의 주력은 古直령*을 넘어 삼척군의 태백산중으로 들어 갔음. 우리측 손해는 없으며 분파소의 순사와 병은 榮川으로 철수함.
- 二. 11일 오전 7시 이강년李康季이 이끄는 약 200명과 신돌석이 이끄는 약 300명의 폭도는 永春 방면으로부터 와서 順興을 습격하여 불을 질러 분파소, 郡衙의 건물 및 민가 약 180채를 소각하고3채 남음, 순사의 검 2, 외투 2점을 빼앗아 永春郡 구역으로 들어 갔으며, 熊澤 소위가 兵 25명을 이끌고 추격중임.
- 三. 당시 분파 순사 2명, 병 7명은 봉화군에 출장 중이었음.
- 四. 본건 및 봉화의 습격은 안동 수비 중대가 당 관내에 있을 때 발생하였음.
- 五. 폭도가 점점 猖獗하여 봉화, 순흥, 풍기는 불온한 상태임.

위 보고는 즉시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제출함.

동시에 光州 不破 소좌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전보 보고를 수령함.

하사 이하 10명 오늘 오후 6시 출발하여 창평에서 1박한 후, 내일 谷城에 도착할 것임.

* 申角石의 오기

* 古置嶺의 오기(현재 지명표기-古峙嶺)

十月十日

水曜日

晴天

氣温(一七.〇)

大 軒 滞 在

右之報告より南部準備區司令官ニ報告ス

午後十時八郎警務署より九通報を受

梁川分隊所報告

- 一、十時前八時申角石率ニ幕後三苗余名奉化郡ヲ襲撃手ニ向地ニシテ巡查四名
兵五名、面方高地昇リ時應戰トモ少敵、為ノ遅却トモ匪徒ハ郡衙及附屬建物警
務分所、巡検、主事、書記、其他民衆ニ故火ニ村内全部ヲ燒燬ス(民衆千
九燒失、四個殘心)巡查、擄劊ニ、外倉三、其他物持品ヲ持去リ、此急報擄小官ハ
巡查巡検ヲ率ニ舟備隊共ニ急行約五里ヲ追撃ニ敵ニ多大損傷ヲ加ヘ、其主力ハ
直峯ヲ越ニ三涉郡界大白山中ニ入リ、我々損傷シ合儀、巡查下兵八名、梁川ニ引揚リ
- 二、十時前七時李康平、率之約一百名ト中屯、石ノ率之約三百、幕後ハ派方
面ニ未ク燭照ヲ襲撃手ニ尺ヲ放テ分隊所、郡衙、建初及民衆約一八〇名
燒却シ三個殘心)巡查、劍ニ外倉ニヲ奪ヒ取春郡界ニ入リ、能成討兵二五ノ率ニ
追撃中
- 三、當時分隊巡查二、六七、奉化郡、出張中ナリシ
- 四、事件及奉化、襲撃ノ安東準備中隊、當權員ニシテ除、出未事ナリ
- 五、幕後益々猖獗、奉化、順興、豊基、不穩

在敵告ハ直ノ之ヲ南部準備區司令官ニ提出ス

同時老州不敵ノ死ヨリ九ノ要旨、電報報告ヲ受

下士以下十名本日午後六時出發昌平ニ一泊明日谷城ニ到着セム

11월 14일 목요일 맑음 기온(18.0도)

대구 체재

(풍기 부근 토벌에 관한 남부 사령관 명령)

오후 2시 여단으로부터 아래의 명령을 수령함.

명령

11월 14일 오후 2시 대구 사령부에서

- 一. 봉화, 순흥, 풍기 부근의 폭도는 약800명으로서 심히 猖獗해 가고 있음.
- 二. 남부 수비대는 충주 부근의 수비대와 서로 호응하여 이 폭도들을 토벌하고자 함.
- 三. 보병 제 14연대장은 赤司 소좌로 하여금 대구 수비대의 1개 중대1개소대 결, 밀양 수비대의 1개 소대 및 기병 소대半個 소대 결, 기관총 2문을 지휘하여 내일 15일 대구를 출발하여 당분간 풍기에 주둔하면서 그 부근의 폭도를 토벌하도록 할 것.
- 四. 경상북도 북부를 수비 중인 보병 제14연대 제4중대 및 보병 제47연대 제1중대를 일시적으로 전향의 대대장 지휘하에 둔다. 나아가 정황상 필요하다면 문경 및 함창 수비대를 適時 사용할 수 있음.
- 五. 토벌에 필요한 군량은 상당 부분 현지 조달로 해결 시키도록 할 것.

남부수비관구 사령관 대리 菊池主殿

注意 보고는 가능한 한 신속한 수단을 사용하여 매일 적어도 1회 제출할 것.

위의 명령에 대하여 즉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보병 제14연대 명령

11월14일 오후2시 대구에서

- 一. 이강년李康季, 신돌석, 신각용이 이끄는 약 800명의 폭도는 봉화, 순흥, 풍기 부근에 출몰하여 심히 창궐함을 더하여 가고 있음. 남부 수비대는 충주 부근의 수비대와 호응하여 이 폭도를 토벌하고자 함.
- 二. 연대는 이 폭도들을 토벌하고자 한다.
- 三. 赤司 소좌는 제3중대1개 소대 결 및 제12중대의 1개 소대, 기병 반 소대 및 기관총 2문을 이끌고 내일 15일 대구를 출발하여 당분간 풍기에 주둔하면서 그 부근의 폭도를 토벌할 것.

四. 赤司 소좌는 풍기 부근에 이르면 征矢野 중대 및 보병 제47연대 後藤 중대를 함께 지휘할 것. 그리고 정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문경, 함창 수비대를 적시 사용할 수 있다.

五. 행동하는 동안의 군량의 상당 부분은 현지 조달할 것.

보병 제14 연대장 菊池 主殿

(제4중대 폭도 토벌 보고)

二. 안동 수비 征矢野 대위 보고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안동 수비 제4중대 풍기 방면 폭도 토벌 정황 보고 9월 9일 榮川에서

11월 3일 안동 출발 오후 7시 榮川 도착

11월 4일 榮川에 체재하며 풍기 주재의 순검대를 이용하여 단양 부근의 적 상황을 살피게 함.

또한 野正 상등병 이하 3명으로 구성된 척후에게 순검 1명을 딸려 보내어 모두 한복으로 변장하고 부근의 적 상황을 살피게 함.

11월 5일 오전 7시 野正 척후로부터 아래의 보고를 받음.

一. 죽령 및 鷹谷동 부근은 사람의 자취없이 적막한 상태임. 또한, 죽령으로부터 단양에 이르는 도로에는 평상시와 비교하여 통행인이 전혀 없음. 그리고 현지 주민의 가옥은 모든 짐을 정리하여 흡사 빈 집과도 같음.

二. 현지 주민의 말에 따르면 폭도의 主力은 단양읍에 있고 약 반수는 後坪리에 있고 단양을 지나 약 1리, 그 숫자는 합하여 약 300명.

三. 장림역에는 적도의 보초 및 척후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음.

四. 단양의 폭도로 인하여 4일간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소금 상인으로 오늘 소금을 그대로 둔 채, 도망해 오고 싶다고 하는 자의 말에 따르면 敵魁 이강년李康年은 병으로 인해 단양읍내에 있다고 함.

같은 시각 재 풍기 순검대장 朴警視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통보를 받음.

11월 6일 중대는 榮川을 떠나 풍기에 들어 와 아래와 같이 담당 업무를 배정함.

一. 熊澤 소대는 墓直령 및 邦峠을 거쳐 내일 오전 5시까지 단양 남방의 고지를 점령하도록 함.

二. 川村 소대는 오전 4시 반 장림 및 후평의 적을 단양 방면으로 쫓아 내고 계속하여 본

가도를 따라 단양을 공격하도록 명함. 스스로는 제3소대를 이끌고 오후 5시 죽령에 도착함.

11월 7일 오전 2시 죽령을 출발하여 단양으로 향하였으나,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오전 9시 川村 소대를 魁坪리로 파견하고 중대도 이곳을 향하여 나아감. 오전 11시 동방향에서 총성이 들렸으며 11시 40분 川村 소위의 보고를 받음.

一. 폭도는 괴평리에 있었으나 소대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때가 늦어 主力은 이미 그곳의 남방 1000 미터의 최고지 능선을 동방으로 향하여 퇴각 중이었음. 그 병력은 검은 옷을 입은 자 약 100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상임.

二. 소대는 최초에 골짜기 입구에서 사, 오인 초소를 발견하여,, 河田 군조의 지휘하에 반 개 소대를 그곳 바로 뒤의 북방 고지로 보내어 점령 시키고 나머지 소대는 스스로가 지휘하여 도주하는 보초를 추격, 숙영지에 돌입하여 당황하는 폭도 십 수명을 사살한 후, 그 바로 앞의 남방 고지를 점령하여 남, 북에서 상응하여 주력과 함께 가지 못한 잔당을 괴롭혔음.

三. 적의 주력은 퇴각을 중지하고 잔당 원호를 위하여 그 지점의 동남방 일대의 고지 능선을 점령하여 우리를 향해 맹렬히 발포함. 현재 800 내지 1000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교전 중임.

四. 이제부터 소대는 적의 좌익으로 돌진하고자 함.

五. 중대는 가도를 통해 죽령으로 급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아마도 적은 죽령 방면으로 나오려고 할 것임.

동시에 아래 요지로 川村 특무 조장에게 통보함.

一. 10시 40분 발 보고를 수령하였음.

二. 중대는 가도를 따라 죽령을 향하여 전진할 것임.

三. 귀관은 적의 좌익 쪽에서 추격하여 永春 방면으로 격퇴 시키는 데에 주력할 것.

오후 2시 중대가 鷹岩洞 서북방 고지에 이르렀을 때에 적의 일부는 같은 부락의 동북방 고지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적의 주력은 응암동 방면으로 도주 중이었음.

같은 시각 중대는 응암동 서북방 고지에 散開하여 700 미터 조준기를 사용하여 전투를 개시, 적을 대규모로 요격하였음.

오후 2시 25분 응암동 동북방 고지의 적은 퇴각을 개시하였음.

오후 2시 45분 중대는 위 고지를 점령하고 응암동 북방 골짜기를 향하여 퇴각하는 적을 맹렬히 공격함. 적은 사분오열 되어 흩어짐, 때마침 내리는 눈과 골짜기의 험한 지형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종적을 찾을 수 없게 됨. 생각컨대, 주력은 永春 方面으로 퇴각한 듯함.

적의 사상자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사, 오십 명은 넘을 듯함.

우리 군은 사상자 없음.

노획품 화승총 4, 소모탄 수 962 발.

이 전투에서 부상한 포로 김 재희의 말은 다음과 같음.

음력 9월 26일 8일 전 북제천 폭도의 척후에게 붙잡혀 別陣에 편입 되었음. 그 부대의 지휘자는 성을 김씨라고 하나, 이름은 모름. 당일 그 부대의 인원은 34명으로서 그 날 밤은 제천군 북면 某동에 숙영하였음. 그 동네에서 흰 무명 11필, 짚신 20 켤레를 징발하여 각 부하에게 나눠 주고 익일 점심 식사 후 그 곳으로부터 10리 떨어진 某동에 숙영함. 익일인 28일 아침 식사 후 20리 떨어진 某 촌락에 이르러 점심 식사. 그 곳으로부터 흰 무명 2필, 짚신 30 켤레를 징발하여 부하들에게 나누어 줌. 다시 30리를 행진하여 단양과 예천 양 군의 경계가 되는 傍谷동에서 숙영함. 그 곳에서 짚신 30 켤레를 징발함. 29일 단양군 괴평으로 갔는데, 그 즈음 괴평에는 도당 약 70명으로 이루어진 大陣이 있었음. 도당 약 400명으로 된 단양의 본진으로부터 다시 70명이 괴평으로 올 것이라고 함. 본진으로부터 아직 이들이 오기 전인 28일 저녁 후에 진을 괴평으로 옮겼음. 단양 남면의 면장으로 하여금 동북 20 벌을 바치게 하여 각자 나누어 입고 이 大陣은 동일 일본병과 교전하였음. 이 때 일본 병의 선두에는 일진회원이 있었고 아마 31일 야군의 풍기 수비대와 교전한 것으로 보임, 일진회원 및 일본 병 다수의 손해가 있었던 것 같으나 그 숫자는 불분명함. 大陣은 韓兵이 섞여 있었고 진중에는 別陣 韓兵 5명, 탄환 총 10정이 있었음. 日兵 100여명이 괴평 부근을 급습하여 온다고 하여 당황하여 패주할 때에 붙잡혔음. 진중에는 10혈포 1자루, 5연발 1자루가 있었음. 大陣의 대장은 李雲康 李康年 字雲康*이고 도선봉의 將은 姓이 河이고 이름은 모르며, 좌선봉의 將은 姓이 白이고 이름은 모름.

* 李雲岡 李康季 字雲岡의 오기

오후 6시 중대는 죽령에 집합하였으며, 그 지역 부근의 정찰은 순검대 및 풍기 주둔대에 명하고 동일 밤 풍기로 귀환하였음.

11월 8일 봉화 방면에는 많은 폭도들이 집합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중대는 일시적으로 榮川으로 철수하고 밀정 및 병력을 이용하여 제 정보를 정찰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풍기에서 철수하여 오후 2시에 榮川에 도착하였음.

오늘 봉화 분둔대의 아래와 같은 보고를 받음.

一. 박선달의 본대는 현재 삼척군 황지리에 있으며 그 수는 육, 칠백 명 이상으로 곧 대거 봉화를 습격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음.

二. 금월 4일 밤 춘양면 면장 집에 의병의 심부름꾼이 와서 別紙를 투입하고 갔음.

三. 4일 의병 약 50명이 황지리 방면에서 소천면 고개리로 와서 재물을 약탈함.

11월 9일 어제 8일의 정황에 따라 오늘 봉화 및 순흥에 아래와 같이 인원을 보냄.

봉화에 하사 이하 10명, 순흥에 하사 이하 7명

오늘 봉화 분서에서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음.

一. 오늘 오전 7시 현지 주민의 보고에 따르면 의병 80명이 춘양면 서벽리에 와서 호언하기를 본대 약 800명이 계속하여 올 것이라고 함.

二. 오늘 현동 방면에 나가 있는 사령 및 갑부령 방면에 나가 있는 순검의 보고에 따르면 어제 8일 오후 8시 폭도 350명이 서벽리에 도착하여 당지를 습격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고 함.

三. 방산면 주민의 보고에 의하면 同면의 지방에도 의병 50명이 출몰하고 있다고 함.

四. 어제 8일 오후 0시 80명의 의병이 춘양면 서벽리에 와서 본대 800명 정도는 後援隊로서 와서 함께 봉화 분파소를 습격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으며, 사태 수습이 용이하지 않을 듯 하다는 현지 주민의 어제 밤 보낸 急報가 오늘 오전 7시에 도착하였음. 이에 즉시 정,이 양 순검은 갑부령 길로 보내었고, 郡衙에서도 사령 2명을 本道로 보내 정찰하게 하였던 바, 보고된 실황은 동일하여 아래와 같음.

五. 의병은 대장 邊鶴基안동군 봉산 출신, 선봉장 최 某, 포군장 윤 某 등이 이끄는 부대로 선봉대로서 어제 8일 오후 0시 60명, 후원대로서 오후 8시 350명 춘양면 서벽리에 도착하여 합계 500명 이상의 다수가 되어 그 곳에 체체중인 바, 오늘 저녁 현동 방면으로 밀고 들어 오려는 상황. 그들은 일거에 분파소를 습격할 것이라고 호

언하고 있는 듯함.

六. 韓兵이 섞여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검은 옷을 입은 30명 정도는 韓兵일 것으로 생각됨.

위 상황에 비추어 보아 현재 서벽리에 집합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방금 방산면의 주민으로부터 오늘 오후 1시 동 면 현동에 의병 50명이 습격하여 郡 衙에서 출장 나온 서기를 포박하고 이어서 그 동민 등을 포박 난타하여 금전을 강탈 하고 있다는 급보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

위와 같은 정황에 따라 중대는 내일 아침 일찍 봉화 방면으로 전진하기로 결정함.

전향의 征矢野 대위의 보고는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 하였음.

11월 16일 토요일 맑음 기온(21.0도)

대구 체재

동 12시 동 분대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2차 보고가 도달함.

1. 동 7시 40분 현지 주민의 보고에 의하면 순흥 방면에서 총성을 들었다고 하고, 이어 서 순흥 군수로부터 급보를 받아 스스로 병졸 3명을 이끌고 급히 가던 중, 순흥 군수를 만나 정황을 듣고 이를 파악한 후 서둘러 전진하여 순흥읍에서 600미터 떨어진 서방 고지를 점령하여 적상을 살펴 본 후, 읍내로 나아가 보니, 폭도는 읍내 일대에 방화한 후 일부는 永春 방면으로, 일부는 삼척 방면으로 퇴각하였다고 함. 또한 200명은 소천장 방면으로 일부는 고사고개를 거쳐 永春으로 퇴각하였다고 함.
2. 분대는 단산동 및 곡동까지 추격하였으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었음.
3.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강년李康年 및 신돌석이 합세하여 습격한 것으로 2/3는 총을 가지고 있었으며 韓兵 약 오,륙 십 명을 보았다고 함.
4. 순흥읍에 맡겨 두었던 小西 상등병 이하 7명의 외투는 가져 가버렸다고 함.

11월 12일 오전 1시 村川 특무조장으로부터 아래의 보고를 받음.

1. 어제 10일 오후 2시 20분 榮川을 출발하여 본가도를 급행해서 동 7시 10분 봉화에 도착하였음.
2. 봉화읍은 한 채도 남김없이 전소되어 실로 참담한 상태임
3.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폭도들은 도주하였고 파견 분대의 소재는 불명한 상태이며 적의 상황을 알 방법이 없음. 그래도 일동은 분기 탕천하여 적도들을 공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므로, 결국 춘양 방면으로 전진하기를 결정함.
4. 동 8시에 봉화를 출발하여 보전봉화 동북방 1리 반에 이르러 들은 바에 의하면 적은 그 부락에서 3石的 저녁밥을 지을 것을 명하였으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縣道봉화 북방 3리 강방면으로 퇴각하였다고 함. 폭도들은 적과 邊鶴喜*가 이끄는 검은 옷을 입은 자 약 70명이 포함된 300여명의 세력으로 대부분은 화승총을 가지고 있고, 약 20정의 巨羅銃과 함께 충분한 휴대품을 가지고 있음.

* 邊鶴喜의 오기

5. 적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충분히 소지한 상태라면 추격이 매우 쉬울 것으로 보여 기뻐하며 일동은 그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동11시 50분에 퇴각로를 따라 출발하여 전진함.
6. 익일 오전 1시 20분 수청거리에 이르렀음. 일본인에게 편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연행되어 난타 당한 후 농임을 받은 현지 주민의 말에 따르면 폭도 300여명은 縣道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오후 8시경 서당동현도에서 1리 반 골짜기 안에서 숙박한다고 말하였다고 함.
7. 동 3시에 그 곳을 출발하여 4시에 현도에 이르러, 아군의 노상 척후는 마을의 끝자락에 보초 같은 자 2명을 발견하였음. 발포하면 적에게 알려질 것이므로 이들을 잘 포위하여 창검으로 찔러 죽이고 화승총 2정을 노획하였음. 계속하여 보초가 있던 집 주인을 포박적의 일부는 서당동에, 주력은 竹峙동에 숙박하고 있음을 자백함하여 적의 숙영지로 향도하도록 함. 또한 그 마을에는 폭도 수 명이 잔류하고 있음을 탐지하였으나, 행동을 지연시킬 경우 오히려 주력을 놓칠 염려가 있어 그대로 전진함. 수 백 미터 가자 수 발의 사격을 받았는데 그 때가 오전 4시 30분이었음.
8. 일동은 일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였지만 어쩔 수 없다고 결의하고 급속도로 주력의 숙영지를 습격하기 위해 전진을 계속하여 오전 6시 30분 竹峙동 바로 뒤의 고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병졸 4명을 그 고지에 두고, 百合野 軍曹 이하 3명은 적의 퇴로가 되는 곳의 바로 앞 능선을 점령하게 함. 나머지는 여러 부락에 돌입하였으나, 적은 縣道の 총성으로 지금 출발하였다고 함. 일동을 더 한층 용기를 내어 河田 軍曹, 山崎 상등병을 선두로 하여 수개의 능선과 계곡을 오르내리며 약 1500 미터를 맹진하였으나, 역시 적은 장암동서벽리에서 봉화 가도상으로 약 1리 반 송림중에서 불을 피우고 도당을 기다리고 있는 듯함. 즉시 600미터를 사이에 두고 맹렬하게 사격을 가해 즉시 수 명을 사살. 적은 크게 당황하여 韓馬를 탄 적과 2명은 재빠르게 가도를 타고 서벽리 방향으로 도주함. 나머지 등산이 뛰어난 무리는 금방 수십 척 높이의 능선에 올라가 우리를 향하여 맹렬한 발포를 개시하였음. 그 시각은 오전 8시였음.
9. 이에 소대는 사격을 중지하고 百合野 軍曹 이하 5명으로 하여금 본도를 따라 추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산 위쪽으로 급격히 추격하여, 3시간 여의 전투를 벌임. 적은 큰 손해를 입고 16구의 사체를 유기한 채, 지리멸렬하여 전혀 응전하지 않고 퇴

각을 개시하였음. 소대는 잠시 더 추격하였으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드디어 전투를 중지하였음. 적의 대부분은 태백산 및 古直嶺*을 넘어 삼척군내로 도주한 것으로 보임.

10. 우리쪽은 손해가 없음. 적의 부상자는 상세하지는 않으나 삼,사십명은 넘을 것으로 보임. 노획품 화승총 5, 납탄 및 화약 약간.

11. 기타 무명, 짚신, 양산 등 몇가지의 물품이 있었으나 운반 곤란이므로 모두 파괴 또는 소각함.

12. 소모탄 수 452 발

13. 정오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 장암동 출발,갑무령을 넘어 동 8시에 내성에 도착하였음.내일 12일 귀영할 예정.

12일 정오 川村 특무 조장 이하 15명은 예정대로 무사히 귀영하였으므로 熊澤 소위로 하여금 하사 이하 23명을 이끌고 오후 1시 榮川을 출발하여 이강년李康季, 신돌석 일당을 추격하여 永春 방향으로 진격하게 함.

오후4시 안동 영주간의 우편물 배달인의 보고에 의하면 오늘 오전 7시 30분 안동에서 0.5리 떨어진 지점에서 한 사람의 韓人을 遭遇하였는데, 그 韓人은 길옆으로 도망하므로 수상히 여겨 그 도주 방향을 주시하다가 아래의 서한을 습득하였다고 함. 이 서한에 관한 관계자는 각자 경찰에 통지하여 속히 포박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음.

아래

좌기

안동 안기리 거주 조성문[내휴]께 보내는 답장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서리 내리는 이때에 기체후는 평안하고 집안 식구 모두의 상황은 각기 고루 좋으십니까? 일전에 군중에서 만나 이야기 한 것은 어떠합니까? 부내 일본 왜인 가산의 수, 군중에서 행왜行倭 한 병졸의 수와 이름을 조속히 통기해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도보로 떠난 행왜 길 몇 리 내를 나날이 왕래하니 풍기에 거하는 의병은 600여 인이고, 선산 달령에 거하는 저의 군졸은 400여 인이며, 단궁 마평에 거하는 군졸은 900인입니다. 풍기 내 동면은 이달 25일 내로 막내아우 분 상인의 아래

* 古置嶺의 오기(현재 지명표기-古峙嶺)

11월 18일 월요일 맑음 기온(12.0도)

대구 체재

5. 안동 수비대 제4 중대장 征矢野 대위 보고 요지 11월 14일

안동 수비대 제4중대 폭도 토벌 정황 보고

11월 13일 전에 순흥 방면 폭도 추격을 담당 시킨 熊澤 소대로부터 다음의 보고를 받음.

11월 12일 오후 10시 덕산순흥 동북방 약3리발 熊澤 소위 보고 오늘 아침 순흥을 습격

폭도들을 추격하여 고치령 산밑까지 밀어 부치고 심하게 공격함으로써 이를 고개 이북으로 격퇴하였음. 동 11시30분 전 고치령을 점령하고 일부는 계속하여 추격하고 있음. 이 폭도들은 이강년李康季의 일단으로서 여전히 단양, 永春, 영월 각 군내의 주민 다수를 끌어들이며 대략 400명을 밀돌지는 않음. 순흥군수의 호소에 의하면 동 군의 읍내 및 부근 촌락은 이들로부터 약탈의 피해가 막심하여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형겔 조각까지 가져 간다고 함. 적의 시체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약 2시간에 걸친 공격으로 적은 흩어져서 북방으로 패주하였음. 우리 군은 손해를 입지 않았으나, 하사, 병졸은 거의 2주야간 수면을 취하지 아니한 채 먼 길을 강행군한 데다가 저녁 식사도 하지 아니하여 13일 오전 1시 덕산으로 귀환하였음. 또한 앞으로 계속하여 이 적에게 타격을 가하기로 결심하였음.

오후 3시 도착하여 순흥에 체재하는 熊澤 소대의 보고 요지

어제 밤 이래의 척후 및 현지 주민으로부터 얻은 정황 보고에 의하면 패퇴한 적은 영월군 곡구덕산 북방 약 5리에 집합하였다고 함. 또한 그 일부는 위풍덕산 북방 약3리부근에 집합하였고, 기타 서벽리에는 사, 오백 명의 폭도가 있다고 함. 따라서 소대는 순흥, 삼척 가도 및 삼척 榮川 가도를 경계함과 함께 순흥군 내의 안녕을 회복하기 위하여 순흥으로 귀환하고 永春 및 서벽리 방향의 적적을 계속하여 살피고 있음.

11월 14일 오전 6시 봉화 부근 질서 회복과 서벽리 방향의 적정 파악을 위하여 하사 이하 8명을 보조원과 함께 봉화 방면으로 파견하였음. 동일 오후 4시 안동 분과소 近藤 警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보를 받음.

11월 12일 예안 분과소 靑木 巡查의 보고에 의하면 11일 밤 5시 30분 경 예상한 대로 적도의 습격을 받아 사면 포위된 상태에서 2시간에 걸쳐 분전하여 일방의 대적을

격퇴하였으나 결국 읍내의 약 30호는 적에 의하여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었음. 적은 우리의 분투를 두려워하여 전부 봉화 방면으로 도주하였다고 함. 이들 폭도는 신돌석의 일단인 듯 하다고 함.

동일 오후 7시 봉화 방면으로 파견한 하사 이하의 척후가 귀환하여 보고한 바에 의하면 현동 부근에는 췌이 이끄는 약 300명의 폭도가 다시 나타나 민심이 흉흉하다고 함. 또한 서벽리에는 약 700명의 폭도가 집합하여 있는 듯하다고 함. 따라서 중대는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이 곳의 토벌에 착수하기 위하여 재 예천 수비대의 수비구역 변경을 계기로 해서 그 곳에 榮川 및 풍기 방면의 수비를 부탁하고 그 부대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늦어도 내일 15일 중으로는 순흥 및 봉화 방면에서부터 태백산 아래 지역을 향하여 행동을 개시하고자 함.

六. 제1 중대 葛券 소위의 보고

선유사 호위대 정황 보고의 요지

一. 10월 25일 오전 8시 30분 대구를 출발하여 군위, 의성, 안동, 예안, 봉화, 榮川, 순흥, 풍기, 예천, 용궁, 문경, 함창의 각지에서 선유하고 11월 14일 상주를 거쳐 15일 오후 11시 대구에 귀환 하였음. 선유를 위하여 집합하기는 60명부터 많게는 500명에 이르렀음. 선유사는 기타 여러가지의 예증을 들어 누누히 설명함으로써 각지마다 愚民에 이르기 까지 능히 뇌리에 침투된 듯하며 선유하는 중에는 매우 조용히 경청하였음.

十月十八日 月曜日 晴天 氣溫(二二)

大町滞在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十月廿日 五軍辰舟隊第四中隊長佐野大尉報告 要旨 十月廿日

11월 24일 일요일 맑음, 바람 기온(8.0도)

대구 체재

오후 7시 榮川에 파견한 赤司 소좌로부터 아래의 전화 보고여단 경유를 받음

11월 24일 榮川발

- 一. 永春 남방 약1리소백산 북쪽 기슭 골짜기 성곡동, 흑점, 코우크점, 박월령 부락에 적 약 500명이 숨어 있으며, 이강년李康季은 현재 성곡동에 있음. 봉화 동방 10리의 춘양 면에는 변학기가 부하 200명을 이끌고 잠복하여 있다고 함. 단양 부근으로 계속 하여 모여 들고 있던 폭도들은 단양 수비 보병 제 47연대의 1개 소대로 인하여 청 풍 방면으로 격퇴 되었음.
- 二. 이상의 정황에 따라 대대는 어제의 계획을 중지하고 내일 해 뜰 무렵에 제3중대 및 보병 제 47연대의 1개 소대로 하여금 永春 부근의 폭도를 엄습하도록 하고 제 4중대로는 봉화 동방 춘서면의 폭도를 엄습하게 할 것임. 약 1주간의 예정으로 오늘 아침부터 착수함.
- 三. 예천 수비대로 하여금 赤城 방면의 적정을 정찰하도록 할 것임.

계속하여 고부 수비대 제6중대장 中原 대위로부터 아래 요지의 전보를 수령함.

고부는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기 쉬운 곳임. 정읍은 이 곳에서 2리 떨어지 곳으로 척후를 통하여 용이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읍에는 적당한 숙소가 없어 고부가 적당한 수비지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상신하였음.

따라서 정읍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취소할 것이라는 취지를 전보로 명령해 두었음.

十月二十四日

日曜日

晴天風

氣温(八〇)

大 如 滞 在

午後七時崇川渡道岳同死マシテ死(電話)報告(教團)ヲ受ク

十月二十四日午燐五時茨川發

一 永春南子 約一里(小川)城谷洞 黒臭、ヨリ、店、朴月峯各部が、賊徒約五百潛匿

シテ南子李康連同下坂各洞ヲリ奉化東方重春西南ハ潜藏基部下百名ヲ

率ニ潜伏シテ丹陽附近ニ集合シテヨリ、賊徒丹陽南備步兵第五聯隊一小隊

ノ為ニ酒風方向警備退シテヨリ

二 以上情況ヨリ大隊、昨日計畫ヲ中止シ明辨曉ヲ期ニ第三中隊及步兵第五聯隊

一小隊ヲシテ永春附近ニ集結シテ掩撃ヲセシ重春中隊ヲシテ奉化東方春西南ニ集結シ

掩撃ヲセシトス約一週間、隊定ヲ以テ今朝ヨリ美南子ヲ

三 韓永春備隊ヲシテ赤城方向、賊情ヲ偵察セシトス

竊ニ古阜井備隊第六中隊長中原大尉ヨリ九記要旨ハ電報ヲ告グ收ク

古阜、諸方面行動ニ容易ナリ井邑ハ當地ヲ距レ二里シテ下候ヲ以テ容易ニ保

ヲ維持シ得、又井邑及其附近ハ適當ニ備合シテ故古阜ヲ適當ニ備地ト思ヒ

不志見上申ス

依リ井邑ハ移轉、命令ヲ取消ス首尾報告命令シ置ケリ

11월 26일 화요일 맑음 기온(7.5도)

대구 체재

11월 18일 오전 1시 조도령을 출발하여 오전 6시 황지리에 도착하여 즉시 현지 주민 한 사람을 앞세워 적과 및 적도들의 숙박하고 있는 가옥을 남김없이 포위하고 총검을 겨누고 가옥에 돌입하였음. 적은 전일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 경계를 풀고 대부분 숙면 중이었음.소대의 돌격으로 당황하여 도주를 꾀하였으나 소대는 맹렬히 돌진하여 수십명을 찢러 죽이고 적의 수괴인 김생산을 생포하였음.

오전 7시 지나서 적의 수괴 정중군으로부터 김생산에게로 파견한 전령적도임 수 명이 왔으므로 이들을 남김없이 생포함.

이 일 후에 소대는 포로의 심문 및 노획품의 처분에 착수함과 동시에 밀정을 보내 가곡황지리에서 약4리의 적 상황을 정찰하도록 함.

11월 19일 오전 6시 밀정이 돌아 와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가곡의 적은 어제 18일 日兵 12명과 충돌하여 울진 방면으로 도망하였다고 함.

18일의 급습으로 인한 적의 사체 50, 노획품은 총 20, 탄약 600, 화약 20근, 화승총 다수, 의류 15점, 무명 10필, 승마 2두, 쌀 약 2석, 짚신 100여 켤레, 서류, 인감, 기타 잡품 수 점 있음.

우리 군은 사상자 소모탄 없음. 단, 격투 시에 총 1정이 반상으로 부러짐.

김생산의 자백 개요.

- 一. 삼척군 동산리 거주, 연령 50세, 한복 및 도기상을 경영하는 한 편 농사를 업으로 하며 자산은 없음. 군수의 추천에 따라 금산의 장이 되었음.
- 二. 올해 8월 閏 특무조장의 권유로 의병에 투신하였으며 당시 휘하에 砲軍 이, 삼십 명 있었음.
- 三. 항상 삼척군내에서 행동하며 의병을 모집하고 군수품을 조달하여 여러 번 閔, 邊, 李 등의 적괴에게 공급하였음. 또한 정중군에게도 1회 공급한 적이 있음.
- 四. 이강년李康季은 단양, 변학기는 안동, 민영호는 원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주거는 알지 못하며 또한 정중군의 출신지는 알 수 없고, 신돌석의 이름은 들었으나 그 소재지는 모름.

정 중군은 울진으로 갔음.

변학기는 4일 전 200여명을 이끌고 이강년李康季과 합세하기 위하여 단양으로 갔음.

이강년李康季은 아마도 단양에 있을 것임.

五. 겨울철이 되면 부하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 가도록 하고 자기 자신도 역시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六. 이 번에 황지리에 있게 된 것은 閱의 청구에 따라 탄약, 무명, 양식을 각 면장에게 통고하여 조달하기 위한 것임.

七. 전부터 의병의 물자 조달은 각 면장의 불평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스스로가 의병에 참여하여 온당한 수단으로 군수품을 조달하여 군내의 약탈을 피하게 하고자 알선한 것임.

八. 閱의 거짓말을 믿고 日軍이 한국에 온 이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황제 폐하의 詔勅도 모른체, 오늘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어 후회막심함.

그들 민, 이 등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밝히 알고 있었을 것임.

자기 자신은 지금부터 日軍을 위하여 그들을 붙잡아 죽이고자 함. 자기 자신 오늘까지 의병에 참가하여 왔으므로 참살형을 면할 수 없을 것임 운운,
따라서 이 두 가지 보고를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함.

十一月十八日

大霧

晴大

氣溫(七五)

大 邱 道 庄

十一月十八日午前時鳥道谷、發し午時大時貴比里、到り先づ一人ヲ先導せし、軍
取懸し賊、成、和泊り、臥屋、悉く包圍し、鉄劍、以て、臥屋、及、突、入、賊、前、日
來、舟、兩、隊、警、戒、敷、大、聲、執、呼、り、小、隊、突、撃、連、激、頭、逃、走、令、小、賊
猛、追、致、十、七、名、到、家、賊、料、金山、生、獲、云

十一月十八日、時、過、激、懸、對、付、隊、も、金山、許、激、追、も、備、令、賊、伏、し、致、名、未、し、此、中
悉く之、生、獲、云

是、於、小、隊、停、肩、訊、問、獲、告、獲、分、着、中、え、し、南、時、各、獲、し、各、名、書、記、す
賊、狀、向、卷、云

十一月十九日、午前、時、過、激、偵、察、不、其、報、曰、可、及、賊、昨、十、八、日、兵、十、二、名、衝、突、前、
隊、向、進、走、云

十八日、急、襲、於、賊、死、傷、五、十、餘、獲、巨、銃、十、彈、藥、六、百、火、藥、約、千、斤、火、銃
哥、數、衣、類、十、五、袋、木、綿、十、匹、草、蓆、二、頭、木、約、若、草、鞋、百、余、足、重、類、記、録

其他、雜、品、數、袋、云

金山、生、山、白、白、二、概、要

一、三、洋、隊、東、山、生、任、年、齡、十、才、英、服、及、陶、器、南、宮、信、藏、長、米、十、石、資、庫、
脚、手、推、送、り、金山、長、云

一、年、月、間、將、務、曹、長、勸、誘、成、り、賊、共、投、下、虎、窟、止、十、七、名、
三、層、三、層、即、成、り、動、之、賊、共、の、居、集、し、軍、備、糧、食、諸、品、ヲ、調、達、し、屢、々

調、達、し、全、賊、懸、伏、給、り、南、郭、仲、軍、之、三、回、供、給、せ、し、り

以、李、康、是、舟、陽、邊、鶴、基、之、東、國、賊、編、廣州、者、之、知、之、其、住、居、ヲ、知、之、又、鄭
仲、軍、出、來、知、之、白、虎、石、名、之、習、之、居、之、其、處、在、ヲ、知、之

鄭、仲、軍、小、隊、向、來、云

邊、鶴、基、西、前、百、余、名、李、康、延、召、之、為、舟、陽、向、
本、李、康、延、受、命、舟、陽、在、云

此、冬、李、康、延、之、部下、小、隊、將、各、其、家、之、賊、之、已、亦、其、業、復、心、是、
大、分、南、宮、池、里、之、小、隊、請、水、之、彈、藥、木、綿、糧、食、之、各、向、次、進、音、之、調

辦、之、為、
此、邊、未、裁、大、知、實、調、達、各、面、長、下、事、也、以、之、句、之、裁、加、之、種、官、
之、字、致、及、李、康、常、另、調、達、即、日、隊、隊、難、免、之、也、斷、決、
八、間、為、言、信、し、軍、邊、詳、報、南、宮、知、之、大、隊、團、軍、席、下、之、詔、勅、也

知、之、全、言、信、し、知、之、信、悔、恨、極、云

使、閑、在、軍、此、等、之、知、之、明、知、之、居、之、也、云

已、前、李、日、軍、為、之、勵、之、收、者、之、權、杖、之、已、之、會、道、最、大、加、之、云

以、之、斷、殺、利、之、也、云

依、此、兩、報、告、南、郭、牙、備、隊、區、自、存、信、報、告、云

11월 29일 금요일 맑음 기온(10.0도)

대구 체재

동일 밤 榮川에 파견한 赤司 소좌로부터 다음의 전화 보고를 받음

11월 28일 오전 5시 30분 榮川 발

1. 鳥飼 대위가 이끄는 제3중대의 주력은 26일 오전 8시 수발동榮川에서 동방 1리의 서방 약 1리에 있는 험한 고개에 이르렀음. 적 약 500명의 집단이 용감하게도 永春 방향에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여 왔으며 눈 아래로 보이는 교량에 진지를 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우리는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 보며 사격을 가하여 이들을 크게 무찔러 죽임. 적들은 완강히 저항하여 왔으나 돌격하여 이들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게함. 적의 주력은 榮川 동방 1리의 지점에서 遲頭강을 건너 강 우측으로 퇴각하였음. 또 그 일부는 永春 부근에서 강 우측으로 또 일부는 해일 방향으로 퇴각하였음. 중대는 이를 추격하여 용진에 이르렀음. 적도들은 지두강 右岸으로 몰려 와 다시 저항을 해 왔으므로 중대는 水深 약1미터의 지두강을 도보로 돌격하여 오후 3시 30분 동북방 산지로 격퇴하였음. 당일의 전투는 5시간을 계속하였는데 적의 손해는 막심하여 사체 60, 부상자는 확실치 않으나 100명은 넘을 것으로 보이고, 노획품은 총기, 탄약 다수임. 長岡, 河野 소대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음. 河野 소대는 26일 오후 1시 寶鉢永春 서남방 약 3리 부근의 골짜기에서 적150명과 맞닥뜨려 격퇴하여 추격 중, 다시 다른 약 150명의 적을 만나 이를 격퇴하여 永春 서남 약 2리 지점으로 추격하였음. 적의 주력은 보발의 동북방으로 일부는 永春의 서쪽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임. 적이 버리고 간 시체 30, 부상자 수 확실하지 않음. 河野 소대(보47)는 26일오후 3시 30분 永春 남방 약 1리 부근의 골짜기에서 폭도 약 200명을 만나 완강히 저항하는 적의 진지에 소대의 주력(9명)이 돌격하여 사방으로 도망하게 하였음. 적의 주력이 동방의 산중으로 퇴각하였으므로 지체없이 추격하였으나 일몰과 함께 눈이 내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추격을 중지하였음. 이 전투로 인한 적의 사체 35, 부상자는 확실히 알 수 없음. 포로의 말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래 적도들은 영월 동방에서 永春으로 이동하여 그 병력을 寶鉢 부근으로 집결시켰다고 함. 이강년李康季도 25일 밤 永春에 왔으며, 전일부터 鳥飼 중대의 주력과 마주하

고 있는 500명을 지휘하여 왔음. 그리고 적의 주력은 26일 전투로 위풍 방면으로 퇴각하였는데, 이강년李康季 역시 그 방면으로 도망하였다고 함.

2. 이 전투에서 적의 수괴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임. 대대는 적괴를 잡을 때까지 귀환하지 아니하고 행동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장교 이하 모두 건강하며 사기가 매우 높은 상태임.
3. 鳥飼 중대는 27일 오전 중에 永春에 집합하여 그 주력은 永春에서 동남방 산길과 위풍을 거쳐 남대동永春 동방 약3리으로 전진하고, 長岡 소대는 永春 북방에서 도하하여 곡구를 거쳐 남대동으로, 河野 소대는 곡구 동방을 거쳐 남대동으로 전진하면서 적도들을 소탕함. 남대동 길에 도착한 후에는, 고치령 부근으로 행동중인 제4중대와 연계하여 永春, 영월 간으로부터 동방으로 굽어 들어 온 無名川의 대곡지적의 주력이 도주한 위치를 엄습할 예정임. 26일 이래 추위가 심해 지고 눈이 내려 어두운 상황이라 행동상 다소 곤란이 야기 되고 있음. 따라서 25일 이래의 전투에서 각 소대가 소모한 탄약 약 1,500발을 오늘 밤 순흥 동북방 약 10리 되는 소천 시장에서 보급할 예정임.
4. 태백산 서북방 화곡 방향에서 행동중인 제4중대로부터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음.
5. 征矢野 대위는 보병 47 常藤 특무조장의 1개 소대를 이끌고 오늘 밤 고치령에 있으며 늦어도 내일 25일까지는 熊澤, 河村 양 소대와 연락하여 제3중대와 함께 공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6. 대대는 내일 이후 소천 시장에 위치할 것임.

따라서 이상의 보고 요지를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함.

한편, 강화도 전투에서 부상하여 경성 주재 병원에 입원중이던 제1중대 이등졸 古賀伊平次는 오늘 퇴원하여 귀대 하였음.

二. 대대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행동을 개시함.

三. 영월 및 삼척 부근의 수비대로 하여금 호응하여 행동하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

이상의 보고는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하였음.

土月三日 金曜日 晴天 氣温(二〇)

大 印 滯 五

全軍引退道首死九記(電報報告) 土月七日午前五時東京出發
人馬翻大尉率(重要部隊)土月廿六日午前八時發向(重要部隊) 東方約里
二夜收兵(重要部隊)戰役約五百名(集團)永春(向)戰向(攻
擊)東(下)底橋(深)陣地(自)是(休)戰(射)人(主)擊(殺)一
然(戰)使(砲)彈(砲)之(攻)擊(如)古(蹟)也(一)戰(者)永(春)
東方(里)所(於)邊(境)度(右)方(邊)部(一)部(永)春(於)於(同)定(右)
軍(人)一(部)海(日)方(前)邊(部)也(中)隊(進)兵(至)戰(況)邊(境)法
右(方)邊(部)已(松)枕(手)之(攻)擊(中)隊(永)春(隊)不(是)入(邊)境(也)故(沙)兵
擊(及)使(一)夜(邊)部(全)方(地)擊(退)也(一)日(戰)況(約)詳(同)
經(緯)之(戰)況(約)詳(同)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向(後)品(鏡)春(陣)集(隊)數(一)夜(間)河(野)小(隊)不(進)給(一)邊(部)長
向(隊)廿(六)日(邊)部(擊)退(一)夜(間)河(野)小(隊)不(進)給(一)邊(部)長
擊(退)了(邊)部(中)其(他)約(百)名(敵)漸(失)主(擊)退(了)永(春)南
方(約)里(地)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
部(也)如(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大(日)邊(部)全(方)邊(部)約(百)名(敵)於(邊)境(約)百(餘)名(敵)戰
況(約)詳(同)抵(枕)之(攻)擊(一)夜(間)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七(日)邊(部)全(方)邊(部)約(百)名(敵)於(邊)境(約)百(餘)名(敵)戰
況(約)詳(同)抵(枕)之(攻)擊(一)夜(間)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鹿部(音)水春(音)前(音)無(音)獨(音)隊(音)主(音)力(音)對(音)戰(音)況(音)約(音)詳(音)同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北(戰)況(約)詳(同)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向(後)品(鏡)春(陣)集(隊)數(一)夜(間)河(野)小(隊)不(進)給(一)邊(部)長
向(隊)廿(六)日(邊)部(擊)退(一)夜(間)河(野)小(隊)不(進)給(一)邊(部)長
擊(退)了(邊)部(中)其(他)約(百)名(敵)漸(失)主(擊)退(了)永(春)南
方(約)里(地)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
部(也)如(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大(日)邊(部)全(方)邊(部)約(百)名(敵)於(邊)境(約)百(餘)名(敵)戰
況(約)詳(同)抵(枕)之(攻)擊(一)夜(間)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七(日)邊(部)全(方)邊(部)約(百)名(敵)於(邊)境(約)百(餘)名(敵)戰
況(約)詳(同)抵(枕)之(攻)擊(一)夜(間)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向(後)品(鏡)春(陣)集(隊)數(一)夜(間)河(野)小(隊)不(進)給(一)邊(部)長
向(隊)廿(六)日(邊)部(擊)退(一)夜(間)河(野)小(隊)不(進)給(一)邊(部)長
擊(退)了(邊)部(中)其(他)約(百)名(敵)漸(失)主(擊)退(了)永(春)南
方(約)里(地)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
部(也)如(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大(日)邊(部)全(方)邊(部)約(百)名(敵)於(邊)境(約)百(餘)名(敵)戰
況(約)詳(同)抵(枕)之(攻)擊(一)夜(間)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七(日)邊(部)全(方)邊(部)約(百)名(敵)於(邊)境(約)百(餘)名(敵)戰
況(約)詳(同)抵(枕)之(攻)擊(一)夜(間)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向(後)品(鏡)春(陣)集(隊)數(一)夜(間)河(野)小(隊)不(進)給(一)邊(部)長
向(隊)廿(六)日(邊)部(擊)退(一)夜(間)河(野)小(隊)不(進)給(一)邊(部)長
擊(退)了(邊)部(中)其(他)約(百)名(敵)漸(失)主(擊)退(了)永(春)南
方(約)里(地)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
部(也)如(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大(日)邊(部)全(方)邊(部)約(百)名(敵)於(邊)境(約)百(餘)名(敵)戰
況(約)詳(同)抵(枕)之(攻)擊(一)夜(間)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七(日)邊(部)全(方)邊(部)約(百)名(敵)於(邊)境(約)百(餘)名(敵)戰
況(約)詳(同)抵(枕)之(攻)擊(一)夜(間)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向(後)品(鏡)春(陣)集(隊)數(一)夜(間)河(野)小(隊)不(進)給(一)邊(部)長
向(隊)廿(六)日(邊)部(擊)退(一)夜(間)河(野)小(隊)不(進)給(一)邊(部)長
擊(退)了(邊)部(中)其(他)約(百)名(敵)漸(失)主(擊)退(了)永(春)南
方(約)里(地)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
部(也)如(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大(日)邊(部)全(方)邊(部)約(百)名(敵)於(邊)境(約)百(餘)名(敵)戰
況(約)詳(同)抵(枕)之(攻)擊(一)夜(間)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七(日)邊(部)全(方)邊(部)約(百)名(敵)於(邊)境(約)百(餘)名(敵)戰
況(約)詳(同)抵(枕)之(攻)擊(一)夜(間)全(方)邊(部)不(詳)也(自)名(以)下(可)
一(部)永(春)向(南)邊(部)也(一)戰(況)約(詳)同(一)部(永)春(向)南(邊)部(也)如(一)戰(況)約(詳)同

12월 2일 월요일 맑음 기온(10.0도)

대구 체재

四. 대구 경무 고문부로부터의 통보 요지

1. 정하직* 일단은 鄭中軍 또는 永川黨으로 불리고 폭도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며, 부하 500명을 가지고 흥해, 청하, 신령을 습격하였음. 그 아들 정환여*가 아군에게 살해되자,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일족 모두가 나서서 일본인 100명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말했다고 함.
2. 박처사는 평안도 출신으로서 요술을 안다고 말한다고 하며 현재 영양군내에 있는 듯하며 부하는 50명에 지나지 않음.
3. 류장군은 이름이 時永이며 그 출신은 알려져 있지 않음. 그 처는 현재 영양에 있고 부하는 50명이며 평해, 울진 부근을 배회한다고 함.
4. 이참봉은 이름이 斗義이고 점을 잘 친다고 하여 유명하며 부하는 80명임.
5. 신돌석은 영해 출신으로 연령 29세, 無學으로 도박을 직업으로 해 온 자이며 완력이 다섯 사람을 당할 정도로 세다고 함. 부하는 200명이고 평해, 영양군내에 있음. 11월 22일 영해를 습격하였음.

이상의 3건의 보고 및 경무 고문부의 정보는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 하였음.

오후 9시 다음의 보고나동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12월 2일 오전 3시 소천 시장 赤司 소좌의 보고 요지

- 一. 11월 29일 이래 이강년 李康季이 지휘하는 적도들은 영월 동북방 각지로부터 영월 및 永春의 서남쪽 청풍 동방지읍 및 소백산 기슭에 걸쳐 다시 이동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매단동단양 서북방 약 4리, 2백만분의 1 지도 참조 부근에 있는 듯함.
- 二. 오늘 제3중대로 하여금 4중대를 이루어 정선강의 북방 지구로부터 매단동 부근의 적도들을 습격하도록 하였음.
- 三. 적도들이 다시 북방으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榮川에서 소백산 기슭에 걸쳐 제4배치중대를 배치하고, 그 일부는 죽령을 막도록 함.

* 鄭瑗直은 鄭煥直, 鄭煥汝는 鄭鏞基의 오기

12월 4일 수요일 맑음 기온(7.3 도)

대구 체재

오후 12시 榮川 方面 倭軍 赤司 소좌로부터 아래의 요지와 같은나동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음.

12월 4일 오전 5시 풍기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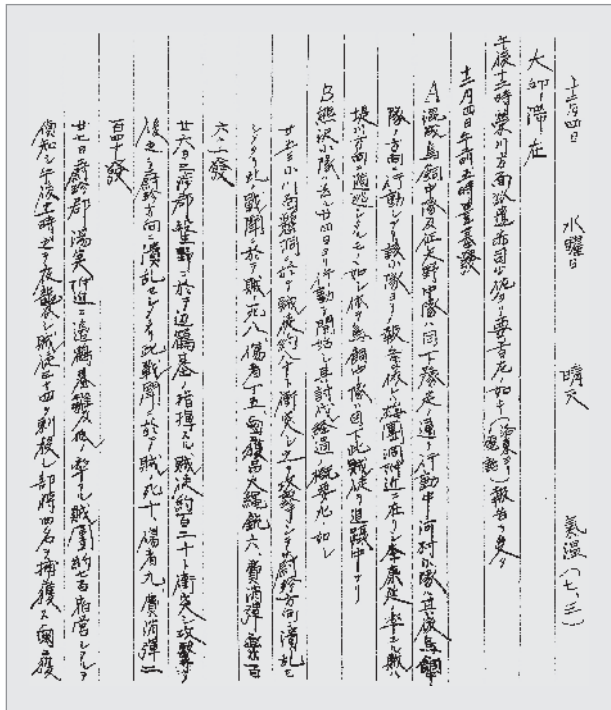
A. 混成 鳥飼 중대 및 征矢野 중대는 현재 예정대로 행동 중임. 河村 소대는 鳥飼 중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동 소대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매단동 부근에 있는 이강년 李康季이 이끄는 적도들이 제천 방향으로 도주한 것 같다고 함. 그래서, 鳥飼 중대는 현재 이 적도들을 추적 중에 있음.

B. 熊澤 소대는 지난 24일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그 토벌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25일 소천면 현동에서 적도 약 80명과 마주쳐 이를 공격하여 울진 방향으로 쫓아내 시켰음. 이 전투에서 적은 사망 8명, 부상 15명이 발생했고, 노획품은 화승총 6, 소모탄 161발임.

26일 삼척군 반야에서 변학기가 지휘하는 적도 약 120을 마주쳐 공격, 이를 울진 방향으로 쫓아내 시켰음. 적의 사망 10, 부상 9, 소모탄 240발임.

27일 울진군 湯實 부근에서 邊鶴基? 雛가 이끄는 적도 약 700명이 숙영하는 것을 탐지하여 오후 11시 야습을 감행, 적도 34명을 찢러 죽이고 부장 4명을 포획하였음. 노획



12월 5일 목요일 맑음 기온(13.0도)

대구 체재

오후 11시 榮川 방면에 파견한 赤司 소좌로부터 아래 요지의 보고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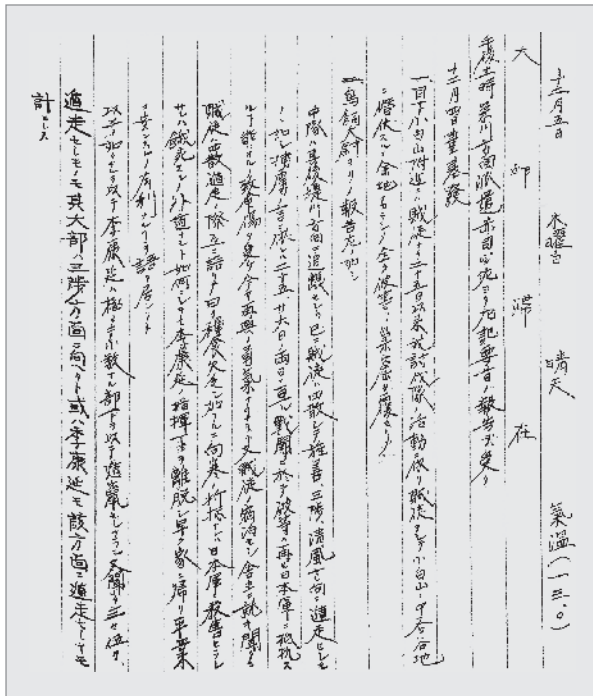
12월 4일 풍기 발

- 一. 현재 소백산 부근에는 적도들이 없고 25일이래의 우리 토벌대의 활동으로 적도들이 소백산의 골짜기에 잠복할 여지가 없어진 상태로 그들의 소굴을 완전히 소탕하였음.
- 二. 鳥飼 대위의 보고는 아래와 같음.

중대가 그 후 제천 방면으로 추격을 하여 적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정선, 삼척, 청풍 방향으로 도망친 듯함. 포로의 말에 따르면 25, 26일의 양일간에 걸친 전투로 적이 다시 일본군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어, 이제 재기의 용기도 없다고 함. 또한 적도들이 숙박한 집 주인에게 들은 바로는 적도들이 사방으로 도망할 때에 서로 말하기를 양식도 부족한 데다가 추위가 다가오고 있어, 일본군에게 죽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사할 수 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여서라도 이강년李康季의 지휘를 벗어나서 속히 집으로 돌아가 평소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고 함.

이상과 같이 이강년李康季은 극히 소수의 부하를 데리고 도망하고 있거나, 삼삼오오 도망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삼척 방향으로 도망하고 있으며 이강년李康季도 그 쪽으로 도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음.



12월 17일 화요일 맑음 기온(13.0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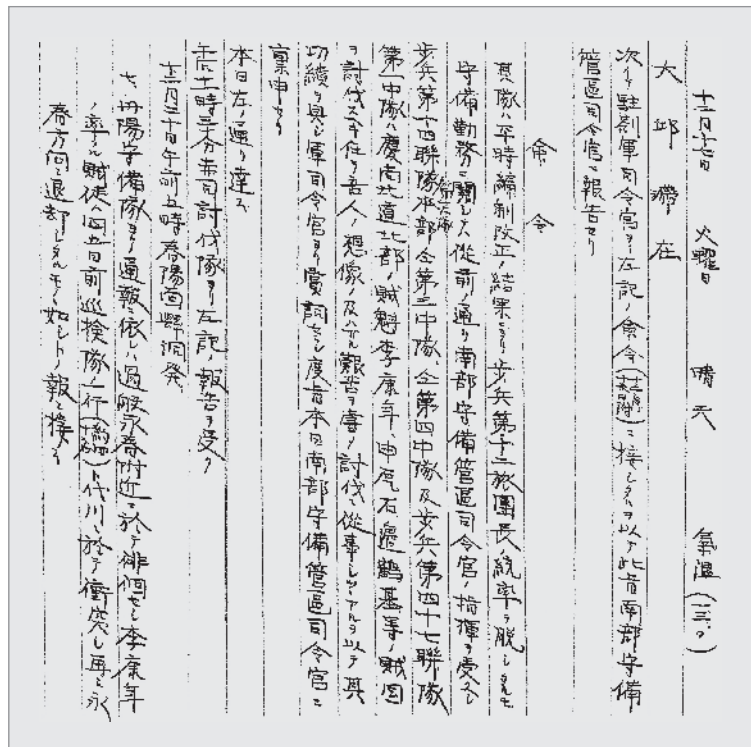
대구 체재

이어서 주재군 사령관으로부터 아래 명령12월 16일자을 받았으므로 이 취지를 남부수비관 구 사령관에게 보고함.

명령

부대는 평시 편제 개정의 결과에 따라 보병 제12여단장의 통솔에서 벗어났으나 수비근무에 관하여서는 중전과 같이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의 지휘를 받을 것. 보병 제14연대 제1대대 본부, 동제3중대, 동 제4중대 및 보병 제47연대 제1중대는 경상북도 북부의 수괴 이강년李康年, 신돌석, 변학기 등의 적단을 토벌하는 임무를 상상할 수 없는 난간을 무릅쓰고 수행하고 있음. 이에 그 공적을 표시하여 군 사령관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음을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신고 하였음.

오늘 아래와 같이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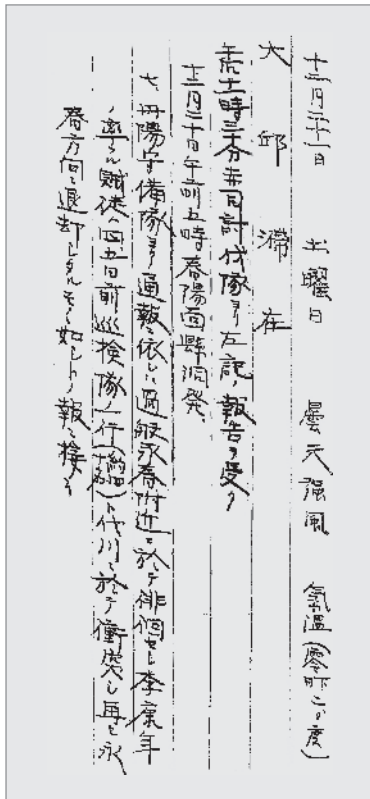


12월 21일 토요일 흐리고 강풍 기온(영하2.0도) 대구 체재

오후 11시 30분 赤司 토벌대로부터 아래 보고를 받음.

12월 10일 오전 5시 춘양면 현동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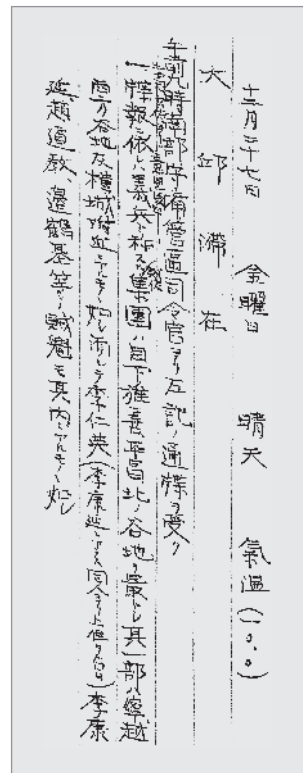
七. 단양 수비대로부터 통보에 의하면 좀 전에 永春 부근에서 배회하던 이강년李康年 휘하의 적도들은 사, 오일 전 순검대 일행약10명과 大川에서 마주쳐 다시 永春 방면으로 퇴각한 자들 같다는 보고를 접함.



12월 27일 금요일 맑음 기온(10.0도) 대구 체재

오전 9시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으로부터 아래 통보를 받음.

- 一. 첩보에 따르면 의병이라고 칭하는 집단은 현재 정선, 평창 이북의 골짜기에 가장 많고 그 일부는 영월 서방 골짜기 및 횡성 부근에 있는 것 같음. 따라서 이인영 이강년(李康季) 보다 상위를 접함, 이강년李康季, 조도교*, 변학기 등의 적피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조동교의 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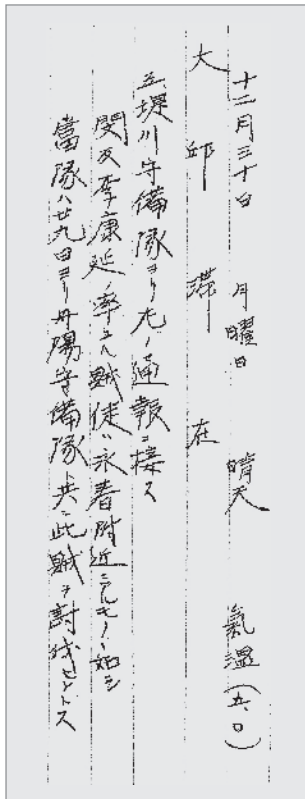
12월 30일 월요일 맑음 기온(5.0도)

대구 체재

五. 제천 수비대로부터 아래의 통보를 받음.

関 및 이강년李康年이 이끄는 적도들은 永春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임.

당대는 29일부터 단양 수비대와 함께 이 적을 토벌하고자 함.



1월 4일 토요일 기온(4.0도)

대구 체재

赤司隊 후방을 기마대로 교체

오후 10시 30분 낙동 기병 소대장으로부터 아래 전화 통보를 받음.

토지 경찰의 결과 교체된 기병은 충주에서 문경을 거쳐 낙동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즉시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함.

一月四日 土曜日
大邱 帶在
赤司隊後方騎隊
午後時分 洛東騎兵小隊長より 電話通報接す
土曜偵察結果 洛東騎兵小隊より 洛東に配置する事
依り 洛南司令部管區司令官に報告す

1월 11일 토요일 맑음 기온(14.0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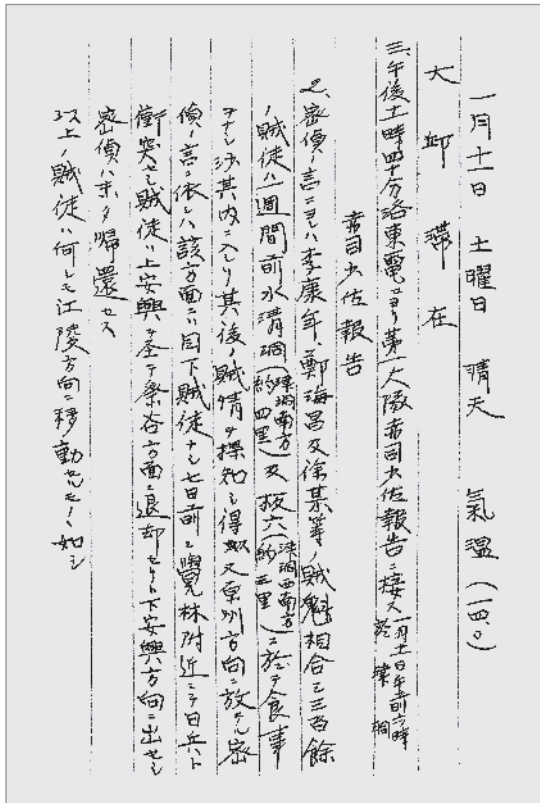
대구 체재

三. 오후 11시 40분 낙동으로부터 전화로 제1대대 赤司 소좌의 보고를 받음.

1월 11일 오전 6시 울동에서 赤司 소좌 보고

2. 밀정의 말에 따르면 이강년李康年, 정해창 및 서 某 등 적괴 300여명의 적도는 1주 전에 함께 수청동울동 남방 약4리 및 板六울동 서남방 약3리에서 식사를 하고 사기내로 들어 갔음. 그 후의 적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음. 또한 원주 방향의 밀정의 말에 의하면 그 쪽에는 현재 적도가 없으면 7일 전에 각림 부근에서 日兵과 충돌한 적도는 上 安興을 거쳐 채곡 방면으로 퇴각하였다고 함. 下 安흥으로 보낸 밀정은 아직 귀환하지 아니하였음.

이상 적도들은 모두 강릉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임.



1월 25일 토요일 맑음 기온(16.0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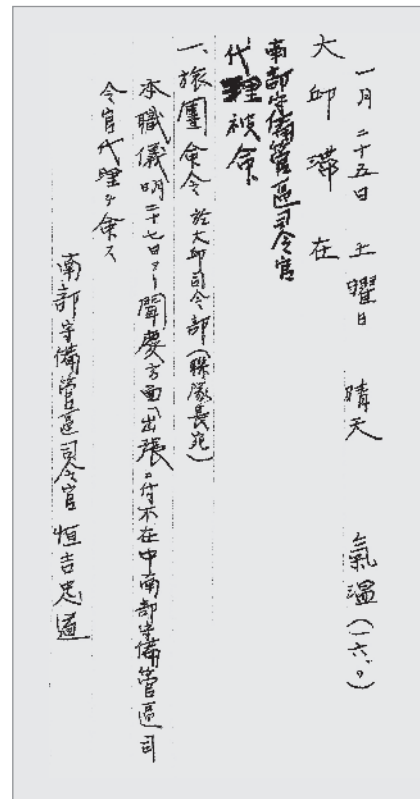
대구 체재

남부수비관구 사령관 대리에 임명.

一. 여단 명령 대구 사령부에서 연대장에게

본관이 내일 27일부터 문경 방면 출장으로 부재중 남부수비관구 사령관 대리를 명함.

남부수비관구 사령관 恒吉忠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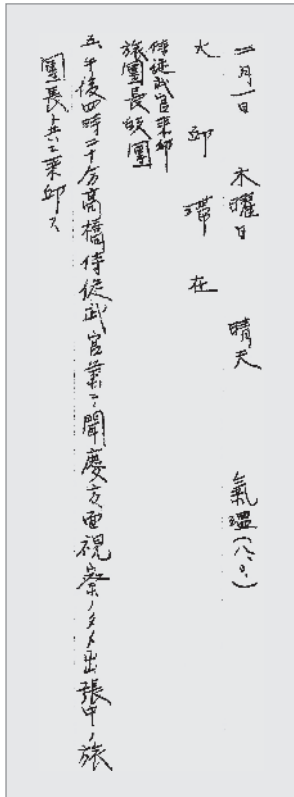


2월 1일 목요일 맑음 기온(8.0도)

대구 체재

시종무관 대구에 옴, 여단장 사단

五. 오후 4시 20분 高橋 侍從武官과 함께 문경 방면 시찰을 위해 출장 중이던 여단장이 대구로 옴.



5월 28일 목요일 흐림 기온(25.0도)

대구 체재

上長官會議

오전 8시 연대 본부에서 상급 지휘자 회의를 열고 수비대 배치 변경에 관한 명령과 훈시를 하달함.

대구수비대 배치변경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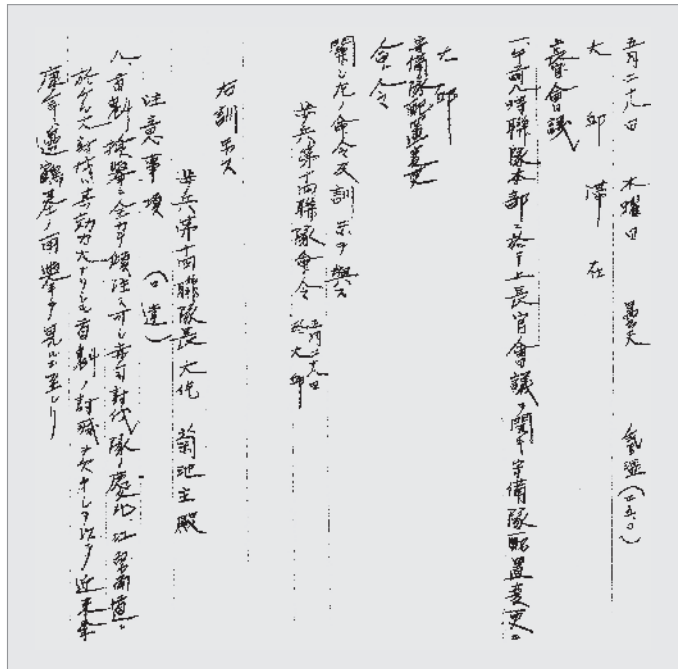
관하여 아래의 명령 및 훈시를 함.

보병 제 14연대 명령 5월 28일 대구 수비대 배치 변경 명령 5월 28일 대구에서 위와 같이 훈시함.

보병 제14 연대장 대좌 菊池主殿

주의 사항 구두 지시

수괴 검거에 전력을 기울여 온 赤司 토벌대의 경복, 강원 양 도에 걸친 대 토벌은 지대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수괴의 討滅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최근 이강년李康年, 변학기를 검거하기에 이르렀음.



6월 30일 일요일 비 기온(22.0도)

대구 체재

二. 남부수비관구 사령부 통보 6월 30일 대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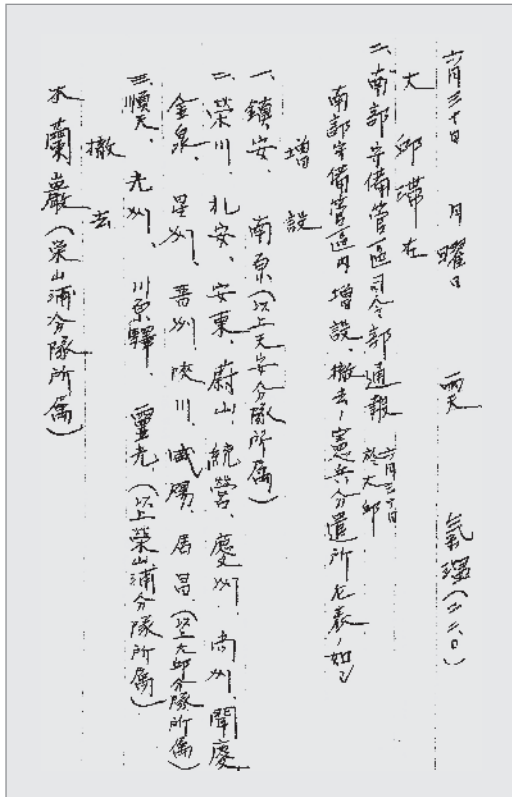
남부수비관구 내의 증설, 철거 되는 헌병 파견소는 다음과 같다.

증설

- 一. 진안. 남원 이상 천안 분대 소속
- 二. 榮川. 예안. 안동. 울산. 통영. 경주. 상주. 문경.
김천. 성주. 진주. 함천. 함양. 거창 이상 대구 분대 소속
- 三. 순천. 광주. 천원역. 영광 이상 영산포 분대 소속

철거

목란암 영산포 분대 소속



7월 5일 일요일 흐림 기온(24.0도)

대구 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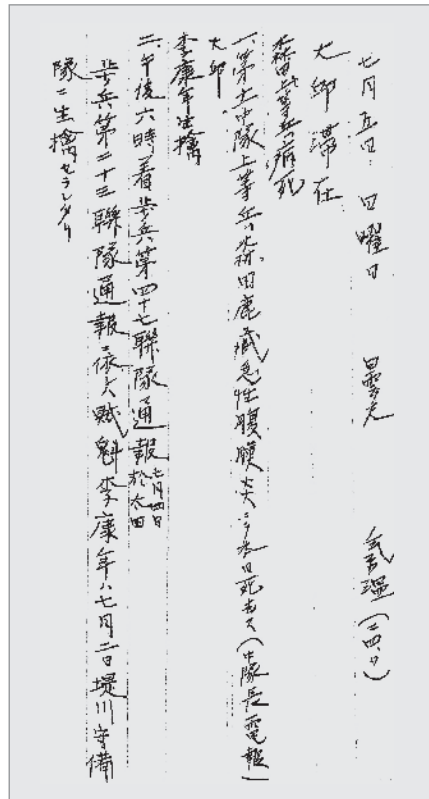
森田상등병 병으로 사망

一. 제11중대 상등병 森田鹿藏 급성 복막염으로 오늘 사망함중대장 전보

7월 6일 대구 이강년(李康季) 생포

二. 오후 6시 도착 보병 제47연대 통보 7월 4일 대전에서

보병 제 24연대의 통보에 의하면 적과 이강년李康季은 7월 2일 제천 수비대에 생포되었다고 함.



7월 23일 목요일 맑은 뒤 흐림 기온(35.0도) 대구 체재

헌병 분견소 증설

四. 동시에 도착한 헌병 분견대의 통보

아래의 위치에 당 분대 소속의 분견대를 증설함.

거창, 합천, 함양, 통영, 진주, 울산, 경주, 안동, 榮川, 예안, 김천, 성주, 상주, 문경

